

행정간행물

25090-33246-44-97002

항공

AIR FORCE QUARTERLY
1997년 봄호(통권 제238호)



항공권본부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공군사관학교 제45기 졸업 및 임관식이 지난 3월 14일 김영삼 대통령을 비롯한 김동진 국방부장관, 육·해·공군 참모총장, 주한 외교사절 등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군사관학교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졸업 및 임관식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치사를 통해 "유사시 가장 먼저 적을 맞아 싸워야 할 공군은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계태세와 즉응전력을 항상 유지해야 할 것"이라며, "미래 전쟁의 승패는 첨단 무기체계와 정보력이 좌우하게 될 것이며 그 핵심요소는 바로 공군력"이라고 상기시키고 "공군의 정예화를 위한 전략형 공군력 건설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졸업식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은 김종수 소위가, 국무총리상은 조충석 소위가 받았다.

공군사관학교 제45기 졸업 및 임관식

- ▶ 졸업생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 ▶ 참모총장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있는 이광학 공군참모총장



- ▶ 조국 영공수호의 간성으로 첫발을
내딛은 사관생도들



글 차례

- 권 두 화 보 _____ 4
 - 권 두 언 강한 공군상 구현/정훈공보실장 대령 서홍교 _____ 10
 - 보 라 매 칼 럼 역사 속에서 배우는 교훈/준장 전영배 _____ 12
 - 시 사 안 보 북한의 체제위기와 대남전략/통일교육원 교수 박갑수 — 14
좌경세력 연방제 통일논리의 부당성/공군기무부대 — 21
전환기 안보환경에 따른 장병 정신무장 강화 방안 — 26
/대위 박승만
 - 공 군 논 단 미래전 양상과 공군력 정비 방향/대령 배창식 _____ 36
21세기 정보공격과 방어 개관/중령 한성수 _____ 44
한국의 통일여건 분석과 통일방안/중령 윤부영 _____ 49
 - 나 의 제 언 군대는 강인한 실천력을 기르는 성인 교육장이다 _____ 55
/중령 윤재홍
참다운 “군의 제모습”이란?/중령 김길근 _____ 63
뜨거운 한마디/준위 신준식 _____ 67
외로운 양치기 소년/병장 조일규 _____ 69
 - 중 간 화 보 _____ 73
 - 가 입 교 일 지 패기, 신념, 정열, 극복, 49기 화이팅!!/중령 박장경 — 81
49기 여자 사관생도를 맞이하며/대위 한기정 _____ 86
가입교 훈련을 마치고/공사 1학년 박민규 _____ 88
-

글 차례

	우리에겐 꿈이 있다/공사 1학년 한정원	90
● 병영이야기	10년만에 한번 기회 MIG기 포착 내가먼저 /소령 박효성	92
	잊을 수 없는 사람들/5급 이희호	97
● 안전상식	안전의식과 안보의식은 근본이 같다/준위 정두진	100
	가정에서의 안전에 대하여/상사 조성수	107
● 여행수기	봉황산 부서사 기행/6급 최태준	110
	서울 나들이를 다녀와서/공군가족 장영의	115
	신나는 서울 구경/공군가족 오혜란	117
● 만화	우리 내무실은 세계일류/고석현	119
● 공군문단		127
- 시 -	나의 다짐/소령 이동교	128
	활주로의 꿈/병장 박인호	129
- 수필 -	인두에 얽힌 이야기/중령 남상열	130
	아름다운 마지막 병영일기/중위 이주태	134
	세상의 주인이 되어/상병 유주한	137
- 독후감 -	소설 "아버지"를 읽고/하사 오우택	139
- 소설 -	고향/병장 강호준	142
- 취미생활 -	별자리 여행/병장 김영수	147
● 글을기다립니다.		152

공 · 군 · 동 · 정



▲ 제3훈련비행단에서 열린 '96-4차 고등비행 교육과정 수료식에 참석하였다. 공군 지휘관·참모와 부대장병 및 수료 조종학생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수료식에서, 모두 30여명의 조종학생들이 영예로운 조종훈장과 빨간 마후라를 수여받고 영광스러운 조종사로 새롭게 태어났다.(1.14.)



▲ 역대 공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예비역과 현역 장교 400여명을 공군회관으로 초청하여 신년교례회를 가졌다.(1.17.)

앞줄 왼쪽부터 金成龍, 張志良, 張盛煥, 金昌圭, 李光學(현 총장), 朴元錫, 金相台 전 총장
 뒷줄 왼쪽부터 金鴻來, 鄭用厚, 徐東烈, 金斗萬, 玉滿鎬, 金仁基, 尹子重, 韓周爽 전 총장

공 · 군 · 동 · 정



▲ 작전사령부 예하 각급 지휘관 및 작전사령부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작전사령부 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97 안보환경 분석, 공군의 대비태세, 실전적 교육훈련, 총체적 안전관리 정착, 및 '97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했다.(1.31.)



▲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된 제97기 공군 사관후보생 교육수료 및 임관식에 참석하였다. 참모총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그동안 같고 닦아온 군지식과 강인한 체력, 그리고 투철한 군인정신을 바탕으로 각자 위치에서 국가 보위의 성스러운 소임완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2.4.)

공 · 군 · 동 · 정



▲ 예하 독립전대급 이상 전부대의 주임원사 및 공군 중앙하사관단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97 공군 주임원사 회의'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참모총장 지휘중점 구현에 대한 하사관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역할증대에 관한 인식제고를 비롯해, 지난해 주임원사 업무성과 분석 및 개선방향 모색, '97년 공군정책 방향 및 주임원사 업무 방향 제시 등을 통해 주임원사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2.12.)



▲ 제3훈련비행단에서 거행된 '96 공군 안전 최우수부대 시상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수상의 영광을 안은 3훈련비행단은 "세계 일류 정예조종사 양성"이라는 부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행교육의 내실화, 작전지원체제 완비, 완벽한 안전관리와 합리적 부대관리를 통해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장병이 일치단결해 맡은 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3.4.)

항공

AIR FORCE QUARTERLY

1997년 봄호(통권 제238호)



參謀總長 指揮方針

最高の 戰備態勢
科學的 教育訓練
總和的 安全管理
斬新한 空軍文化

공군본부

강한 공군상 구현

지난해 북괴 미그기 귀순대응에 대한 장병들의 성공적 임무수행은 철벽 영공방위의 강한 신뢰감을 주었고, 가을 하늘을 수놓은 『서울 에어쇼』는 국민들에게 맛있는 공군의 인상을 깊게 심어주었다.

지난 3월 한겨울을 나고 봄이 오는 문턱에서 방영된 한편의 다큐멘터리는 강한 공군상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계기가 되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처음으로 여성생도를 뽑은 예비생도들의 훈련과정을 다룬 KBS-TV 『일요스페셜』 프로에서, 지난 1월 20일 가입교에서 입교식까지의 5주간에 걸쳐 군인이 되어 가는 과정을 밀착 취재한 뜻있는 내용이 가슴을 뜨겁게 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깊은 감명을 안겨 주었다.

흔히 공부만 해 온 신세대 약한 여성으로 속단하기 쉬운 선입견에서 탈피한 모습은 공군발전의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프론티어의 정신을 발견케 한 느낌을 주었다.

3월 14일 대통령께서는 공사 제45기 졸업 및 임관식 치사를 통해, 건군 50년 이래 최초로 여성 사관생도를 공군에서 탄생시켰다고 강조하였다.

“여성 사관생도의 탄생은 한국 공군과 여성 발전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기록을 세운 해가 될 것이며, 우리 여성의 역할이 조국의 하늘에까지 뻗어나게 되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徐 弘 教
대령/정훈공보실장

다”고 하였다. 앞으로 이들 여생도들은 전투 조종사를 비롯한 공군의 각 특기분야에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이며 21세기 세계 일류 정예공군 건설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날 대통령께서는 “공군력은 전시에는 승리의 핵심 전력일 뿐 아니라 평시에도 전쟁을 억제하는 가장 강력한 힘으로, 이러한 공군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 공군의 정예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첨단 무기체계를 확충하고 그 운영능력을 높여 나가며, 전략전술과 정보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지금 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전략형 공군력 건설” 계획은 앞으로 선진조국의 영공수호와 거시적 국익보호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이다.

우리 안보의 관건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최근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과 황장엽을 비롯한 연이은 지도급 인사들의 탈북에서 보여지듯이 체제와해의 위기를 맞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대남 적화전략을 고집하고 있는 북한이 무모한 군사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은 언제라도 상존하고 있으므로, 강한 군은 평시 강한 훈련을 통해 국가안보에 한치의 빈틈도 보여서는 안될 것이며 철벽 영공방위를 완벽 임무완수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여된 소명임을 깊이 인식하자.

역사속에서 배우는 교훈



전 영 배

준장/공군본부 교육훈련감

로마는 기원전 735년에 탄생하여 기원후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약 1,200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존속하였다. 동로마 제국이 유지되었던 시기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2,200년 이상을 국가로 존재하였으며, 인류역사상 이렇게 오랫동안 국가로 존속되었던 나라는 아직까지 없었다.

어느 국가도 500년을 넘지 못하고(인류역사상 큰 발자취를 남긴 징기스칸의 몽고제국,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제국, 청나라 등) 멸망하고 말았다. 그러면 “무엇이” 그토록 로마제국을 오래 유지하면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인류문명에 강하게 남아 있도록 하였는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어느 기업에서는 기업의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을 위해 이러한 의문점에 착안을 하여, 로마에서 배울 수 있는 조직과 로마정신을 연구하여 기업 이익창출에 적용하려 한다는 보도를

읽은 적이 있다.

역사평설 『로마인의 이야기』(시오노 나나미)에서 작가는 “지성에서는 그리스인보다 못하고, 체력에서는 켈트인이나 게르만인보다 못하고, 기술력에서는 에트루리아인보다 못하고, 경제력에서는 카르타고인보다 뒤떨어지는 민족인 로마인들이 어떻게 그토록 오랫동안 커다란 문명권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진다.

그 조직의 구성원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그 바탕을 이루는 문화가 무엇이었을까, 국가를 강력하게 뒷받침할 수 있었던 군대의 기본정신이 어떠한이었을까 하는 질문에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고 읽어왔던 로마의 역사 속에서는 바로 이러한 의문과 흥미에 정답을 주고 있다. 어떻게 보는가 하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거대한 조직을 움직이는 원동력

은 로마인의 시민정신이 아닌가 한다.

로마인들은 신의 은총으로 국가를 얻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려움과 의무를 맡으며 끊임없이 창조하고 도전하면서 국가를 만들어 갔다. 타부족과의 전쟁위험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극복해 나가는 구성원의 공동체 참여의식이 국가를 지속하는 핵심이었다.

또한 로마인들은 명예를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있었다. 일반생활에서도, 전쟁에서도 그들의 행동을 끌어가는 핵은 명예와 자긍심이었다. 나를 나타내기 위한 공명심보다 그들이 지켜야 할 로마를 위해 "국가가 바로 나"라는 자긍심이 조국애로 승화되었다. 이것이 용기로 발전되었으며, 로마인들은 이렇게 공동체의 단결에 의미를 두었던 것이다.

로마에서 17세~45세의 모든 남자시민은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했으며, 46세~60세 남자는 예비군으로 복무해야 했다. 부유층의 비용으로 각종 장비를 구입하여 장갑보병으로 무장하였다. 귀족들은 절제와 희생으로 국가건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평민은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잊고 스스로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다.

로마군은 규율이 엄격하였으며, 군인이 지켜야 할 규율을 어기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다.

또한 전쟁을 단지 용맹성과 용기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훈련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연령과 지식수준에 상관없이 학습한 내용을 매일 반복 훈련하였으며, 겨울철에도 대형 헛간을 지어 혹한에도 훈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모의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는 실전의 그것보다 두배나 무거웠다고 한다. 그리고 이처럼 엄격한 규율과 철저한 훈련으로 단련된 군대의 저변에



는 병사 개개인의 시민정신이 있었다.

로마의 지배층 자체가 군의무를 회피했을 경우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비웃음거리로 매장되었다. 즉 "노블리스 오블리제 (NOBLESSE OBLIGE)", 의무를 다하는 신분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국가는 성공할 수 있었고 리더정신의 표상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우리 공군은 국가방위의 핵심전력으로서, 전쟁을 억제하고 영공을 방위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과연 우리 공군인은 역사에서 배우는 공동체로서의 참여의식과 명예와 자긍심을 갖고, 조국을 지키는 시민정신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21세기 세계일류의 정예공군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고 어떤 정신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모든 공군인은 역사 속에서 배우는 교훈에서와 같이 공군이라는 조직의 공통목표를 가져야 하겠다. 그리고 그 조직의 일개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의식과 명예, 용기, 자긍심을 길러야 하겠다.

끝으로 공동체를 생각하는 시민정신이 어느때보다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왜냐하면 로마의 멸망은 시민정신의 가치성 상실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의 부재가 바로 패배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중문**

북한의 체제위기와 대남전략

박 감 수

통일교육원 교수

I. 문제의 제기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이 연속적인 마이너스 경제성장, 산업구조의 점진적 마비 등으로 극도의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됨으로써 국내외의 여러 연구기관에서는 이제 북한이 체제위기 또는 붕괴 단계에 까지 돌입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생존을 위해 체제 변환과 새노선의 선택을 강요받고 있는 북한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어떠한 생존전략을 추구할 것이며, 그중에 대남전략의 방향과 추이는 어떻게 전망될 것인지 이 문제는 우리들의 대북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매우 중시되어야 할 주요과제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북한 현 체제의 불안정성과 위기 정도를 진단하고 북한의 입장에서 체

제생존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위기관리 및 대남전략 방향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

II. 북한체제의 위기진단

지난 2월 중순 주한 미군사령부에서 미의회 보고서에 크게 참고가 된 「북한 붕괴유형 시나리오」는 미측 북한전문가에 의해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된 보고서로서 북한이 전체 7단계의 붕괴 시나리오에서 제2~3단계에 도달해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붕괴 첫 현상인 자원 결핍이 점차 수급체제를 마비시키고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의 골간인 이 수급체계(수확·배급)가 순조롭지 않음으로써, 자생력을 키우려는 지방정

1) 서구정치이론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은 곧 붕괴할 것으로 나타나지만 북한 특유의 가부장적 종교적 체제 결속으로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북한의 1인당 GNP 923불은 인도의 3배이며 개도국에서는 아직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부가 독립 움직임을 보여 4~5단계가 지나면 중앙 통제능력이 상실되어 해체과정에 진입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미 CIA 도이츠 국장도 북한은 이미 붕괴과정에 진입하였으며, 마지막 생존기도로써 군사력을 선택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본과 중국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중에는 북한이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단정하는 내용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면 과연 북한은 외국에서 평가하고 있는 것처럼 거의 파산상태에 있으며, 재기불능 단계로 돌입하였는가? 이점에 대해 견해차를 좁힌다면 두가지의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

북한은 ‘곧 붕괴한다’는 입장에서 있는 그룹에는 해외의 학자들, 특히 서방의 연구 및 정보기관들이 많고 ‘아직은 충분히 견딜 수 있다’라는 입장에는 국내의 북한전문가, 중국·러시아의 연구기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양측의 견해가 모두 타당성을 갖고 있으며, 판단과정에서의 논리상의 결함도 발견하기 어려워 북한 체제진단에는 실제로 다녀온 방북자들 까지도 단안을 내리기가 용이하지 않다.

Jugen Habermas의 정치체제 위기 이론에 따르면 정당성의 위기, 경제적 위기, 합리성의 위기, 동기유발의 위기에 의해 한 정치체제가 위기에 도달하고 붕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북한의 체제에 비추어 본다면 참으로 북한은 체제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판정할 수 있다.

첫째, 정당성의 위기와 관련하여 먼저 김정일에 대한 정통성 인정여부가 거론될 수 있다.

김정일은 현재 북한에서 당정치국 상무위원

(’80.10.), 최고사령관(’91.12.), 국방위원장(’93.4.) 직책으로 대안부재의 김일성의 후계자임을 과시하며 당·정·군 전분야에 걸쳐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김정일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밖에 없으나 북한주민들과 북한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북한사회의 엘리트 집단 및 군인들의 자발적인 지지에 의해 권력이 창출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식교육을 받지 못한 빨치산 1세대들이 김일성 주변에서 특권을 유지하고 권력투쟁에서 이기기 위해, 신식교육을 받고 비교적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내는 해외 유학파와 지식인 정치인들을 숙청해 나가는데 있어 제일 크게 활용한 것이 김일성 분신으로서의 김정일 후계자론이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일단 김부자를 정점으로 하여 빨치산 원로, 혁명유자녀 출신들을 규합하여 권력장악과 유지에는 성공하였지만, 북한사회발전에 유익하고 공헌할 수 있었던 수많은 인재들과 인적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채 사장시켜 버리고 말았다.

개도국에서 국가가 사회주의 정권 초기에 강세를 보인 이유중의 하나는 직업의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경제가 가능한 점도 있었으나, 인간소외를 주장하면서 정의를 앞세워 체제 변혁을 시도한 다소 양심적인 엘리트와 지식인들이 그런대로 체제발전을 위해 역할하였기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²⁾

그러나 사회주의 혁명 실천과정에서 초기의 유능하고 정열적인 엘리트들이 거의 사라져가고

2) 직업의 종류는 2천개가 넘어서면 계획경제로는 산업구조 유지가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다. 조총련의 활동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것도 조총련 1세대의 은퇴문제와 직결되고 있다.

이제는 이념의 허구성과 제도의 비효율성, 체제 관리의 비인간성 등이 중첩되어 북한의 입장에서는 “목표선”에 비해 “수단악”이 능가한 상태가 되어 버렸다. 그후에 배출되는 엘리트들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직업보다는 감시·통제등 대부분이 공안·감찰부서에 안착함으로써 김부자 권력장악에는 기여하여 왔으나 북한사회 발전과는 인과관계가 별로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인 평균치로는 인구의 1%가 국방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은 2,300여만 인구중에 104만의 정규군을 보유하고 있고 오히려 인구 1%에 가까운 20여만명의 정치범을 수용하고 있다. 이 수치를 예를 들더라도 북한체제의 정당성의 위기는 쉽게 극복되기가 어렵다.

둘째, 경제적 위기로 북한경제 시스템이 결국에는 마비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북한경제는 Stock 개념에 비해 Flow 개념이 거의 배제된 채 운영되고 있고 그나마 Stock 개념도 통계의 허위, 과장 등으로 중앙에서도 정확한 경제진단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각 지방기업소의 독립채산제 채택, 각 가정의 자구책 마련과 전국적인 암시장 형성 등으로 개인이나 직장 단위에서 자기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공조적이나 전체와의 유기적인 조화, 적절한 관계 유지는 항상 후차적인 문제로 넘겨 두게 된다.

현재 북한 최대의 김책제철소나 정유공장인 승리화학연합기업소 등의 가동율이 20~30%에서 다시 하락하고 군수공장만이 약 70%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식량체계, 에너지체계, 무기체계를 다 갖추어야 명실상부한

독립국가의 역량을 보유하게 된다는 국제정치 이론을 빌리지 않더라도 북한은 무기체계 하나만 구비하였을 뿐 나머지 식량과 에너지 체계는 마비되기 직전의 최소치 공급에 의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

과거 60년대 우리사회의 보리고개를 연상시키는 식량난, 수십리 길을 걸어야했던 운송난 등 어렵든 사회현상이 현 북한에서 재현되고 있을 정도로 북한의 경제실태는 매우 심각하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시스템으로는 자율성과 창의성이 결여되어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북한의 중심산업인 군수산업은 투자 및 재생산의 파급도에 있어 민수분야에 비교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의 계획경제 시스템과 군수산업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 맞물리며 경제 악순환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보는 시각외에 Man-Hour 체크방식 경영진단에 의해도 북한이 별도의 개혁이나 에너지 재충전, 필요인력 재충원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셋째, 합리성의 위기로 북한의 정책결정과정에서는 합리성의 비중 보다는 김부자 충성 위주의 몰가치성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

여기에서 사회주의 및 주체사상 이데올로기가 주는 모순은 북한의 정신문화에 큰 독소로 가중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처음에는 집단과 조직의 목표를 설정해주고 구성원을 통합시켜 목표 성취에 기여하나, 일단 체제전복이나 혁명성공으로 정치적 목적이 달성되면 이데올로기의 관성적인 힘에 따라 이데올로기를 만든 집단과 조직이 거꾸로 이데올로기에 비현실적으로 끌려가는 상황이 전개된다.

김일성과 빨치산 원로들은 해방후 평양에 이주한 소련국적의 한인들과 소련정보기관(MGB : KGB의 전신)의 지원을 받아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통일명분을 앞세워 정권을 쟁취하였고, 그후 김부자 권력유지를 위해 주체사상, 김일성주의 등으로 이데올로기의 재정립을 시도하였으나,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과 생산적인 통일대화화 관련해서는 이념적 수정이나 재창조작업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사회주의와 주체사상 이데올로기에 의해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정책결정 과정이 비효율적인 영향을 받고 있고, 또 북한 특유의 종교적 색채와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북한사회보다는 김부자 우선의 가치기준에 따라 근 반세기에 걸쳐 북한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이 매우 비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지금까지도 당·정 분야는 물론 거의 모든 회의에서 현실 비판, 합목적성 토의보다는 충분히 사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김부자의 교시가 우선시되어 정책이나 인물은 아부에 가까운 정도의 충성을 표시하는 인물이나 정책이 주로 선택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크다.

북한 전역에 있는 수만개의 김일성 동상과 구호목은 별질되지 않도록 특수장치를 한 후에 한밤중에도 전기를 사용하여 밝게하고 있으나, 공장과 가정에는 3교대 송전을 한다든가, 조총련 상공인들이 성금을 거두어 나진·선봉 지구 인프라 공사지원금으로 제공한 자금으로 당장전기탑을 건설한다든가 하는 비상식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통치권층의 의식구조는 비합리성을 넘어 위험하기 까지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넷째, 동기유발의 위기로 전체 주민들이 노동욕구나 성취감으로는 만족할 수 없음으로써 극

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결과 개인의 기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없으며, 전체의 GNP까지 낮출수 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개인의 노력이 소득이나 명예와 연결되지 않고 집단으로만 귀속하게 될 때 인간심리상 노동욕구가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작업 방식이 군대와 같고 군대식으로 '노동 Drive'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개인적인 동기유발이 되지 않음으로써, 집단적인 노동성과 경쟁분위기가 조성되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주민들은 자신이 활용하는 터밭에 주기 위해 절취한 협동조합용의 비료를 땅에 파묻어 숨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며, '젊어 피병은 늙어 보약'이란 말이 회자될 정도로 작업장에서는 '더 노력해도 내 것이 아니다'라는 인식에 젖어 가급적 진취적이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하지 않는다.

북한에서도 이미 60년대 후반에 황해제철소를 한정하여 가치의 법칙에 따라 업무 실적을 화폐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시범사례를 시작한 바도 있었으나, 변화를 기피하는 빨치산 출신의 수구세력에 의해 채택되지 않았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도 인민경제대학에서 인센티브제에 토대를 둔 경제개혁안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여타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인제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구조조정과 제도 변혁을 시도할 만한 정도의 통치권자의 개혁의지와 엘리트 집단, 이에 대한 주민들의 지지와 압력이 약하기 때문에 체제 전환 보다는 체제유지에 보다 집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Ⅲ. 북한의 체제 생존전략

북한은 해방이후 소련의 지원과 친소인맥의 주도하에 6·25를 도발하였으나 패퇴하여 중국군의 개입으로 가까스로 체제를 보존하게 되자, 휴전이후에는 친중파들의 발언권이 대폭 강화되었다.

전란으로 3층이상의 건물이 온존하지 않을 정도로 파괴된 북한 전역을 재건하면서 김일성은 중국과 소련사이에 줄타기 외교를 통해 경제적으로 원조를 획득하고, 최대한 동원체제를 유지하는 가운데 계획경제의 이점을 살려 70년대 초반까지는 경제성장 면에서 한국을 능가하는 부문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단순한 노동집약형 산업인력과 시장이 제한되어 있는 군수산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복잡다단하고 초현대화 되어가는 이 시기에 산업경쟁력이 발휘되기가 어렵게 되었다.

시대의 요구에 적응하여 조직이 운영되고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이 있어야 살아있는 산업구조를 유지할 수 있으나, 북한으로서는 세계 어디에도 북한산 상품을 내세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방적으로 자원을 투입시키기만 하는 군수공장에서 생산하는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외시장 개척이 무척 곤란한 입장에 있다.

이러한 구조적 취약성 게다가 최근 연속적인 흉수, 냉해 등에 의한 식량난과 외화고갈로 원자재 부족, 수송난이 겹쳐 북한은 정치적으로는 명령지시가 말단까지 이행되지 않는 데다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배급만을 기다리지 않고 개개인이 알아서 생존해야 할 정도로 수급체계가 위축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주민들이 당과 정부

에 대해 어려움을 극복해 주리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 가운데 절도, 절취 등 생존형 범죄가 만연하고 있다.

북한의 절대적인 군사우선 정책으로 최대의 특혜가 군대에 돌려지고 있지만 이 역시 일반 주민들에 비해 나올 뿐 어려움은 마찬가지이다. 폭력을 관리하는 인민무력부와 사회안전부 소속 인원들까지도 노골적으로는 불평 불만을 표시하지는 않으나, 내심 체제운영이 잘못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쿠데타 미수설, 집단 탈출설 등은 사실에 근거한 내용도 없지 않으나, 사회심리적으로는 중간관리층과 일반주민들이 현실비판과 함께 변혁을 기대하고 있다는 잠재심리의 과급이라는 측면에서 무시하기 어렵다.

그러면 북한이 체제 붕괴에 가까운 도산상태에서 어떻게 재기하려고 할 것이며, 김부자 중심의 가부장적 유사종교적 북한사회를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한국의 대북정책과 직결될 뿐 아니라 동북아 평화구도의 청사진을 설정하는 문제와도 연관성이 깊다. 다시 말하자면 현실을 바탕으로 북한이 살아남기 위해 어떠한 전략과 카드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북한지도층으로서는 생사를 걸어야 하고, 북한으로서는 체제존망을 걸어야 하는 일대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때 북한에서는 루마니아 차우세스쿠의 몰락 당시 김일성 집무실이 있는 인민문화궁전등 평양 주요 경비지역의 경비병력을 2배로 증가 배치한 바가 있고, 소련이 붕괴되고 민주화가 성공할 때는 그때까지 감시와 핍박을 받았던 남한 출신들이 일시 부러움을 받기도 한 바 있었다.

이처럼 위기의식에 사로잡힌 북한 지도층에서 북한의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 취할 행동과 전략은 과연 어떤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일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입장에서 추론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이 갖고 있는 카드나 영향력으로 살펴보면 현재 북한이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는 '군사력' 밖에 없다.

반세기 가까이 주민들의 의식주 생활을 희생시켜 가며 양성한 군비가 계속 감가상각되어 가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북한 지도층은 군사력을 통해 외교, 경제 등 여타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모색하려는 구상을 갖을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생존전략이 NPT 탈퇴, DMZ 의무포기 선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군사력을 통한 벼랑 끝 전술이 직접적 대남 위협이라면 한국사회 배후에서 친북여론 형성 및 친북 정책이 채택되도록 유도하는 것은 보다 경제되는 간접적인 대남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IV. 대남전략의 성격변화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기 전 북한의 대남 전략은 한국적화에 초점을 맞추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대남전략은 적화기도에 앞서 한국으로부터의 흡수통일 회피 및 체제유지 우선의 생존전략에 치중하고 있는 인상을 배제할 수 없다.

노동당 창당 이래 단 한번도 정권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50여년 동안 계속 축적해온 남한 정보·자료와 대남 인맥, 친북 그룹을 총동원하여 북한의 체제 생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

용코자 하는 것은 사활을 앞두고 있는 북한체제의 성격으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가급적 당국자간의 대화는 기피하고 기업인 또는 반체제 인사들의 접촉으로 실리만 취하고 한국사회를 교란시키고자 할 뿐 아니라 노동자와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선동하여 왔다.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거부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용어혼란 전술의 일환으로 「혁명」이란 용어를 「변혁」으로 대체하고 포섭시에도 「대남사업」 대신 「정치사업」을 하자고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접근하며 친북활동으로 연계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해방이후 북한이 일관되게 추진해온 대남전략의 기본목표는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통한 전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며, 실천방안으로 「3대혁명역량강화」가 있다. 이에 4대 군사노선 관철, 군수물자 비축 등을 통한 「북조선혁명역량 강화」, 한국내 반정부 통일전선 구축, 안보우선의 보수진영 등 반혁명세력 제압과 지하당 조직 확대를 통한 「남조선혁명역량 강화」, 그리고 제3세계 지지 유도 및 한국 고립을 통한 「국제적 혁명역량 강화」로 구분된다.

북한은 그중 「남조선 혁명역량 강화」를 위해 3개의 주목표를 설정해 두고 있는 바, 첫째가 주한미군 철수, 둘째가 친북혁명세력 확대, 셋째가 용공정부 수립이다.

즉, 북한은 한국사회의 상층부인 지도층 및 여론주도층에 용공세력을 침투시키고 하층부인 청년학생, 노동자, 일반 주민을 반체제 친북의식으로 오염시키며 안보를 지원해 주는 주한미군은 철수하도록 여론과 분위기를 형성해 나감으로써 인민정권을 수립하여 중국에는 연방제 형식으로

평양정권과 합작통일시킨다는 투쟁과정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70년대까지 군사력에 기초한 대·소도 발등 적화전략이 한국의 강력한 반공태세에 효과가 없게 되자 80년대에는 심리전 및 조직적 공세 위주의 간접침략 방식으로 전환하여 2:1의 대남우위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및 정치 사상적 공세를 집중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2:1 대남우위역량은 「북한자체세력 1, 한국내 북한지지세력 1」이 확보되면, 「한국내 한국지지세력 1」을 능가하므로 총선거에도 대비함은 물론, 약체정부가 수립될 시 본격적으로 좌익세력으로 하여금 우익을 축출하고 좌경·용공정부를 수립시켜 적화통일 전단계 수준으로 이끌어 간다는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90년대에 접어들면서 비동맹권의 활동이 위축되고 동구 사회주의권이 붕괴되자 국제적 혁명역량이 대폭 상실된 북한으로서는 남조선혁명역량 강화에 더욱 비중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 결과 한국에서는 사회주의 관련 서적들까지 오히려 범람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북한이 방어차원에서 한국의 북한 흡수통일역량을 깨뜨리기 위한 이유도 있으나, 한국의 경제역량을 흡입하여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생존 차원의 전략도 내재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의 대남전략이 적화전략이었다면 현재는 생존전략에 무게가 실리고 있으나, 북한의 결사적인 생존전략 전개에 오히려 한국의 생존이 위협을 느끼는 상태에 도달할 가능성도 없지 않기 때문에 한국사회가 건강하지 못한다면 북한의 생존전략은 적화전략에 못지 않는 위험성을 안

겨줄 수도 있는 것이다.

V. 평가 및 전망

북한정권은 지금까지 노동당 규약에 나타난 당의 당면 목적에 따라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및 기본적인 삶의 질을 외면하고 계속 군사력과 대남 역량 강화에 치중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주적이었던 소련이 해체되고 동·서 냉전구조가 붕괴됨에 따라 북한이 건설한 군사력은 한반도에서 대남용으로는 아직 효용 가치가 높으나 국제적으로는 존재 가치가 급락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국제사회 질서형성의 축이 이데올로기에서 경제와 과학·기술역량 대결 결과에 따라 전이되고 있어 경제전 승자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이 시기에서 북한의 가용역량중 경쟁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분야는 군사분야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 이와함께 한국으로서 결코 소홀히 여길 수 없는 문제가 북한이 해방이후 50여년을 일관성 있게 투자해온 대남사업 분야이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군사력을 카드로 하여 외교와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한반도 내에서는 대남역량을 총동원하여 흡수통일방어 및 생존문제 해결을 동시에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북한이 생존하기 위해 어떻게 휴전선 북측에서 군사력을 위협수단으로 하고 한국내부에서는 어떠한 양태로 대남전략을 추진할 것인지 초미의 관심사이자 국가 중대사이나,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는 사례는 있겠지만 전통적 빨치산식 약탈문화에 가까운 행동양식으로는 결코 효과가 장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좌경세력 연방제 통일논리의 부당성

—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중심으로 —

공군 기무부대 자료제공

좌경세력들의 통일논리는 북한이 고려연방제 통일목표 달성을 위해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보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협정 체결·공산주의활동 합법화·민주인사 석방·민주정권 수립 등 많은 주장을 여과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북한의 대변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을 지속 전개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국보법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좌경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 통일의 대상이며 동족인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여 통일에로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어디에도 북한만을 지칭하여 '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으며, 형법상 「외환의 죄」에 있어서 우리와 군사상 적대관계 있는 국가를 '적국'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반면, 북한은 형법 제47조(조국반역죄)에서 "공화국 공민이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고 다른

나라 또는 '적'의 편으로 도망치거나 적을 도와주는 것같은 조국반역행위..."라고 하여 사실상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송 등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수시로 우리정부를 '적'으로 지칭하면서 타도해야할 대상이라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또한 학원가 좌경세력들도 무분별한 폭력시위에 대응하여 정당한 법집행을 수행하는 정부와 공권력에 대해 수시로 "적들의 탄압..." 운운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이들이 대한민국을 '적'으로 삼는 집단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을 뿐, 국보법이 동족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 「한총련」이 정부를 '적'으로 지칭한 사례
 "90년대 연방제 통일조국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을 적들의 살인적인 탄압에 맞서 힘차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96.8.10.밀입북 「한총련」 대표 류세홍·도종

화 기자 회견에서)

“적들의 모진 탄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종전의 여학우 남학우가 같은 소대에 편성되었던 것을 따로 다시 소대와 소조를 편성하였습니다.”

(’96.8.11. 통일선봉대 소식 ‘여기는 연대입니다’ PC통신문 중)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통일논의의 장애물이 되고 있고, 국보법 적용에 이중적 시각을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좌경세력들은 북한도 국제적 냉전체제 해소와 UN 동시가입으로 하나의 주권국가로 등장하였고, 남북합의서 채택 등 국내외 정세가 변화했음에도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통일 장애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남북한이 UN에 함께 가입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각각 주권국가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았다고 할 수 있겠으나, UN가입만으로 가맹국간의 국가승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실례로 UN공동회원국인 이스라엘과 아랍제국, 통일전 동·서독 등도 상호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은 경우이다.

또한 「남북합의서」도 남북 상호간 실체를 인정하는 전제로 출발한 것이기는 하나, 쌍방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민족내부 특수관계”(합의서 전문)에서 체결한 약정으로서, 북한을 국가로 승인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 좌경세력들은 남북합의서 이행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비

준, 그 실천을 위한 준비를 마쳤음에도 우리 정부가 국회비준 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므로 그 불이행 책임이 우리 정부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남북합의서는 국가간의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비준이 필요 없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남북합의서상 상호 실체를 인정하는 것은 조국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민족내부의 문제일뿐 자유민주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북한 접촉의 경우에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90.8. 제정)에 의거, 합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남북교류는 인정하고 불법적인 반국가적 행위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처벌토록 함으로써 이같은 이원적 현실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북한은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등 대남 적화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북한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상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한 반국가단체”로 대처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실적 조치이다.

따라서 북한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외국집단도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한다면 당연히 반국가단체로서 우리의 국가보안법 적용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좌경세력들은 과거 정주영이나 박철언의 입북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문익환·임수경을 처벌한 것은 국보법의 자의성·이중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형벌은 발생한 결과뿐 아니라 행위의 목적도 중시되어야 하며, 일정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있었는가의 여부가 국가보안법 적용의 기준이 되어야 함은 당연한 이치인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좌경세력들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사상·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치사회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경제적으로는 사유재산제를 골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국가의 기본이념으로 채택하는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특정인이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처벌하지는 않는다.

다만 국가의 기본이념과 다른 사상을 구체화시킬 목적으로 외부에 표현하거나 타인을 선동하는 경우는, 곧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가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조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국민의 내면적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까지 규제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우리체제를 부정하는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더라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이를 외부에 표출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주체사상을 표현했을 경우에도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일 경우에는 반국가 활동이 아닌 이상 국가보안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보장된 사상·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된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좌경세력들은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국가변란”, “찬양·고무·동조”, “기타의 방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등의 표현이 애매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유추·확대해석이 가능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이 일정한 범죄행위에 대해 혐의가 인정되어 적법한 신문절차를 거치고 증거를 확보한 후 유죄입증이 충분할 경우에 한해서 처벌코자 하고 있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 처벌코자 하는가 아닌가의 여부는 사법부가 수사기록과 제출 증거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사회에서 국가보안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률이 인간의 정형적이고 구체적인 의사·행위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형사사법제도로써 3심 제도·증거재판주의 등을 채택하는 등 범집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과 같이 '형법'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좌경세력들은 북한이 '92.4. 헌법을 개정, “전국적 범위에서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 통일을 실현한다”는 조항(제9조)을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



▲ 범민족 대회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 장면

한다"라고 변경하여 사실상 남한적화전략 방침에서 후퇴하였으므로 우리도 이에 상응하게 국보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헌법이 최상위 규범으로서 모든 것을 지배·규율하는 자유민주체제의 법규범과는 달리, 전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전체주의적 지배체제이며 노동당 일당 유일체제로서, '노동당 규약'이 사실상 헌법뿐 아니라 다른 어떤 법률보다도 상위규범으로서 존재하고 있다.

* 북한 헌법 제1조와 4조에는 각각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 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창조적으로 적용한 조선 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활동의 지도적 지침으로 삼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당의 결정과 규약이 헌법에 우선

하는 상위 규범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80.10. 노동당 제6차대회에서 일부 개정,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당 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주의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라고 명시하여 분명히 대남적화혁명 전략이 불변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의 형법(제3장 「반국가범죄」, 제44조-55조)은 "공화국 전복기도죄"(44조) "반국가행위 선전·선동죄"(46조) "조국반역죄"(47조) "민족반역죄"(52조) 등 모든 형태의 '반혁명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추상적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반국가범죄」에 대해서는 사형과 전 재산 몰수라는 중형으로 처벌할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없기 때문에(제42조)

당이나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얼마든지, 죽을 때 까지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우리의 국가보안법과는 비교도 안 될만큼 포괄적이며 가혹한 반민주적·반인권적 법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채 단순히 법률체계로서만 비교하여,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형법으로 대체하라는 주장은 억지논리에 불과하다.

'불고지죄'가 비윤리적이며 침묵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좌경세력들은 불고지죄가 개인의 내면적 의사를 강요받음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불고지죄는 특정인의 사상이나 내면적 윤리관을 고지토록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자신이 알게된 단순한 객관적 사실을 고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법상에서도 반사회적 범죄인을 처벌함에 있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증인신문제도를 두어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과 같은 취지일 것이다.

더구나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는 "자유민

주체제를 전복시키려는 반국가적인 범죄"에 대해 공동 대처코저하는 최소한의 국민적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 볼 때, 결코 내면적 양심의 자유 또는 침묵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독일·프랑스·영국 등에서도 "반역, 내란, 간첩"에 대한 불고지죄를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좌경세력들의 "국보법 철폐운동"이 진정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동이라면 우리의 법과 제도만을 타할 것이 아니라, 사상 유례 없는 북한체제의 모순과 우리의 국가보안법과는 비교조차 안될만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추해석 및 소급효를 금지한 근대형법의 기본원칙까지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형법 등 법률에 대하여도 비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북한 형법(제54-55조)에서도 "반국가범죄에 대한 은닉 및 불신고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고, 공소시효도 없음.

그렇기 전에는 좌경세력들의 이같은 주장이 우리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북한의 통일투쟁에 앞장서기 위한 투쟁공간 확보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려한다는 국민들의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등권**

전학기 안보환경에 따른 장병정신무장 강화 방안

박 승 만

대위/제17전투비행단 정훈실



I. 서론

세계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그 변화의 다양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 안보환경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시 해야 할 생명줄과도 같은 것이다.

동북아를 둘러싼 우리의 안보환경은 2차대전 이후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과거 미소간의 냉전이 구소련의 몰락으로 해체되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축으로 하는 양극체제에서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의 부상으로 이제는 다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세계적인 변화의 틈바구니에서—이념의 대결에서 경제의 대결로 옮겨진—우리 군은 과연 어떻게 자리매김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북한의 동향과 국민들의 안보의식, 특히 신세대들의 의식을 중심으로 '97년도를 맞는 안보환경을 분석해 본 후, 안보상황 변화에 따르는 우리 공

군의 장병 정신무장 강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II. '97년 안보환경

여기에서는 북한의 '97년 정치상황과 국내사정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북한의 '97년 정치상황

우리의 안보환경은 북한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므로, '97년을 맞이하는 북한이 처한 상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일의 권력승계 가능성을 살펴보면 현재 북한의 공식적인 국가원수인 주석과 노동당총비서의 자리는 비어있다. 김일성 사망후 후계자인 김정일이 그 자리를 공식적으로 계승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북한은 유신통치체제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올해 7월이 되면 김정일이 공식적인 국가원수로 등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김정일

에 대항할 만한 세력이 눈에 드러나지 않고, 장기간에 걸친 후계자 '학습'으로 김정일의 지배력이 공고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올해 7월은 김일성 3년상이 끝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 때를 즈음하여 공식적인 권력 승계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북한의 대남정책은 통미봉남(痛美封南)을 기조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한편,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한국 배제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선거를 이용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측된다.

셋째, 북한은 사상무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김경호씨 일가족의 귀순을 계기로 사회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은 특히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을 이어가는 한편, 김정일 통치시대를 예고하는 「붉은기 사상」을 들고 나와 주민통제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붉은기 사상」은 김정일 통치시대의 공식이념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예측을 토대로 볼 때, 점차 이완 되어가는 북한의 사회통제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사상무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넷째, 신년사에서 밝힌듯이 작년 북한은 고난의 한 해였다. 특히 '90년 이후 연 4.5%의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은 널리 알려진 바대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작년에는 2년 연속 수해로 인해 주민의 대부분이 굶주림과의 전쟁을 하고 있다. 또한 식량난뿐만 아니라 에너지와 원료의 부족으로 공장가동률이 30%에 도 미치지 못할 만큼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올해 신년사에서 먹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이례적인 강조를 둔 것도 이와 같은 경제상황에 대한 위기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전통적인 경제정책인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 고수할 것을 명확히 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난국에 처해있는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으로 침체된 경제가 회복되리라는 예상은 하기 어렵다. 사회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는, 경제를 비롯한 사회 총체적인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북한이 처한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이다.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개혁과 개방을 하지 않을 수 없으나, 개혁과 개방은 곧 지금까지 북한을 이끌어 왔던 사상에 대하여 근본적인 변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북한이 처한 딜레마인 것이다.

다섯째, 체제 불안요인 점증을 들 수 있다. 김정일의 전치와 외교관 등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일가족 16명이 탈북에 성공하는 등 북한의 체제를 벗어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데, '97년에 이같은 상황이 중단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식량난 등을 비롯한 경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탈북과 같은 사태가 연속되리라고 전망된다. 최근 북한 사회에서 점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사회 심리적으로 그만큼 불안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더욱 주민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외부적인 억압이 북한이라는 사회체제를 유지하는데 어떻게 작용할지는 앞으로 주목해 볼만하다.

2. 국내사정

안보환경을 논하는데 있어 국내 사정이 중요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안보환경은 주변 4강과 북한의 정세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흔히 안보 문제를 논하는데 있어서 저지르는 실수는 이러한 국내적인 요인을 간과한다는 점이다.

안보라는 것은 국가를 안전하게 보위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중요한 국가이익을 실제로 수행하는 것은 정치 사회적인 영향을 크게 받기 마련이다. 더구나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이며 북한의 국내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극단적인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안보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내적인 요인은 정치적 안정, 경제적 번영, 국민통합의 수준 등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이 안보관 및 소위 신세대 장병들의 의식 수준이다.

첫째, '안보 불감증'에 걸린 국민의 안보관 문제이다. 국민들의 '우리의 안보현실이 심각하다'라는 말을 믿지 않거나 심지어는 외면하는 현상을 말한다.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고 군사적인 위협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서 왜 이러한 현상이 야기되었을까? 가장 큰 원인은 과거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정치적으로 민주화되지 못했던 정권이 정당성에 대한 위기가 야기될 때마다, 단골손님으로 이용했던 것이 바로 국가안보였고 따라서 이제 안보카드를 국민들에게 호소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제 과거 정권의 안보카드 사용으로 인해 현 정권이 아무리 안보상황에 대하여 구구절절이 설명하더라도 설득력이 없어지는 아이러니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안보상황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안보불감증으로 인해 실제의 안보현실보다 국민이 인식하는 안보현실이, 즉 체감 안보상황이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이 실제의 안보상황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공동체 의식의 희석화이다. 전쟁이라는 것이 총력전의 형태를 띤다고 할 때에, 평시에 국민통합의 수준은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 일각의 이같은 안보불감증은 국가안보에도 커다란 부정적인 요인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 전반적으로 안보불감증이 만연되고 있는 현상은 신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쳐, 이들이 군복을 입게 될 때의 안보관은 사회에서의 안보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필자의 경험을 토대로 볼 때 전입신병들의 군 및 안보에 대한 인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저 의무이니까 어쩔 수 없이 군복을 입고 2년 반 동안 '때우고' 나가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따라서 군대의 존재이유나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자연히 이들의 주요 관심은 향후 진로의 문제에 집중되기 마련이다. 이런 현상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에 앞서 먼저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여야만 올바른 대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정신무장 강화 방안

여기에서는 정신무장을 '정신전력을 갖추고 있는 상태'로 정의한다면 정신무장의 강화는 정신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므로, 때문에 여기서는 정신교육의 방향과 방법론으로 나누어 검토하기로 한다.

1. 정신교육의 방향

장병들에게 있어 바람직한 정신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본다면, 다음 몇가지 방향으로 지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첫째, 조직생활 교육을 강조해야 하겠다.

약간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군대에서의 정신교육은 조직의 운영 메커니즘과, 그 안에서 각 개인들이 담당하는 역할에 대하여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고전적인 격언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것이 유형화된 것이 바로 사회조직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군대라는 조직 역시 다른 여러가지 사회조직중 하나이다.

그런데 사회의 조직화라는 보편성과 개별적인 사회집단의 존재라는 특수성을 정신교육과 관련하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다시 말해 군대라는 조직이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모여 살면서 필요에 의해 만든 집단 중에 하나라면 인간에 의한 조직화라는 보편성을 띠게 되는데, 조직의 목표나 운영원리는 다른 조직과는 판이한 측면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러한 측면은 정신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여기서 필자가 주장하려는 바는 조직일반의 운영원리와 매커니즘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군대 내에서 요구되는 행동양식의 정당성을 자연



▲ 해군 전함을 순시하고 있는 김정일. 군을 어떻게 장악하는가가 김정일정권의 안정과 미래의 관건이다.

스럽게 체득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이러한 과정이 무시되고 군대 내에서의 특수한 행동양식, 즉 경례라든가 상명하복과 같은 운영원리만을 먼저 주입하려고 한다면 자기 주장이 강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신세대 장병에게 호소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군대내의 특수한 행동양식을 주입시키기 보다는, 조직의 원리라는 보편성을 기초로 군대에서 요구되는 것을 도출하는 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일 것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작업장, 또는 대대별, 나아가서는 비행단, 더 포괄적으로는 공군과 국군에 대한 애착심을 고취하고 이것이 단결을 도모하는 기제로 작용하리라 생각된다.

둘째, 이념교육 강화이다.

정훈교육의 본질적이고 고유한 부분이 바로 이념교육일 것이다. 이 부분이 바로 장병들로 하여금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신념화하는

교육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이념교육을 담당해 본 교관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교육대상자인 장병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장병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부족하다라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장병들의 의식상태는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또는 민주주의나 비민주주의나 하는 '형이상학적'으로 들리는 말 자체에 관심이 없다는 것 뿐이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두 이념으로 전 세계가 갈라졌던 시대로부터 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의 몰락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태에 의해 이념대결의 시대는 지나가고, 실로 경제제일주의가 전세계를 규정하는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됨으로써 이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어찌하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여전히 한반도의 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념교육에 대한 무관심 내지 회피는 경계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념교육을 실질화할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용어의 사용 자체를 좀 더 부드럽게 할 필요가 있겠다. '정신교육'이라는 용어에 대하여 장병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먼저 지루함과 딱딱함일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이념부분에 오면 두드러진다. 앞서 말한 민주주의, 비민주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등의 용어는 이념교육에 필수적으로 등장하게 마련이지만 실제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할 경우, 교육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다. 여기서 필자가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장병들에

게 호소할 수 있는 부드러운 것으로 대체할 만한 용어를 고안해 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대정신교육원'을 17비의 경우 '천성 삶 터'로 변경하는 등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교관들의 이념교육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에만 이념이라는 '딱딱한' 용어를 현실생활로 접목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렵게만 느껴지는 이념교육을 현실감 있게 설득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신념화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통일안보 교육 강화를 들 수 있다.

21세기를 불과 3년을 앞에 둔 우리 민족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민족의 통일이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흔치 않을 것이다. 한민족의 역사를 일별해 보면 남과 북이 분단된 기간은 5천년 역사 중에서 불과 50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필자의 교육경험을 통해 볼 때, 소위 신세대 장병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서서히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성세대들이 통일은 되어야 한다는 어찌 보면 '맹목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음에 반해, 신세대 장병들은 통일에 대하여 '합리적인' 불필요성을 말하기도 한다. 물론 이런 경향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로 자리잡게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관 스스로 통일에 대하여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얼마나 인식을 하고 있는가이다. 만일 교관부터 통일이 왜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교육대상자에게 설득력 있는 통일교육은 기대하기 힘들 것이다.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또 한가지 지적되어야

할 것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다. 통일의 동반자로서 인식되는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면 통일에 대한 논의는 공허하게 될 것이다.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국방부에서 명확한 규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국방부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 일반적인 의미로는 '북한'이라는 용어를 쓰고, 정치 이념적으로 북한의 핵심세력은 반드시 타도해야 할 적이라고 규정하며, 일반주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구별하고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보교육의 핵심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에 대량 탈북현상이 연이어져 북한 붕괴론이 점점 표면에 부상하고 있다. 혹자는 3년 내지 7년 이내에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얼마전 민족통일 연구원은 북한의 내구력 보고서를 내면서 북한의 위기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런가 하면 김정일의 권력 장악이 튼튼하게 다져져 있기 때문에 북한의 붕괴론은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북한의 미래에 대하여 선부른 판단은 금물이겠지만, 북한붕괴론이 대두될 정도로 현재 북한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럴 경우에 우리 군의 정신교육은 통일에 대비한 내용이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북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전제로 한 뒤, 통일의 당위성, 남과 북의 통일 정책, 통일 후 국가의 미래상 등 통일과 관련된 무수한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상세한 교육을 실시할 절실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앞서 조직의 문제를 논할 때 간접적으로

언급했지만 군대와 사회 사이에 이분법적인 구분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군대는 사회로부터 인적 자원을 공급받아 일정기간을 복무하게 하고 다시 사회로 배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보면 군대는 비록 그 내용과 형식이 다를 수는 있으나 사회교육의 연장선에서 파악된다. 이렇게 군대교육을 사회교육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경우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윤리교육, 올바른 시민문화 교육이다.

교육 대상자 대부분은 다시 사회로 나아가 저마다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수행해 나갈 존재다. 더구나 공군의 경우에는 대학재학 이상 학력소지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이들이 제대후 사회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된다.

이런 관점에서 장병들의 시민문화 교육은 앞으로 군대교육이 지향해야 할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 신세대 장병에게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바로 공동체의식이다. 사회가 다원화, 분권화 되어감에 따라 입대전에 이미 희박해져 간 공동체의식은 사회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덕목이다. 만일 개인이기주의, 가족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를 체화하고, 입대한 장병이 군대에서 개인이기주의, 부서이기주의를 극복하는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시는 공동체의식을 심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말 것이다.

공동체 의식을 내면화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정신전력 상의 효과는, 바로 단결을 극대화하는 것임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2. 정신교육 방법

여기서는 기존의 교육방법을 강화하는 것과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나누어 제안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의 방법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신교육의 날 운영 내실화

교관 자질 향상

대대에서 실질적이 교육 담당관인 정훈지도장교에 대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훈지도장교에 대하여 월간 정신교육의 날 운영에 대한 정확한 지침과 교육내용, 그리고 강의기법 등을 수시로 전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훈지도장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우수입상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하는 방법도 동기를 유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대장의 관심 제고

대대의 운영은 대대장의 의도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지휘관이 정신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자체로 해당 대대의 정신교육은 성공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대대장소집 교육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는데, 이런 교육의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장 여건 개선

교육의 객관적인 조건 중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 바로 교육장의 여건 개선이다. 교육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면, 아무리 훌륭한 교관과 교재가 있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노후되거나 사용 불가능

한 시설이 있다면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시설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2) 부대 정신교육원 운영 내실화

부대 정신교육원 운영에 있어서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프로그램의 지속적 개발 및 적용이다. 현재 17비에서 운영하는 체험적 인성교육 프로그램은 입과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몇몇 교육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역시 프로그램이 고정되어 있어 한 사람이 두 번 받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난 '95년에 19비에서 있었던 정훈장교 소집 교육을 통하여 전 비행단에 파급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들 대부분이 전역을 했거나, 혹은 전역을 앞둔 시점에서 새로이 교관을 소집하여 새롭게 보강된 프로그램 하에서 재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인성교육에 치우쳐 있는 정신교육원 프로그램 중에서 안보이념 교육을 강화하여 장병들에게 안보의식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3) 일일정신교육 활성화

올해 정훈활동 지침 중에 새로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일일정신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각 대대나 중대 또는 작업장별로 지금 까지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던 것들이다. 즉 정신교육의 날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각 사무실별로 매일 아침 시간을 쪼개어 교육하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대부분의 경우

오늘의 작업이나 상부지시사항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같은 교육이 단 5분이라도 지속적으로 실시된다면 부대내 정신교육의 붐을 조성하는데 일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일종의 생활교육으로서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된다.

둘째, 정신교육 강화와 관련해 새로운 제안들에 관해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사안보 교육자료 자체제작 지원

교육에 교안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방부나 본부에서 하달되는 간행물 및 교육자료는 시의성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 이는 제작과 전달 간의 시간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서 월별로 하달되는 자료의 경우에 더욱 심한데, 예를 들어 김경호씨 일가족이 김포공항에 도착한 날짜가 '96년 12월 9일였는데, 이에 대한 교안은 1월 3일에 하달되었다. 따라서 일일교육 내지 격주간 실시하는 정신교육의 날에 교안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시의성에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각 비행단 정훈실에서 주 1회 자체적으로 교안을 작성, 예하 대대로 하달함으로써 시사안보교육의 시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17비에서 작년 12월부터 시사안보 교육 자료를 자체 제작, 매주 수요일에 하달함으로써 대대장 및 교관들에게 생생한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안 제작에 소요되는 것은 아침 출근 후 신문 스크랩 30분과 이를 중점별로 나누어 정리하고 해설을 곁들이는데 주 4시간 정도이어서 시간적으로 그리 큰 부담도 되지 않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2) 비행단 집체교육

현실적으로 대대 교관들의 교육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받아들일 때, 정훈실 주관으로 비행단 전 장병을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17비의 경우에는 작년 전문가 초청 강연회의 형식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강연회 전후에 강연의 의의 및 부연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정훈실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정신교육의 딱딱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므로 장병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벤트 형식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시사안보교육과 게임 형식을 동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지난주 시사안보 교육 자료 중에서 문제를 작성하여 그 자리에서 정답자에게 포상을 수여한다든가, 부대내 문화활동 동아리를 동원하여 축제분위기를 낸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장병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토론 활성화

신세대 장병들의 특징 중 하나가 자기주장이 강하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을 십분 활용한다면 토론식 교육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토론의 장이 마련될 시간적·공간적 여유가 주어지지 않다는 것이고, 설령 기회가 주어진다 할 경우에도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전자는 객관적인 조건의 문제로서 각 대대를 비롯한 교육단위의 문제라 치더라도, 후자의 문

제는 분위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허심탄회한 분위기만 조성되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고, 논박이 오간다는 것은, 필자의 부대정신교육원 운영경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하루 온 종일 같이 근무하면서 군대의 위계질서에 익숙한 장병들이, 직속상관이 입회한 가운데 자신의 견해를 숨김없이 발표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무리일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토론을 주관하는 교관이 열린 분위기로 유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다면 그 공간은 매일매일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보다는 일과 후 내무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가령 대대 정훈지도장교가 당직근무시 일정시간을 대화의 시간으로 할애하여, 일정한 주제를 놓고 토론의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4) 정훈장교 전문화 교육의 필요성

현재까지 정훈교육은 정훈장교의 개인별 교육 능력에 좌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국군정신교육원, 공군 정신교육원 입과교육이 있지만 이는 전 장병 대상이라서 특별히 정훈장교의 교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지는 못했다.

그래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19비에서 일괄 교육시켜 각 비행단에서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듯이, 예를 들어 정신교육원 내에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위원회-사회의 교육개발원의 일종-를 설치해 정훈장교의 교육능력 향상과, 교육기법, 및 수명이 다해 가는 인성교육프로그

램을 대체할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V. 결 론

지금까지 필는 '97년도를 중심으로 안보환경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정신교육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논해보았다.

이를 통해 정신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교육방향과 방법에 있어 보다 진전된 교육을 위해 하나의 제안으로 받아들여지고 또다 른 논의를 불러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비행단 집체교육의 경우 처음부터 장병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 골몰하다가는 실행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같은 교육이 자주-월1회 정도-이루어지다 보면은, 자연히 방법상의 문제는 경험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정신교육원 운영에 있어서도 기존의 프로그램이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시의에 맞는 교육과정을 첨가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정훈실 주관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유일한 교육프로그램인 만큼 각 비행단과의 유기적인 교류를 통해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계속 모아, 새로운 아이টে으로 신세대 장병에 맞는 정신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참모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 정신교육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중문**

공 / 군 / 논 / 단



- 미래전 양상과 공군력 정비 방향
- 21세기 정보공격과 방어 개관
- 컴퓨터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 한국의 통일여건 분석과 통일방안

미래전 양상과 공군력 정비 방향

배 창 식

대령/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



I. 서언

현대사회의 특징을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용어를 든다면 “정보화 사회”라 할 수 있으며, 군사적인 측면에서 미래전의 양상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단연 “정보전”, “첨단과학무기전”이라는 용어가 될 것이다.

표준화, 공업화, 대량생산체계, 산업문명이 주를 이루었던 “산업화 사회”와는 달리, 정보화 사회로 대변되는 현대에는 전자공학, 컴퓨터 산업, 우주 산업 등 첨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경쟁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게 “정보”가 교환됨으로써, 인간의 상상력이 곧 현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되었다.

즉, 빠른 정보의 교환은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을 촉진하였고,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군사분야에도 빠르게 전파되어 다양한 무기체계를 초정밀화 시키거나 현대화함으로써 군사·기술혁명

(MTR : Military Technical Revolution)을 가져와 현대전의 특성을 크게 변화시켰다.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는 전형적인 전쟁 사례가, 1991년 1월 최첨단 무기체계들을 이용한 정밀공격으로 개전 42일만에 전쟁을 종결지었던 사막의 폭풍(Desert Storm) 작전과, 1995년 8월 보스니아내전 종식을 위해 항공력으로 적의 중심(重心 : Center of Gravity)에 대하여 ‘외과의사가 환자의 환부를 도려내듯이’ 정확히 공격함으로써, 당사자들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어 내전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핀 프리크(Pin Prick) 작전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두 가지 사례의 군사작전을 통하여 도출된 여러 가지 교훈 중에서 가장 큰 의미를 찾는다면, 현대전 수행방식을 크게 변화시켰다는 점과 이를 통하여 미래의 전쟁 양상을 예측할 수 있는 준거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무기체계의 고성능화, 정밀성의 증가에서 비롯된 결과만이



아니라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하는 요원들의 전문성과 군사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군사 교리(Military Doctrine) 및 군사술(Military Art)의 발달, 그리고 작전영역의 확대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본고에서 현대전 사례를 통해 도출한 교훈과 과학기술의 발달추세를 고려하여 미래전쟁 양상을 예측해 보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한국 공군의 전략형 공군력 정비 방향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II. 전쟁양상의 변화

전쟁은 인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영국의 포울 커언(Paul Kern) 교수는 “전쟁 양상은 사회가치와 과학기술의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변화한다”라고 하였다.

이같은 논리는 사회변화와 함께 수반되었던 전사(戰史)를 통해 자명하게 드러난다.

1964년 8월 2일, 통킹만 사건으로부터 시작되

어 12년동안 계속된 월남전에서, 미군은 800대가 넘는 항공기의 손실을 보았으나 항공력만으로 전쟁을 종결짓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 협상테이블로 상대방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제력으로서의 유일한 전력으로 인식되었으며, 군사력을 운용하는 군사술(Military Art)의 발전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967년 6월 5일, “6일 전쟁”으로 유명한 제3차 중동전에서는 이스라엘 공군의 시간적, 장소적, 기술적 기습과 일일 항공기당 7~10 쏘티라는 경이적인 출격 능력을 발휘하여 개전 첫날 3,000 쏘티의 전력을 적 공군력 파괴에 중점을 둬으로써 초기 공중우세를 확보하여 6일만에 전쟁을 종결하였다.

이 전쟁을 통하여 공군력은 전승의 결정적 요소이며, 공중공격에 노출되어 있는 지상군은 무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전쟁의 종결은 지상군의 점령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또한 바빌론 작전(오시락 원자로 파괴작전,

1981.6.7.)과 엘도라도 작전(리비아 공습작전, 1986.4.14.)을 통하여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항공력이 인식되었다.

그 후, 1991년 걸프전을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을 이용한 정밀유도무기 및 스텔스(Stealth) 무기의 운용, 인공위성을 이용한 실시간 정보의 사용으로 탈 대량파괴 및 탈 대량살상을 지향한 핀포인트(Pin Point) 공격과 소프트 킬(Soft Kill)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또한 전장(戰場)이 우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걸프전 당시 스텔스 항공기의 출격율은 총 출격횟수의 2%에 지나지 않았지만 전략목표 공격 측면에서는 전체의 40%를 차지함으로써, 주로 적의 전략적 중심에 대한 공격임무를 수행하였다. 이 전쟁을 통하여 공군이 전쟁을 주도하고, 공군력만으로 전쟁을 종결지음으로써 공군이 지·해상군을 지원하는 개념에서 전승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전력으로 인식되었다.

한편, 1995년 8월 30일 보스니아 내전 종식을 위해 내전 당사자들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제력(Compellence)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8개국에 의해 수행되었던 핀프릭(Pin-Prick) 작전은 초정밀 항법 및 공격무기체계인 GPS, LANTIRN, JSOW(Joint Stand-Off Weapon, '98년 작전배치 예정) 등 최첨단 과학무기를 사용함으로써 걸프전보다 더욱 정밀한 공격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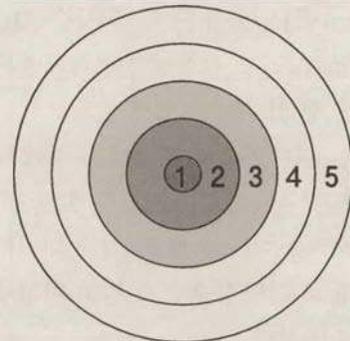
이와 같이 첨단무기체계의 발달은 화력의 고 파괴화, 장사정화, 초정밀성을 증가시켰으며, 기동력과 C³I체계의 발전을 가져옴으로써 통합적 화력운용이 가능해졌고 공중공간이 전장화(戰場化)되면서 전선(戰線)의 이동없이 전장이 형성되었으며, 또한 공간적 영역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됨으로써 일정한 전선이 없이 전 영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전투가 가능해졌다.

이상에서의 전쟁을 통하여 변화된 전쟁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 즉, 공격목표에 대한 공격방법이 크게 바뀌었다.

걸프전 당시 항공작전 계획을 직접 담당하였던 미 공군의 와든(John A. Warden III) 대령에 의하면, 모든 국가는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국가간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두뇌에 해당되는 지휘구조(Leadership)를 마비시키면 나머지 시스템은 저절로 붕괴되기 때문에 적국의 지휘구조 마비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였다.



1. Leadership : 지휘구조(C³I)
2. Essential Industry : 주요생산시설(전기,석유시설등)
3. Transportation System : 병참선
4. Population & Food Source : 도시주민 및 식량원
5. Fielded Military : 야전군

<그림 II-1> 국가 시스템별 표적

과거의 전쟁에서는 전선이 주로 지상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적국의 지휘구조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전선에 산재해 있는 적의 야전군부터

공격을 해야 했으므로,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적 ⑤번인 “야전군”부터 ④번 “도시 주민 및 식량원” → 3번 “병참선” → ②번 “주요 생산시설” → ①번 “지휘구조” 순」으로 한 단계씩 파괴해 들어감으로써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불필요한 군사력을 낭비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대전에서는 공중 및 우주를 이용한 “장거리 정밀타격력”과 “항공력”을 이용해서 곧바로 「표적 ①번 “지휘구조”에 공격이 가능해졌고, 동시에 표적 ②번 “주요 생산시설”, ③번 “병참선” 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공격이 가능해짐으로써, 불필요한 시간과 군사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탈 대량파괴를 지향하는 정밀공격과 하드 킬(Hard Kill) 보다는 소프트 킬(Soft Kill)을 지향하는 전쟁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현대전에서는 주어진 목표물에 대하여 정밀유도무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공격함으로써 민간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출된 형상물에 대한 하드 킬보다는 체계적이고 누적적 파괴가 가능한 핵심요소 위주의 소프트 킬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구 분	폭탄 소요량	정확도(CEP)
제2차세계대전	9,070발	3,300ft
한국전·베트남전	176발	400ft
걸프전(Desert Storm)	1발	10ft
미 래 전	1발	10ft이하 (All Weather)

※ 폭탄소요량은 60ft×100ft 크기의 표적에 2,000lb 폭탄으로 90% 파괴시를 가정하였음.

<그림 II-2> 정밀도 증가 추세

이와 함께 정밀 폭격도가 크게 향상되었는데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2차 대전시 하나의 표적에 대하여 9,000 여발의 폭탄 투하가 요구되었으나 걸프전에서는 단 한발의 폭탄을 이용해 목표 달성이 가능하였고, 미래전에서는 보다 더 정교한 공격을 기상에 관계없이 밤낮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전쟁이 수행되는 공간이 지상과 해상 우주에서 공중과 우주로 확대되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군사분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무기체계의 발달로 이어졌고, 무기체계의 발달은 주 전력을 공중 및 우주로 크게 확대시킴으로써 전선없는 전쟁 수행이 가능해졌고, 항공력 만으로도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상대국의 눈과 귀를 멀게함으로써 자국의 작전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전자전투”가 보편화 되었다.

이에 대한 예는 걸프전과 보스니아 내전 종결을 위한 군사작전 사례를 통해 입증되었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걸프전이 시작되기 이전에 미국 및 다국적군에 의한 “전자전”이 실시됨으로써 전자파를 이용한 이라크의 주요 시설물들을 무형지물로 만들었으며, 이라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라크 전역의 전자파를 발생하는 장비의 작동을 중단함으로써, 마치 복싱선수가 눈을 감고 싸우는 격이 되었고, 그 결과로 미국 및 다국적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전쟁을 종결지을 수 있었다.

다섯째, 상대국의 정보사용을 거부함과 동시에 자국의 자유로운 정보 사용을 보장하고, 실시간 정보를 전장에 이용함으로써 작전의 효율성

조기정보통제기(AWACS) 등을 이용하여 원하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사람에게 정확히 줌으로써 작전성공률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여섯째, 인간의 신경조직과 같은 C'I 체계의 발달로 중앙집권적인 지휘·통제와 분권적인 임무수행이 가능해졌다.

즉, 첨단화된 지휘·통제·통신·컴퓨터 및 정보(C'I)능력을 이용해서 전장에 산재해 있는 수많은 목표물을 단일 지휘관이 통합하여 선정하거나 통제하고, 일단 배당된 목표물에 대해서는 작전상황에 따라 현장의 제대 지휘관 및 임무수행 중인 전투요원 즉, 공군의 경우 임무조종사가 판단하여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작전의 융통성을 크게 신장하였다.

이처럼 전쟁형태의 변화는 사회가치와 과학기술의 발달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급진적으로 발전하여 왔다.

Ⅲ. 미래전의 양상

미래전의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의 발달 추세,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분야의 복잡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나 본고에서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 있는 전쟁형태의 변화를 바탕으로 유추해 보고자 한다.

첫째, 초기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선제기습전(先制奇襲戰)이 보편화될 것이다.

각 국가마다 미래전에 대비한 전력구조를 첨단 무기체계 중심의 기술집약형 구조로 구축함으로써 군사분야의 무기체계가 장거리 정밀유도 무기 및 초고성능 항공기 등 첨단과학무기 중심으로 정비하게 될 것이므로, 공중과 우주를 이용한 선전포고 없는 선제기습공격이 보편화될 것

이다.

둘째, 첨단과학무기를 이용한 탈대량파괴 및 초정밀공격이 보편화될 것이다.

무기체계가 보다 정밀화되고 사거리가 크게 신장되어 단기간내에 적의 전략적·작전적 중심을 다방면에서 집중적으로 동시 공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적의 전쟁수행 의지를 조기에 말살시킴은 물론 전쟁수행 잠재력을 파괴함으로써 조기에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보화시대에 부합한 전쟁이 수행될 것이다. 즉, 우군의 자유로운 정보사용을 보장하고 적의 정보 사용을 제압하는 정보전이 보편화될 것이다.

정보전(Information Warfare)이란 용어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미공군에서 1995년 7월에 발간한 「Cornerstones of Information Warfare」에 정의된 내용에 의하면, 적의 정보 및 정보기능의 사용을 거부하고 봉쇄시키고 파괴하는 반면, 적 활동에 대하여 아측의 정보 및 정보 기능의 사용을 보호하며, 우군의 군사정보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총칭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같은 측면에서 평시에 정보지배를 통하여 전쟁억제를 달성하고, 전시에는 정보지배와 정보제압을 통하여 공중우세 확보와 함께 정보우세를 획득·유지하는데 총력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은 기존의 “정보”와 “전자전”, 그리고 “C'I”를 통합하여 “정보전”이라는 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보도 지상, 해상, 공중, 우주 등의 영역과 함께 전장의 “제5영역”으로 새롭게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군사작전 영역이 우주로 확대된 우주전이 될 것이다.

군사 및 상업용 위성 발사가 일반화되면서 우주공간은 군사작전을 위한 우주병기의 활용영역으로 대두됨으로써 미래전은 인공위성을 이용하거나 우주공간 점유를 위한 우주전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우주병기 개발 및 전력화를 통한 외기권의 전장화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전은 “선제기습전”, 탈 대량파괴 및 초정밀 공격 무기를 이용한 “침단무기전”, “정보전”, “우주전”의 양상이 보편화 되리라고 본다.

이와같은 미래전에 대비하여 침단 미래군사력을 건설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보다 중요한 것은 한국적 상황에 부합된 무기체계의 독자개발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며, 이같은 측면에서 “한국방위산업학회”의 역할이 지대하다고 하겠다.

IV. 공군력 정비 방향

국방의 최우선 과제는 전쟁을 억제하고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으며, 나아가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함에 있어 군사력으로 이를 충실히 뒷받침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당면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주변 안보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에 중점을 두고, 21세기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침단무기체계 발전 추세에 부합하여 미래전 양상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력 위주의 “전략형 공군력” 개념을 논자의 입장에서 정립해 보면, 미래 안보상황에서 예상되는 “비

핵 재래전을 억제하고 억제실패시 확전을 방지함과 동시에 가장 짧은 시간내에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는 능력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힘”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정비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구체적인 대안보다는 원칙론적인 개념에 중점을 두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화 시대에 부합된 “정보전” 수행능력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군은 현대전을 주도하는 핵심전력임과 동시에 미래전을 억제하고 또한 미래전을 수행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정보”, “전자전”, “C³I”를 총 망라하는 개념의 정보전 수행능력을 구비해 나가야 한다.

정보화시대를 선도하는 과학기술의 혁명은 군사분야에도 빠르게 진행되어 군사작전에서 차지하는 정보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로 군사작전의 성격도 크게 변화하였다.

즉, 정보화시대의 전쟁을 수행하는 도구로 정보기술의 활용됨으로써 정보는 모든 군사작전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으며, 정보혁명의 가속화와 함께 이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군사개념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보는 그 자체가 강력한 무기이며 동시에 상대방의 공격표적이 되므로, 적의 정보기능을 공격하는 제반 활동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아측의 정보기능을 보호하는 활동을 총칭하여 “정보전”이라 할 수 있다.

과거의 전쟁에서는 정보에 대한 공격이 주로 간접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정보화시대에 이루어지는 전쟁은 외형상 물리적 변화없이 적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붕괴시키는 정보공격이 보편화될

지는 전쟁은 외형상 물리적 변화없이 적의 정보를 직접적으로 붕괴시키는 정보공격이 보편화될 것이며, 정보공격을 통하여 물리적 변형없이 자료나 프로그램, 관련 소프트웨어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적의 지휘·통제체제를 무력화하고 적의 전투력에 대한 공격을 통해 전투의지를 감소, 무력화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정보전에 대비한 공군력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 훈련, 무기체계, 교리 등 다방면에 걸쳐, 심도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보의 빠른 흐름을 고려하여 이에 시급히 대응해야 한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표면, 공중 및 우주를 이용한 정보수집체계와 조기 경보·통제체계를 갖추고, 효과적인 C³I체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상대방의 눈과 귀를 멀게하는 전자전 수행능력을 구축함으로써 “정보전” 수행 능력과 “정보전”에 대비한 정보능력을 신장해 나가야 한다.

둘째, 전투력의 극대화를 위해 다양한 무기체계를 통합적으로 건설하고 운용하기 위한 「체계들의 새로운 체계」를 한국적 실정에 부합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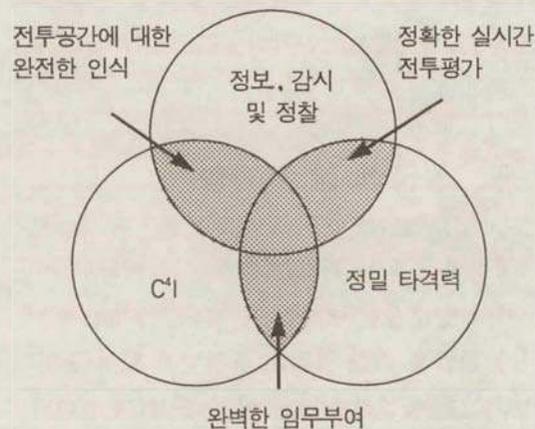
즉, “정보 감시 및 정찰”과 “C³I체계”, “정밀 타격력” 등의 요소를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복합적으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상승효과(Synergy Effect)를 극대화 해 나가야 한다.

미 합참 부의장인 해군의 오웬스(Willam A.Owens) 제독은 이러한 전력의 통합운용 개념을 <그림 IV-1>에서와 같이 「체계들의 새로운 체계(A New System of Systems)」로 정립하여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V-1>에서 표시하고 있는 “정보, 감시 및 정찰”은 전장 전체의 우군 및 연합군과 비전투요원들의 활동상태, 작전지역의 기상, 지형 및 전자기적인 특성 등을 인지하기 위하여 인공위성 및 정찰기, 공중조기경보기 등의 운용수단과 영상·신호정보체계와 원격 관측 전장탐지체계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 전천후 상시 첩보를 수집하는 체계를 말한다.

C³I체계는 첩보를 전달하는 기술과 자료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이를 처리하는 기술로 구성되는 체계로, 전장에서 수집된 첩보를 보다 정확한 정보로 전환하고 표적을 자동 인지하여 전파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자료 처리, 표적 인식, 자료 전달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그림 IV-1> 미래의 전력 운용 개념

정밀 타격력은 정밀유도무기 자체 외에도 전투력을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수단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표적 이외의 것은 파괴하지 않도록 하는 수준만큼의 정밀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으로서, “정보, 감시 및 정찰”, 첨단화된 “C³I 체계”, 정밀유도무기 중심의 “정밀 타격력”을 개별적으로 건설하기 보다는 이를 통합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확보하고, 통합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전투력의 상호 상승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 감시 및 정찰체계의 첨단화를 위해, 모든 고도에서 공중이동표적 탐지가 가능한 “공중 조기경보기·통제기(AWACS)”, 광범위한 지상 이동표적에 대한 탐지 및 지시능력을 보유한 “합동 감시·표적 공격레이다 체계(JSTARS) 등을 구축해야 하며, 영상 정보레이다와 전자광학, 적외선 장비를 장착한 “관측용 무인항공기” 등을 단계적으로 구비해 나가야 한다.

다음, C³I 체계의 첨단화를 위해서는 정보자산에 의해 수집된 영상자료를 접수, 처리, 활용, 분배하는 “합동영상처리 지원체계(JSIPS : Joint Service Imagery Processing System)”, 전투요원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필요한 시간, 장소, 방법으로 제공이 가능한 “전투요원을 위한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C³I FTW : C³I for the Warrior)체계” 등을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적 중심(Center of Gravity)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정보수집 체계와 실시간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C³I 체계를 발전시켜 “지휘통제의 일원화”로 작전성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혹자는 C³I체계를 인간의 신체와 비교해서 뇌와 중추신경, 그리고 눈과 귀로 부르기도 한다.

이에 대한 적절한 예로서 걸프전시 사령관이었던 슈와츠코프(Norman Schwarzkopf)대장은 “걸프전에서 정밀유도, 기습침투, 기동력, 그

리고 지휘·통제·통신 및 컴퓨터에 대한 미국 및 다국적군의 우위가 결정적으로 군사력을 배가시켰음이 입증되었다”라고 C³I 위력에 대해 역설한 바 있다.

끝으로 정밀타격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무기체계의 첨단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제공권 확보 및 전략목표 공격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고성능 다목적전투기(F-X)」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원거리 해양 및 항공작전능력 신장을 위해 공중급유기를 보유함으로써 전투 행동반경 및 작전지속 능력, 전투템포 등을 배가시켜 전투승수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방공작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SAM·AAA를 현대화하고, 장기적으로 대전술탄도유도탄(ATBM : Anti Tactical Ballistic Missile) 및 전역유도탄방어(TMD : Theater Missile Defense)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유사시 강제력의 수단으로써 전략적 중심(Center of Gravity)에 대하여 제한적·선별적 보복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천후 장거리 중심 타격 미사일 체계”를 구비함으로써 전투기의 역할을 보완해 주어야 한다.

이상에서 제기한 “전략형 공군력”을 단기간 내에 확보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정보의 흐름만큼이나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첨단무기체계의 구축과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군사고리”를 병행하여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등재**

21세기 정보공격과 방어 개관

— 컴퓨터 무기체계를 중심으로 —

한 성 수

중령/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1. 서언

인류는 이제 20세기를 마무리하고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20세기에서 21세기로의 변화는 1세기라는 단순한 시간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양적, 질적변화를 의미하여 특히 과학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군사전략과 전쟁양상의 변화까지도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컴퓨터, 팩스, 광통신,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정보유통 속도가 가히 혁명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들고 있다. 특히 컴퓨터의 정보전달 능력은 매 3년마다 10배로 증가하여 앞으로 10년 후면 지금의 1,000배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며, 전 세계의 인터넷 이용도 '91년도에 100만명 미만이던 것이 '95년도에는 700만명을 넘었고, 2,000년도에는 5억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를 일컬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정보화 시대”라 규정하며, 정보사회의 발전이 사회 전반의 급속한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일어날 것이며, 전쟁 양상도 크게 변화하여 소위 “스마트 전쟁” 방식이 될 것이라 한다. 이는 타격 및 정보수집 체계의 발달과 아울러 전투상황이 안방까지 실증계되는 상황으로 되기 때문에, 전쟁에서 인명 손실이 클 경우 국민이 정부를 불신할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고 깨끗이 승리”를 할 수 있는 전쟁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걸프전 이후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정보전(Information Warfare) 중 정보공격과 정보방어를 중심으로 살펴 보고자 한다. 여기서는 특히 현대 과학기술의 총체적 산물인 컴퓨터가 우리 군으로서도 매우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중심으로 한 정보공격과 방어 대책에 논의의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정보방어

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면서 이에 대비한 기본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정보전”은 아직까지 그 정의나 범위 등에서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보전”이 미래전 예측에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공군에서 이미 정보전 전대를 신설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여러 국가와 일본 등에서도 정보공격과 방어에 상당한 연구진척이 있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뒷받침 해주고 있다.

2. 정보공격

광의의 정보공격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적의 정보기능을 공격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적의 정보기능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정보공격에는,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수단에 의한 정보공격(간접적인 정보전)과 앞으로 관심 갖고자 하는 새로운 개념에서의 정보공격(직접적인 정보전)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정보공격을 “정보전”에서는 간접적인 정보전(Indirect Information Warfare)이라 하는데, 이는 어떠한 현상 창출을 통해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적은 그 현상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그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간접 정보전의 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군사기만의 목표는 적으로 하여금 부정확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기만을 적이 관찰하도록 현상을 만들어 내게 된다. 그러나 기만의 성공여부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좌우된다. 즉, 아군이 만들어 낸 현상을 적이 관찰해야 하고, 관찰현상을 자료

로 입력하고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만 하는 것이다.

군사기만을 사용하는 목적은 적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없는 전투비행단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작전에 유리한 허위 정보에 따라 행동하게 하는 것이다. 군사기만을 사용할 경우 우리는 모의 활주로 및 주기장을 건설할 수 있으며, 적이 확신할 수 있도록 여타 여러 가지 활동을 꾸며낼 수 있다. 적으로 하여금 아측의 모의 전투작전을 관찰하게 하고 그것을 사실로 해석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그것은 우리가 적으로 하여금 보유하게 하고자 하는 허위정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간접 정보전이다.

이에 비하여 본고에서 관심 갖고자 하는 정보공격을 “정보전”내에서는 직접적인 정보전(Direct Information Warfare)이라 한다. 이는 적의 인지능력 또는 해석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적의 정보 구성요소를 변경시킴으로써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로써 직접적인 정보전은 적의 정보수집, 분석 또는 결정 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적의 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직접 정보전은 정보공격을 실시하여 우리가 전투비행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적이 정보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간접 정보전과 결과는 똑같으나 수단은 전혀 다르다. 정보전에서 주요 관심사는 물론 이와 같은 직접 정보전이다. 적이 갖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하드웨어적인 공격이 아닌 소프트웨어적인 공격을 가하여, 적의 정보사용을 거부 또는 무력화 하자는 것이 새로운 개념의 정보공격이다.

이러한 개념을 좀더 설명하자면 적이 갖고 있는 표적정보 화일을 공격하여 수록 내용을 지워

버린다거나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이를 테면 위치좌표 오차를 유발시킬 수도 있으며, 혹은 적의 정보 시스템을 공격하여 시스템 운용을 무력화 시키는 것 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기서 대표적인 직접 정보전의 한 분야로 최근 관심을 끌고 있는 컴퓨터 무기 체계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 컴퓨터 바이러스(Virus) : 작은 프로그램 코드로써 자신을 다른 프로그램에 복제시켜 대상 프로그램을 변형 시키는 것
- 컴퓨터 벌레(Worms) : 네트워크를 통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자신을 완벽하게 복사할 수 있는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바이러스와 유사하나, 바이러스와 다른 점은 다른 프로그램을 변형시키지 않고 일정 용량만을 차지하여 일종의 과부하 상태를 일으켜 네트워크를 마비시키는 것
- 트로이 목마(Trojan Horse) : 프로그램 내부에 숨겨져 있는 프로그램 코드 조각으로써 위장된 기능을 수행 하는 것
- 논리폭탄(Logic Bomb) : 트로이 목마의 한 형태로 통상 시스템 개발자나 프로그래머가 심어 놓아, 개발자나 프로그래머가 필요할 때 특정 기능을 발취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전자전 개념과 유사한 전자적 제밍, 전자파 무기 등이 있고,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것으로 상대국 TV 화면을 조작하여 아국에 유리하도록 방송을 하는 것과 같은 비디오 모핑(Video Morphing) 등도 정보전의 하나로 분류되고 있다.(혹자는 이러한 분야를 기존의

전자전 혹은 비살상 무기-Non Leathal Weapon-의 한 분야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러한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에 해롭지 않고 환경오염이 없어서, 앞서 언급한 “스마트 전쟁” 요구에 부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실용화 되기 위해서는 대상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미군에서는 컴퓨터 바이러스 침투와 같은 방법은 어느 정도 실용화 단계에 있으며, 최근 기술자료에 의하면 원격조정으로 대상 시스템에 바이러스를 침투 시키는 기술은 물론 더 나아가 대상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자료를 조작 변형시키는 기술을 상당히 진척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 정보방어

정보방어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아측 정보 기능을 보호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즉, 적 공습에 대비해 전화교환시설을 방어하는 것과 교환 시설의 소프트웨어를 보호하기 위해 항(抗) 바이러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등이 정보방어다. 다시말해 정보방어는 적이 우리의 정보기능에 대하여 정보전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보전에서 정보방어의 주요 관심사는 적의 정보공격중 특히, 앞서 살펴본 직접 정보전에 대한 방어 즉, 소프트웨어적인 방어인데 이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 미공군의 정보방어 대책을 살펴보기로 한다.

미 공군은 정보전에서의 정보방어를 위해 향후 4년에 걸쳐 국내 및 해외 주둔기지 108개소를 대상으로, 외부에서 침입하는 해커로부터 정보 체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6천만 달러를 책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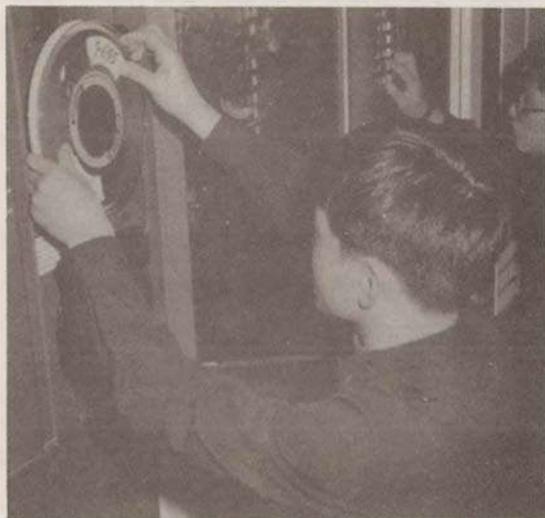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한 예로 BNCC(Base Network Control Center)를 운용하는데, 이는 기지의 모든 컴퓨터망을 관리하는 고도의 기술로서 외부 침입에 대한 첫번째 방어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로써 모든 기지의 각종 전화, 팩시밀리, 컴퓨터 등은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상호 연결되며 BNCC를 이용하여 모든 C'I와 시스템의 고장, 유지 보수 및 보안 등의 운영상태등을 계속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컴퓨터와 통신망 내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보안장치로서 Distributed Intrusion Detection System, Security Profile Inspector, Automated security incident measurement system, Network security monitor 등을 이용하여 보안 침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보 유출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도록 이를 고립시킨다. 예를 들면 컴퓨터 바이러스가 기지의 네트워크에 침입하여, 컴퓨터망에 피해를 주거나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기전에 BNCC내의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이 바이러스를 인식하여 처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컴퓨터 보안에 관한 교육을 대폭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 및 훈련 사령부와 공군대학에서 정보전에 관한 과목이 개설되어 운용 중이다.

정보방어를 현재 우리 군의 개념으로 본다면 군사보안과 유사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군의 보안은 "정보가 제3자에게 누설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다. 물론 지금까지의 보안이 정보누설을 막는데 그친 것은 아니다. "보안은 정보가치가 상실되지 않도록 제3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과 대책"이라는 용어 정



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안에 정보에 대한 "보호" 측면이 분명히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서 "보호"는 대부분 시설과 장비 보호라는 하드웨어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요구되는 정보방어 대책은 지금까지의 보안요건에 기반을 둔 현용 대책과는 매우 다른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즉, 비밀문건이라든가, 통신내용의 누설방지라는 유형적인 보안대책도 중요하지만 21세기 정보전 하에서 적의 "정보공격"에 대비하는 소프트웨어적인 정보방어 대책이 긴급하다는 것이다.

4. 결론 및 제언

지금까지 21세기를 맞으며 예상되는 새로운 전쟁 양상 하에서의 정보공격과 정보방어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정보전은 그 개념에 있어서나 범위 또 실현 가능성 여부 등에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으나, 미래를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볼 때 많은 연구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수년 전만 해도 보통의 컴퓨터 해커는 군용 컴퓨터 회로망 침투자체를 즐기는 아마추어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해커는 훨씬 전문화 되고 고도의 두뇌를 가진 우수한 프로들로서, 이들에게 정보를 빼앗길 위험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더구나 미래전은 정보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컴퓨터와 통신망이 상호 접속될 것이다. 때문에 외부에서 컴퓨터망에 침투할 가능성이 크게 증가되었다.

특히 오늘날의 컴퓨터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고, 대부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외부를 향해 개방되어 있다. 따라서 개전과 동시에 적은 우리 군의 중추인 컴퓨터 기능을 마비 시키거나, 네트워크에 허위 정보를 흘리려는 시도가 상상만의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군의 전투력을 보호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 군의 정보는 폐쇄적인 북한 군에 비해 훨씬 개방적이다. 그리고 군의 정보화가 진행되면 될수록 그 특성상 정보의 취약성과 위험성은 더욱 증가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언급된 정보방어 대책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기술적인 발전과 새로운 위협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데 필요한 정보방어 대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현 군사보안 업무지침에 포함 운용되고 있는 전산보안관련 각종 지침과 정책에 대한 전면 검토로부터 시작하여, 컴퓨터 해킹 사고 예방과 함께 사고발생시 추적과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적의 정보공격에 대비하는 연구에 착수하는 것으로 그 실마리를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공군**

간첩신고 및 대공상담

전화 : 효)0113 02)506-0113
042)551-2113, 태)0113

간 첩 선 : 1억5천만원

간 첩 : 1억원

좌익사범 : 3천만원

* 자수 - 신고자 신분 절대보장

공군본부 기무부대

한국의 통일여건 분석과 통일방안

윤 부 영

중령/공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I. 머리말

우리 주변에는 북한과의 통일을 상당히 낙관적인 입장에서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하는 사람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통일의 방법도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면 전 국토가 초토화되므로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이를 위하여 모든것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사람과, 경제적으로 못 살기 때문에 북한주민이 김정일의 정권을 무너뜨려 자멸함으로써 한국이 흡수통일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도 있다.

그러나 브린튼(Crane Brinton)의 영국 시민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혁명을 비교분석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혁명이란 것은 절대빈곤과 절대독재 하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상당한 기간 동안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이룩한 후에 따르는 단기적인 퇴보를 경험하게 될 때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경우와 같이 절대빈곤과 절대독재 하에서 혁명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본문에서는 독일의 통일여건을 분석하고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동구의 사회주의와 비교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 및 제한사항 분석과 바람직한 통일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독일의 통일 여건

평화적인 통일 요건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① 분단국을 둘러싼 국제환경여건의 지원과, ② 분단국가의 당사자중 공산체제(이를 테면 동독, 북한)의 본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③ 자유진영(예를 들면 서독, 남한)은 사태진전에 따른 변화상황을 끌어 안을 수 있는 수용능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 등을 주요 요건으로 말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독일의 통일은 「고르바초프」의 역할과 동독의 개혁, 서독의 사회보장제도라

는 평화적 통일의 요건이 모두 일치된 하나의 작품으로, 독일의 통일은 흡수통일이라기 보다는 독일국민이 원한 선택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첫째, 독일 통일에 있어서 「고르바초프」의 역할은 대단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정책이 없었다면 오늘의 통일독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베를린장벽의 철거도 「고르바초프」의 묵인 아래 이루어진 것이며 「호네커」가 정권을 빼앗기면서도 민주화를 강력히 요구하는 시위대를 무력 진압하지 못한 것도, 또 모스크바에서 열린 「2+4 회담」에서 독일문제를 종결짓도록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모두 「고르바초프」와 무관한 일들이 아니다. 그러므로 독일인들은 조바심을 내며 통일을 앞당기려고 안간힘을 다했다. 만일 불안정한 소련내의 정치기류로 「고르바초프」의 신변에 변동이 생기면 독일의 통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를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여튼 독일의 통일은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의 서기장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의 역할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

둘째, 동독의 개혁운동과 3·18 자유총선 결과는 독일의 통일을 결정짓는데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동독의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등 여러 도시에서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평화적인 시위*)는 결국 동독의 지도자들을 교체시켰고, 그로부터 비롯된 동독내 정치상황의 급변은 마침내 전후사(戰後史)의 최대 사건인 베를린장벽을 허무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또한 3월 18일에 실시된 자유 총선거는 서독의 지원을 받는 24개

의 정당의 난립속에서 동독 국민들이 집권당인 기민당(基民黨)을 선택함으로써 하나의 통일정책 속에서 조기통일이라는 동독인의 염원을 집약하여 표출시켰다.

셋째, 서독은 통일의 주역을 담당할 만한 경제력을 포함하여 정치·경제적인 민주화와 질 높은 사회보장제도가 어우러진 복지국가라는 점이다. 이것은 동독의 국민들이 그동안 동·서독간의 편지왕래와 편지의 교환, TV의 시청 등으로 서독의 정치, 경제 사회상을 잘 알고 있었고 3·18 총선을 통하여 기꺼이 서독을 택한 것도 서독 사람들과 같이 정치,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준다면 좋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과거 「비스마르크」때의 독일 통일이 그들의 군사력과 외교술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번 독일의 통일은 서독의 경제력과 외교술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Ⅲ. 북한의 붕괴 가능성 진단

1. 북한과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상이한 점 (통일의 부정적인 면)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동구와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체제가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회학자가 인정하듯이 동구와 구소련의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은 많이 받았으나 그 내용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첫번째로, 북한은 소련과 동구의 변화에 대한

*) 평화적인 시위가 가능하게 된 이유

- 서독이 "통일후에 동독의 지도자와 고위층을 불처벌 하겠다"는 메시지의 지속적인 전달로 저항운동의 무력진압이 미발생
- 소련의 동독 주둔군 사령관의 무력진압 요청을 「고르바초프」가 미승인.

대응책으로 주체사상을 강조하여 사상적으로 무장되어있다. 동구국가는 원래 사회주의와는 이질적인 체제로 사회주의 자체에 많은 저항감을 갖고 있었으나 2차 세계대전의 종식 후 소련체제가 동구에 강제로 이식되었고, 이러한 이질적인 체제에 대한 불만은 1956년 스탈린사망이후 스탈린의 뒤를 이은 후르시초프가 스탈린의 체제와 업적에 대해 비판과 격하를 시작하면서 민족해방운동으로 번져갔다. 1956년부터 1970년대까지의 동구국가의 민족해방운동은 소련의 무력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1989년의 민족해방운동은 소련의 군사개입 포기로 해방과 독립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동구국가의 반사회주의 운동에 고민하던 김일성은 1950년 이후 "우리는 우리식 대로 한다", "우리는 우리식 대로의 사상을 갖는다"는 주체사상으로 무장을 지시하고, 소련/동구의 수정주 변화의 바람이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상적인 문호를 폐쇄시켜 버리고 "조선민족 제일주의" 강조와 함께 주체사상을 본격적으로 주입시켜, 사상적으로 무장시키고 그 결과 이러한 주체사상은 오늘날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남한으로부터의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남북한의 엄청난 경쟁력 차이로 정책폭이 좁아져 가고 있으며 주체적으로 꾸려 나간다고 해도 사실,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두번째로 상이한 것이 1950년대 다른 동구국가들의 반소, 반공산주의 운동을 추진할 당시 북한은 6·25 전쟁을 도발하여 인민들을 사상적으로 무장시켰으며 이것은 대남 적대감, 긴장으로 유지되고 있고 북한 체제를 지금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동구권 국가들과 정반대의 역사적 배경이다.

세번째로 상이한 것이 동독의 경우는 그들을 뒷받침해주던 소련 즉, 「고르바초프」의 대외정책이 동독의 공산정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동독에서 반체제 시위가 일어나고, 결국 그 후 한돌이 못가서 동독의 「호네커」 정권이 와해되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냉전의 잔재가 아직 가지지 않은 채 천안문 사태를 무자비하게 진압하고 공산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중국이 뒤에서 북한정권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안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주체사상」을 외치면서 체제유지를 위해 인간힘을 다하고 있지만, 밖으로부터 오는 환경도 동독과는 달리 공산 혁명의 이념동지인 중국의 울타리가 있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이렇게 북한이 동구 및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와 다른 이유를 중심으로 한국의 통일을 예측할 때 북한은 쉽게 붕괴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2. 북한이 동구 사회주의 국가와의 유사한 점 (통일의 긍정적인 면)

세계의 사회과학자는 동구의 붕괴 및 소련의 붕괴를 아무도 예측 못하였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체제속의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므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서방의 기자들과 인터뷰시 말하는 모든 것들은 체제속에서 자기를 지키려는 인간의 본능으로 인해 사회주의 체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처럼 보여져야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인간의 심리를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인터뷰 결과를 그대로 믿을시는 오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방송으로 나오는 '북한의 창' 프로그램에서 북한사회의 획일적이고 조직화된 사회현상을 볼 때, 북한의 체제는 붕괴되지 않을 것

이라 생각되지만 실상 공식세계와 비공식 세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에게 귀순한 사람들이 북한 사회체제를 비판하는 것을 '한국에서 살기 위해 거짓말 한다'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것보다는 북한에 있을 때의 속마음일 가능성이 더 크다. 공식적인 체제와 비공식적인 체제의 실상인 것이다.

북한 사회의 변화는 80년대 후반 중국의 개방화 여파가 연변 조선족으로부터 전파되기 시작하였고, '88 서울 올림픽 이후 '89년 평양축제는 서양의 문물과 자유분방한 모습을 지켜본 북한 주민들을 체제로부터 이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사회주의는 권력의 사회이기 때문에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권력을 포기하면 그 체제는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동독과 소련의 붕괴도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체제유지 불가 판단을 했고 자신감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혈혁명으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와 유사한 북한 권력층의 붕괴조짐이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다. 심각한 식량난과 절도, 강도, 태업 등과 같은 사회이탈 행위속에서 파워 엘리트의 체제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으며, 권력층 구성원 스스로 사회주의 체제를 비판하고 붕괴를 예측하고 있다. 즉, 북한 주민과 권력층 모두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이 동구 및 소련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시 나타났던 현상은 동일시하여, 한국의 통일을 예측할 때 북한은 쉽게 붕괴될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IV. 통일 가능성과 제한사항

한반도는 동서독의 경우와는 달리 북한 체제

의 폐쇄성과 한국의 경제력이 아직은 미흡하고, 주변국가의 이해관계도 독일과는 다른 면이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를 둘러싼 시대적 환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통일 가능성은 임박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독이 붕괴되고 독일이 통일된 것은 결코 서독의 통일정책이 탁월했거나 동서독 간의 교류가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미시적인 요인으로 도움은 되었지만 결정적인 주요인은 구 소련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자멸한 사실이다. 소련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아직까지 초 강대국의 힘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고르바초프」가 동독으로 하여금 개방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면 동독은 오늘까지도 독립국가로 남아 있었을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소련은 붕괴되었지만 아직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은 엄존하고 있다. 그래서 북한이 잔존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은 붕괴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고르바초프가 동독에게 개방을 강요 했듯이 「등소평」 사후에는 분명히 중국의 집권자들이 북한의 개방을 강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중국의 한국을 보는 시각도 이제는 더이상 경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협력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라는 전략적 완충지대가 과거와 같이 절실히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시말해 통일 특히 흡수통일의 여건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통일의 시기는 평화적이고 무리없는 통합을 목표로 할 때 동서독의 경우는 몇 십년 간 접촉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동독체제 보다는 서독체제가 국민이 잘 살 수 있고,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을 동독주민들이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지만, 현재 북한은 외

부와 차단된 상태에서 갑자기 통일상황이 왔을 때 북한 주민들이 순순히 대한민국체제로 합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무력통일이나 주체혁명사상에 젖어있는 북한에 갑자기 혼란상황이 왔을 때 우리의 수용능력이 서독이 동독을 끌어안듯 쉽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며 우리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능력이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보았듯이 당시 서독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다. 판단하건대 지금의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살펴보면 아직은 어느 한 가지도 성숙하지 않았다. 우리가 바라는 평화적이고 미래가 보장되는 통일을 이룩하고자 한다면,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가운데서 너무 성급한 통일의 기대는 현실적으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V. 통일방안

분단국의 통일방법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베트남형의 무력통일이고, 둘째는 독일형으로 이것은 평화적 통일이며, 셋째는 예멘형으로 협상에 의한 통일유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이 세가지 각기 다른 유형으로 통일된 베트남, 독일, 예멘의 통일 이후 결과를 볼 때, 베트남은 완전히 공산화되어 빈국으로 떨어졌고, 독일은 통일 이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국민의 자유와 번영이 보장되고 있다. 예멘은 처음에 협상에 의한 연합형식으로 통합을 했지만, 북예멘이 무력으로 남예멘을 통합하여 결국 남북예멘 간의 갈등 속에 빈국의 위치에 떨어져 있다.

이와같은 통일이후의 결과를 볼 때, 우리의 통일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것

이고, 국민의 자유와 번영이 보장되는 평화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할 때 독일식 흡수통일이 한반도의 현 실정에 가장 바람직한 통일방안인 것이다. 흡수통일이라는 것은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는 국가는 통일을 스스로 택하기보다, 달리 방도가 없는 상황에서 강요되어지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에게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되풀이해서 강조해오고 있다. 먹히기를 겁내는 북한에게 먹지 않을테니 걱정말라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원하는 원치 않던 간에 흡수통일이 주변환경이나 북한 내부의 여건으로 인해 강요될 때, 이를 뿌리칠 수는 없고 또 뿌리쳐서도 안되는 현실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같은 민족이 살 길이 없으니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 모른다고 고개 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독일통일은 독일국민이 다 바라는 바였지만 서독으로 보면 떠맡겨진 부담이었고, 동독으로 보아서 살아 남을 길이 따로 없는 유일한 선택이었다.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동구 공산권에서는 가장 앞서던 것으로 알려졌던 동독의 경제가 도저히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없을 만큼 망가진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서독이 떠맡은 부담은 대단한 것이었다. 막강한 경제력이 뒷받침 되었길래 망정이지 그렇지 못했다간 큰일날뻔 했다. 이것을 보고 통일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들 가운데에서는 통일을 애써 서두를 것 없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 등 우리 준비를 갖추고 또 북한도 나름대로 발전한 다음에 통일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다.

북한으로부터는 먹고 먹히는 통일은 안된다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북한 스스로 동독의 꼴이 되는 것을 겁내는 약세를 내보인 것이다. 이

렇게 볼 때 흡수통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유도해서 흡수가 강요되는, 그래서 모두가 자멸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는 일이고, 둘째는 어쩔 수 없이 흡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만방의 준비를 갖추는 일이고, 셋째는 북한이 우리를 흡수하겠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착실하게 우리의 내실을 다지는 일이다. 이 세 가지 일은 다같이 긴요한 것으로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Ⅶ. 결언

분단 반세기를 맞은 이 시점에서 남북한 간의 체계경쟁은 이미 끝이 났으며, 이제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로 가야 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승리인 것이다. 국제질서, 남북한 관계, 민족의 장래를 볼 때 자유민주체제로의 통일은 이제 역사적인 승리이고 필연인 만큼, 지금까지 우리가 취해왔던 소극적 방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 공세적인 전략을 펴 나가야 할 것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전략이란 바로 흡수통일 정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흡수통일을 할 수 있는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과 더불어 흡수통일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대국민 홍보를 전개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동시에 정치적·경제적·행정적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의 우리의 대북한 정책은 북한 고립화였으나, 이를 점진적으로 북한 개방정책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북한은 아직까지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우리를 위협하고 있으나, 멀지않아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위협이

없어진 후까지 북한을 고립, 낙후시켜 고통을 줄 필요는 없다. 특히 우리의 통일목표가 북한동포의 자유·복지·증진에 있다면, 북한주민의 생활향상에 대하여 통일이전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이 군사력 증강에 직접 이용할 수 없는 생활필수품에 관한 한, 북한과 우리의 우방과의 교역을 허용해 주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서는 우리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교역을 추진시켜 주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의약품, 의·식·주 향상에 필요한 물품의 대북한 유입을 우리가 억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내적으로는 통일이 예기치 않는 순간에 갑자기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 수용정책을 개발하여 우리가 북한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울타리”를 미리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 북한은 어떠한 경우일지라도 현존의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는 극한적인 저항을 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우리는 잠정적으로 그들의 체제를 허용해 주는 통일의 울타리를 생각해 두어야 한다. 중국이 홍콩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해 낸 ‘1국 2체제’와 같은 것을 우리도 생각해 두어야 한다. 즉 우리의 날개를 크게 키워 그 속에 북한을 포용하는 체제의 유연성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이룩한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민주화는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자신감과 투철한 안보의식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정부로 하여금 과감한 정책을 펼 수 있게 만들 것이다. 평화 유지와 통일 실현을 목표로 유연성있게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에 나서는 것은 우리의 통일 정책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등단**

군대는 강인한 실천력을 기르는 성인 교육장이다

윤 재 홍
중령/공군본부 인사참모부



세계 어느 나라도 군대가 없는 나라는 없다.
6·25와 같은 쓰라린 고통과 처절함을 당했던
우리 나라는 역사적으로 세계사에 없는 동족상
잔의 고통을 당하였으며, 오늘도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어느 나라든 힘이 있다면 강자가 되듯이 우리
나라도 힘이 없어서 당했던 것이다. 힘이 없었기
때문에 당해야만 했고,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38선이라는 분단의 아픈 가슴을 안고 살아야만
되는 현실속에 처해 있다.

경제적으로 부강하면 할수록 막강한 힘의 군
대를 양성하고 최선의 병기를 연구 개발하여 보
유하고 있다. 최선의 병기가 없을 시에는, 무섭
고 강한 국민정신만이 뒤에서 그 나라를 지탱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아 왔다.

국민소득이 얼마만큼의 수준이 되느냐에 따라
그 나라 국민 수준을 평가한다는 것은 결과적으
로 큰 오류를 낳았으며, 그 내면의 국민성과 그
국민성을 알 수 있는 환경 및 국민정신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튼튼한 국가가 지탱되는 것은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의 재산과 학력보다는 국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정신 자세라고 본다.

한 국가의 재원이 국민 개개인의 세금에서 모
아지듯이, 군대는 국민 개개인의 성원에서 모여
진 나의 자녀요 우리의 자녀인 것이지 어느 누구
의 일부에 국한된 자녀는 아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군대는 통일이 된
다하여도, 또한 잘 살고 못산다 하여도 오직 국
민의 군대이다. 따라서 군대의 구성원인 군인은
우리의 자녀요, 나의 자녀이다.

나의 자녀가 먹고 자고 생활하는 터전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어야만 내 자녀가
잘 될 수 있고,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를 생각하고 반성해 볼 때가

되었다.

특히 정교하고 예민한 항공기와 더불어 생활하는 공군은, 육체적인 노동보다는 정신적인 노동력이 더욱 더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정신교육을 말로써 지도하고 교육할 때는 지났다.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생활 습관을 가져야만 되며, 그것을 실천에 옮기지 못했을 때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것을 조그마한 일부터 많이 보아왔다.

본인은 비행단 행정참모를 하면서 몇 가지를 경험했고, 느낀 체험이 산지식이라는 것을 깨우쳤다. 성남기지와 수원기지에서 근무할 때 행정업무의 근간(根幹)인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해 본 적이 있어, 그것을 실천에 옮기고자 실원들에게 지시한 적이 있다.

라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병(이등병)이 집에서 편지를 받고 "현역복무확인서" 한 통을 발부 받기 위해 바로 윗 상관인 일병부터 감독관(준위)까지 보고를 하고 행정관실에 도착하여 교부 신청을 하니, 인사참모 확인을 받아오라고 하여 인사처에 가서 확인을 받고 재접수를 시키는 순간 행정과장이 자리에 없어 결재를 못하니 다음 날 와서 찾아가라는 것을 우연의 일치로 목격하고 난 뒤, 그 자리에서 담당자(병 및 선임하사)에게 질문을 했다.

만약에 담당하는 본인이 지금 서 있는 이등병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군대생활을 하다 보면 세월이 흘러 생소하던 군생활에 경험을 갖게 되고, 고참이 되어있는 선배가 자기 과거생활의 어려움을 후배에게도 똑같이 겪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무엇이 발전하겠으며 신성한 신병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았

느냐, 일선 라인에서 한참 동안 작업을 하다가 부모가 보내 주신 편지 한 통을 보고 나서 급하다는 내용의 복무확인서를 발부 받기 위해 많은 계통의 보고와 시간을 소비하여 달려온 사람에게, 내일 다시 오라고 했을 때의 그 사람 심정은 군에 대한 격한 감정은 말할 것도 없고 뒤돌아가서 항공기의 일선 정비작업이 되겠느냐는 질문을 했다.

이등병은 그 순간에 대한민국 남아로서 의무를 마치고자 군에 들어와 보니 막막함만 보였을 것이며, 더욱이 신사이며 매사에 치밀하다는 공군의 가족으로서의 생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그 즉시 선조치 후에 결재토록 지시하여 그 이병은 현역복무확인서를 제시간에 발부 받아 가지고 갔지만 다른 병사들을 생각해 볼 때, 제도적으로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현역복무확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규정이나 교범에 의한 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사안이라면 관련 대장에 단순 기록 후 발급토록 조치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주변에서 생활하며 느낀 사소한 불편함이 본인의 크나 큰 일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병사가 현역복무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고 갔을 때의 심경과 작업장에서의 작업 분위기를 잠시 생각해 보자.

첫째, 그 병사는 공군에 들어온 것을 후회하며, 공군에 대한 많은 욕설을 했음은 물론 크나 큰 실망을 하였을 것이다.

둘째, 작업장에 가서 작업이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항공기 정비는 나사못 하나라도 점검·재점검을 해야 하는 부서의 작업인데, 과연 그렇게 하고 되돌아간 병사가 정비공구가 제대로 보였으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셋째, 그로 인한 심적 변화에 병을 갖게 된다. “환경은 정신건강을 지배하고, 정신건강은 육체건강을 지배하여, 정신과 육체건강은 능률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많이 보았다.

상대적으로 그러한 환경에 젖어 살아온 기간 병사는 잘 못느끼고 생활하지만, 새로 전입한 많은 병사에게는 정신적 고통과 함께 허약한 육체로 변할 것이다. 건강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군에 기여할 수 있겠는가?

분위기를 바꾸어 주어야 된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어왔던 “분위기(霧圍氣)”는 아무 때나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청주기지에 근무할 때의 일이다. 처음에는 후배 행정참모가 하던 곳이라서 가지 않으려고 했지만, 군인은 명에 의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청주기지로 전입되어 생활하다 보니, 모든 의전 행사와 행정관실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물론 누구나 전입을 가게 되면 생소하고 낯설은 것이 사실이지만, 필자는 그동안 비행단 행정참모를 7년동안 하였기에 낯설지는 않았다.

어느날 추계장병 체육대회가 시작되어 개회식을 실시코자 전장병을 연병장에 집합시켜 식순에 위한 예행연습을 하려고 30분전에 도착해 보니, 장병들의 의식이 평상시에도 그래서 그러는지 시작전 30분이 지났는데도 모이지 않고 진두지휘하는 사람도 없어서 마이크를 붙잡고 진두지휘하여 식 10분전에야 겨우 집합을 완료하여 예행연습을 하려 하는데, 대형 끝에서 방관하는 자세로 썬그라스를 끼고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하는 영외장병 30여명이 보였다.

시간은 흘러 식 5분전이 되어 임석상관을 모

셔야 할 때라서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켜 집합을 독려했으나 남의 이야기인양 계속 썬그라스를 끼고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부관실에 연락하여 임석상관인 “단장님”을 다시 연락할 때까지는 오시지 않도록 한 후에 사회자인 내가 마이크를 잡고 10여분간 분위기를 바꾸어 놓고 나서야 행사를 시작한 적이 있다.

그 내용은 나만이 이 부대의 주인도 아니요, 여기 단상에 계신 지휘관 참모만이 이 부대의 주인이 아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장병 각자가 부대의 주인이며, 이 행사를 이끌어 가야 할 나름대로의 위치에서 책임이 있다.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부대지휘관을 모시고 행사를 할 수도 없으며, 설사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행사가 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정신으로 퇴근 후에, 아니면 외출·휴가시에 밖에 나가서 생활한다면 각 개인을 육하기 전에 공군을 육하고 부대를 육하는 것이며, 끝으로 본인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지 일개인을 놓고 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장병은 부대를 빛내야 할 책임이 있으며 공군을 빛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오늘 행사전의 행동을 보니 자기라는 것과 자기의 위치를 잊고 사는 사람이 어느 무엇인들 똑바로 하겠는가? 사무실에서 또한 일터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 책임을 다했을 때, 공군과 부대는 빛날 것이며 본인도 빛날 것이다.

“우리 모두 다함께 공군과, 부대와, 자신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합시다.”라는 본의 아년 즉 흥연설로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다음, 식을 시작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나”라는 자신만 생각하지 내주변에 있는 동료, 가족, 부대, 공군을 망각

하며 순간을 살아가는 생활자세가 우리 주변에 팽배해져 있는 것이다. 나로 인한 주변과 남을 생각하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삶에서 오는 비정상적인 분위기를 바로 잡아 줄 때가 왔으며, 우선 나로부터 그렇게 살아야만 내 가족도 따라서 잘 살아 갈 것이다.

본인은 10여년만에 공군의 모체인 공군본부에 입성하여, 공군본부 생활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진급이라는 분위기에 휩싸여 마음의 혼란을 치렀다.

“군인은 군인으로서 군인다운 품성과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까지 생활해 왔고, 또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중년된 공군 장교로서 긍지심을 갖고 있다. 군인으로서 장교가 되었으면 그만이지, 장교의 계급을 갖고서는 하고 싶은 심정은 추호도 없다.

이것으로 만족하며 군의 발전과 공군의 발전을 위해 각지를 돌며, 남이 싫어하는 곳에도 마음과 함께 달려갔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힘만 되어 주었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음을 공군본부의 분위기를 보고야 알았으며, 다시금 알차고 단단한 하나의 목석이 되어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다. 물론 장교의 진급은 중요하다. 군인은 군의 발전을 위해, 개인은 개인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으로 주변과 후배들에 귀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때가 되면 안하던 행동도 하고, 안하던 말도 거침없이 체면도 불사하고 하는 분위기 이것이 문제가 아닐 수 있겠는가? 그러한 분위기를 혼자만이 간직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가 있는 곳에는 가족이 있고, 사무실에는 병, 하사관, 군무원, 동료 장교 및 선배장교가 있지 않은가?

왜 본인들은 그러한 환경과 여건들이, 나 자

신 주변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여 행동하는지 부끄럽지도 않나 보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책망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부끄러움과, 내 주변에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조금은 인식하며 생활하는 자세로 보다 진취적이고 건전한 분위기를 각자가 만들어야 한다.

약점을 잡힌 장교가 밑에 있는 요원들에게 큰 소리치며 일할 수 있겠는가? 약점을 잡힌 장교가 지시하고 일을 맡겼을 때 결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힘들다고 본다. 그렇게 되니까 위계 질서가 허물어지면서 군기가 없어진다. 우리 모두는 공군의 구성원으로서 공감대를 갖고 부단한 노력을 할 때만이 빛나는 공군이 될 것이다.

군대는 강인한 실천력을 기르는 성인교육장이 되어야 한다.

요즘도 군에 입대를 시켜 놓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많지만, 2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제대하는 날까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걱정을 하시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 마음은 ‘내자식’이라는 아끼는 마음에서 생긴다고 본다. 남의 자식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는 걱정이 안될 것이 사실인데도,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것만을 중요시하는 생활풍토에서 나오는 생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나”라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모두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다는 시대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군대가 자기 자식만이 있는



집합체도 아니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누군가는 그 임무와 책임을 다해야 만이 된다는 사실과, 내가 현재 있는 모든 자리에서 내가 아닌 남, 즉 내 자식과 같은 동년배가 와서 생활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전환은 참된 교육의 바탕에서만이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누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타인에게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지도해 주겠는가?

그것 하나만으로도 군대는 좋은 곳이다.

군대가 아니고서야 어느 집단이 바지의 봉합선이 맞지 않았으니 봉합선을 맞추고, 걸을 때는 주먹을 살포시 쥐고 걸으라고 하며, 제때에 자고 일어나고 밥을 먹고 체력을 단련시켜 굳건한 사나이로 만들어 주겠는가?

누가 나쁜 일을 하도록 그냥 놓아두는가?

누가 상관에 대한 예의범절을 가르쳐 주는가?

먹고 싶다고 아무거나 먹도록 하는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하여 교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점을 가르쳐 주는 생활속에서의 지도교육은 성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인간성의 교육이다.

남의 물건을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가?

인간성이 형성되면 품성이 발달하여 인품이 되고, 인품이 좋아지면 인격이 형성된다. 인격을 닦기 위해 남들은 수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시간과 경제적으로 많은 것을 투자하고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예가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가?

바지 봉합선을 맞추고, 수염을 깎고,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신발끈을 조이게 하는 것은 복장을 단정히 하여 보는 이로 하여금 선입관을 잘 갖도록 하는데 있으며, 걸을 때는 주먹을 살포시 쥐게 하고, 눈은 상방 15°를 바라보며 걸음은 똑바로 직각보행토록 함은 씩씩하고 강건한 모습을 길러 주는 중요한 교육이다.

이는 곧 바로 대우주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천·지·인의 혼합체인 사람이 기를 빨아들이고 빼앗기지 않도록 하는 교육이다. 왜 군인은 군기를 먹고 살아야 하는가? 유사시에 이길 수 있다는 강인한 신념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어느 부모가 다 큰자식을 두고, 마음대로 그

행동에 대하여 세세하게 지적하며 교육하는 모습을 보았는가?

그 비근한 예로 종합대학의 학교 주변 및 강의실을 가 보면 알 것이다. 대학은 대학생이 있어야만이 운영되는 곳이다. 휴지가 난무하고 정리되어 있지 않은 주변환경을 보면 대학의 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알 수 있으며, 유아교육부터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대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실천교육을 군에서는 실시하고 있으며, 3년동안 또는 그이상 동안에 많은 것을 교육시키고 배워서 사회로 가고 있다. 또, 한 예로 유아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도 우리는 조그마한 자연보호 운동을 해왔다.

그러나 학교 교문 밖을 나오면 내가 언제 자연보호 했느냐 하는 식으로 각종 오물을 버려 왔으며, 남이 버리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생활해 왔다. 지금에 와서 그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하루라도 듣지 않으면 섭섭할 정도로 자연보호에 대한 용어가 생활화되어 있다. 몰라서 버리고 다시 줍는가? 생활 습관이 안되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데나 버리는 습관이, 주변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것이다.

그 술한 대한민국의 남아가 군에서 배웠다는 말은 약주나 한잔하면 꼭 한다.

그 내용이 좋은 것을 배웠다면 좋겠지만 나쁜 것이면 꼭 군에서 배웠다고 한다. 좋은 일을 군에서 배워 잘 활용하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이는 잘못되어 온 억압된 교육에서 왔다고 보며, 왜, 무엇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근원에 대한 설명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남의 것만 갖다가 전달식 교육을 실시한 결과라고 본다.

군대는 어느 교육 집단과 달라서 성인교육장

이 되어야 한다.

“솔직하지 못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생활주변에서 보아왔다.

내가 내자식을 잘 되라고 학교 교육을 시키고 있듯이, 교육은 소신을 갖고 참된 교육을 누구에게나 해야만 된다.

군의 장교는 가끔 말로만 지시하며 지금까지 살아왔다. 어려운 일은 선임하사나 그 하부 요원이 해왔으나, 이제는 어려운 일에 대해 솔선해서 장교가 몸소 보여주고 요령을 가르쳐 주며 같이 생활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왔다.

모든 것에 모범이 되고, 실천과 의지력이 강한 장교가 교육을 시켜야만 사기가 진작되고 부하들이 살맛이 나는 것이다. 부하가 살맛이 나면 당연히 그 위에 있는 장교는 살맛이 나는 것 아닌가?

자기 부하가 잘해서 본인에게 잘못되는 것을 보았는가? 자기 자식이 자기보다 잘되면 기본 좋은 것과 같은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근본적인 교육이 참된 미래의 발전상을 기약할 것이다.

또 하나는 양심에 대한 교육이다.

양심하면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지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을 가졌다. 누구보다도 군인의 근원은 양심에 의한 행동과 사고력 배양이다. 군인은 아직까지 깨끗하고 올바르게 생각하며 생활한다는 것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왔다.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모이지 않는다는 속담도 있다. 그렇지만 국가 안위를 걱정하며, 그 정신을 먹고사는 군인은 누구보다도 양심적이어야 한다. 양심적이지 못하면 순수하지 못하며 순수하지 못하면 힘이 없으며, 힘이 없다면 단결력이 생기지 않으며 단결력이 없으면 군은 허수아비와 같다. 계급고하를 막

론하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시인을 할 줄 알아야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많이 보아왔다.

항상 잘못에 대한 시인을 하여 바로 잡고 개선해 나가야겠다는 마음의 자세가 어느 누구에게나 요구되는 때이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리탐구임과 같이, 군과 교육도 진실되지 않으면 가치를 잃게 되는 것 같다.

아울러 소속감을 갖는 생활교육이 되어야 한다.

넓게는 이 우주공간에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토에서 태어나 살고 있다고 보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하고 많은 나라중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왜 태어났는지, 태어났다면 이 나라에 대한 고마움과 고마움에 대한 배풀 수 있는 마음 자세가 필요하다. 이 나라가 없다면 우리의 선조도 우리의 부모도 없었을 것이며, 더욱이 자신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인가는 헌신하여 보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래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격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남들이 가꾸고 만들어 놓은 좋은 환경과 문명의 이기를 이용하지만 말고, 자신도 남과 후손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물려줄 수 있는 것을 해 놓겠다는 자세가 바로 가까이 있는 자녀를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그게 바로 국가와 가정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왜 하필이면 3군 중에서 공군을 택하여 지원했는지에 대하여 뒤돌아 볼 수 있는 자세를 가르쳐야만이 발전할 수 있으며, 자기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리라고 본다. 공군을 들어오게 된 것은 자신이 있기에 같은 값이면 공군에 입대하여 보다 편한 생활을 하여 의무 복무인

군을 필하려고 택한 것은 사실이지만, 막상 훈련을 마치고 난 후 특기교육을 받을 때부터 조금씩 기대했던 것이 빛나는 사람이 있다. 그 기대가 조금씩 빛나간 것을 부대 배속을 받은 다음에 충족하여야겠다는 마음으로, 예하부대를 갔지만 많은 제한요건 때문에 다시 실망하는 사례가 많다.

여기서부터 기대했던 공군생활에 염증을 느끼는 정신적인 갈등이 있으며, 근무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와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 군에 지원하여 공군을 택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려다 보니 주어진 환경이 맞지 않다라는 실망부터 갖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해소하게 하려면 생활에 있어 자기가 속해있는 위치에서 자신보다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도록 교육해야 되는데, 자신은 물론 주변도 볼 수 없는 짜여진 시간에 계획된 내용의 교육을 받고 예하부대에 와서 생활에 임하려고 하니 짜증만 나서 생활의 리듬이 없고 하는 일마다 되는 일이 없게 되어 후회를 하게 된다.

자신이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현재 위치에 와 있는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갖도록 하고 생활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며, 그 즐거움이 뿌듯한 느낌으로 승화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의 적응력을 길러 생활의 보람을 느껴야 된다고 본다. 생활에서의 보람은 바로 보이지 않는 행복이 아니겠는가?

언제든지 그 속에서 생활하며 적응하게 되어 있는 심리를 이용하여 교육이 되어진다면 많은 발전을 가져올 것이며, 빛나는 선진 정예 공군이 될 것이다.

공감대를 형성해 나아가자.

어려운 일이 닦혔을 때 지시하며 말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하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어려운 일을 무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본다. 알면서도 “힘들고, 시간이 걸리니까 하기 싫어.” 하는 마음자세에서 회피하는 사례가 많다.

필자는 가끔 “죽으면 썩을 육체, 살아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말을 잘 한다. 남이 귀찮게 여기는 일을 자신이 해결하고 성과를 거두었을 때, 뿌듯한 그 마음은 이루 비할 바가 없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알지 못한다.

흔히들 경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아도, 예사에는 꼭 참석하여 고통을 함께 하려는 마음은 우리의 국민이면 누구나 갖고 있다. 이 마음은 자기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해 보았거나, 당했을 때를 생각하면서 어려움에 대한 외로움이 자기 일 같이 생각되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기서도 자기에 대한 애착심은 충만되어 자기와 직결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다.

흔히 공사를 분명히 구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다. 주변에서 그와 같이 공사를 구별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첫째가 공적인 업무수행이요, 둘째가 사적인 일이라고 보고 행해야 되는 데도 아직까지, 공적인 일이 잘 되어야 자기가 잘 된다는 인식은 희박하다. 매사의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강한 추진력을 갖고서 실천해야 되는데 자기는 입지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인정과 덕에 치우치는 사고방식이 공적인 업무수행에 크나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까지도 알면서 개선하지 못함이, 바로 오늘날 공직

사회가 발전하지 못하고 조직이 더디게 발전하는 큰 요인이라고 본다.

이제는 새옷을 갈아입고 나타날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만이 새옷을 입으면 주위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마음에서 주춤거리는 일들이 주변에는 많다.

이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어 몰홀러 가는대로 따라가야지 하는 마음, 곧 이것을 버리고 옳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부딪칠 수 있는 용기와 강한 실천력을 갖고, 자신과 공군과 국가를 위해 노력하여 우리의 후손에게도 우리와 같은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함이 자식을 기르는 부모의 마음과 같지 않겠는가?

“한 방죽에 있는 물고기는 같다.”는 속담이 있다. 공군에 제복을 입고 현재 남아있든, 전역을 하였던 공군의 가족임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다. 공군의 일원으로서 공군을 위해 당신은 기본 업무외에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공군 속에서 숨을 쉬고 있는 한 공군을 위해 일할 필요가 있으며, 공군을 빛낼 직·간접적인 책임이 공군가족이면 누구에게나 있다.

새 옷을 입고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 무엇을 실천에 옮길 것인가를 생각하며, 빛나는 공군상 정립을 위해 다같이 한 시점에서 한 목소리를 낼 때 우리공군은 세계속의 공군이 될 것이다.

끝으로 현재까지 발전시켜 온 좋은 공군문화에 대해서는 계승시켜 빛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좋지 못한 악습은 언제라도 버리겠다는 마음 자세로 서로가 잘못됨을 지적하고, 충고하고, 선도하여, 보람있고 즐거운 공군생활이 되도록 매진해야 되겠다. **공공**

참다운 “군의 제 모습”이란

—군기강 쇄신을 위하여—

김길근

중령/제10전투비행단 헌병대대



1. 문제 제기

군에 있어서 군기는 사람의 동맥과도 같다. 군기 없는 사기 양양은 마치 동맥 경화증에 걸린 사람에게 자양을 위해 콜레스테롤이 더 많은 음식을 섭취케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정예화된 부대일수록 군기는 늘 생명처럼 소중히 여겨 왔으며 군기해이 문제는 엄정히 다루어 왔다.

이런 이유로 공군 각급 부대에서는 군기강 쇄신을 위해 각종 교육훈련, 토론회, 설문, 지도 방문, 검열 등을 통해 군의 기강 확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일시적으로 부대의 분위기를 쇄신할 수는 있어도 군기강을 쇄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치유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군대 구성원의 대부분이 의무복무를 하기 위해 입대한 20대 초반의 신세대

장병들이면서, 입·제대에 따른 잦은 변동으로 인해 군 본연의 전통과 분위기를 유지하기 보다는 새로운 사고와 문화가 군내로 흘러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건에서 군인을 직업으로 하는 장교와 하사관들까지도 군의 고유한 분위기, 즉 군인의 엄정한 기풍과 강인한 정신력을 소유하고 명예를 생명처럼 여겨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군 고유의 모습 보다는, 자유분방한 민간의 색채를 띄고 있는 분위기가 부지불식간에 군내로 유입됨으로써 군기강 해이현상이 초래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가 말하는 군 고유의 모습과 군기강은 무엇을 말하는가? 군 본연의 모습은 한마디로 군인이 군인답게 보이는 외적 군기와, 필승의 신념으로 충만한 강인한 정신력으로 무장된 내적 군기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내외의 엄정한 군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시대적인, 세태적인 외부의 변화에 흔들림없

는 확고부동한 군 본연의 군대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장병들의 엄정한 군기강 확립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본론

가. 군대 문화의 필요성

군의 체모습 찾기에 필수 조건이 군기강의 확립이라면 그 충분조건은 군대 분위기, 군대 문화의 쇄신이다. 그러나 요즘 들어서 군대에서 사용하는 고유 문화와 언어는 점점 사라져가고, 사회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문화가 무분별하게 군대에 유입되고 있다.

과거 군과 사회와의 단절 속에서 군 나름대로 자생해 온 군의 문화가 사회로부터 거부감, 이질감으로 받아들여지고, 군사문화란 국민을 군사적 권위주의로 통치하므로써 척결되어야 할 대상으로 평가되고 매도되었다.

그러나 군대에서는 군 나름대로의 군사 문화가 필수적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군대에서 상관에게 예의를 표하는 거수경례를 들 수 있다. 군대경례는 군기를 상징하는 군대 예절의 기본으로서 엄숙 단정히 행해진다.

더욱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하는 군인은 함부로 상대방 앞에 자신을 굽히지 않아야 하므로, 군의 인사예절은 거수경례로 행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는 자신을 낮추는 것을 예의로 생각하여 허리와 고개를 숙여 목례를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신세대 장병들은 일반 사회에서 행했던 목례의 습관을 군에 입대해서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렇듯 군대는 군의 목적과 특성에 맞는 군대

문화가 존재하고, 이러한 군대 문화가 군의 특성에 부합되어 군의 목적 달성 능력을 배양시킨다.

물론 사회 문화의 격리, 단절이 있어서는 안되지만 사회 문화로 군을 길들여서도 안된다. 이제 새로운 군대 문화의 쇄신을 위해서는 과거의 비합리적이고, 절대적인 군사 문화는 과감히 청산하되 군의 목적과 기능, 특성에 맞는 군대 문화를 창조 발전시켜야 한다.

나. 군대 문화의 올바른 정착

군 본연의 모습을 확립하고 적절한 군대 문화의 모습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군의 기능과 목적 및 특성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5조 제2항에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민주주의의 헌법을 수호하고 자유와 국가의 독립 보장을 그 목적으로 하며, 이런 목적 수행을 위해 조직구성면에서 '목적의 절대성', '권위주의적 위계질서', '조직의 집단성', '조직의 강제성과 규범성'을 그 특성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사회에 팽배한 물질만능주의와 이해 타산적 사회 문화가, 군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추겨 군대 목적의 절대성을 희석시키고 있다.

핵가족 문화와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가 명령과 그에 따른 복종을 명예로 여기는 군의 위계질서 체계를 뒤흔들고, 신세대 장병들 사이에 팽배한 개인주의적 이기주의 발상과 행동이 목적 달성을 위한 군대조직의 집단성 와해를 부추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간부들조차도 군의 조직이 권위적이고 규범적이라는 특성을 무시하고, 장



병들이 가정적인 분위기를 선호한다고 하여 부대 전체를 군대 분위기가 나지않게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지휘 관리라고 곡해하기도 한다.

이런 분위기에서 군기강 확립을 강조하고 군의 특성을 유지하며 군 본연의 분위기를 형성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국립극장에서는 예술적인 분위기에 맞게, 산에서는 등산 분위기에 맞게, 도서관에서는 공부하는 분위기에 맞게, 군대 분위기에서는 군인답게 행동하고 생활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군기는 군대만이 갖고 있는 엄격한 질서와 규율이기 때문에, 군대다운 분위기에서 군기를 찾아야만 한다. 국방부가 '97년 2월 1일자로 부대 내에 B.X에서 내의류의 판매를 중지하고 무선 호출기의 소지를 금지하며, 공중전화 이용을 통제하는 등의 일련의 조치는 이러한 분위기 쇄신과 연관된다. 즉 군 기강이 확립된 군을 만들고 군이 홀로 서기 위해서는 군대다운 분위기 즉, 군대 문화를 올바르게 정착시켜야만 하는 것이다.

다. 참다운 군의 제모습

우리 공군은 전쟁을 대비하면서도 전쟁억제를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으며, 항상 전

쟁에서의 승리를 절대적 사명으로 한다. 이러한 절대적, 궁극적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는 항공전력의 완비도 필요하지만 정신전력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 정신전력 전반에 흐르는 것이 군의 기강이 되는 군기라고 할 수 있다.

군기는 군의 기율과 질서이며 생명과 같은 것으로 군의 전투력을 보존 발휘하려면,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명령에 복종하는 자세와, 규율과 규정을 포함한 법규를 자발적으로 준수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공군 복무규정 제23조 제1호에 보면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라고 하고 있으며, 제24조 제1호 후단에는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므로써, 군이 권위적 위계질서와 명령 체계를 특성으로 하며 명령에 대한 복종이 군기강의 초석임을 확인하고 있다.

제갈공명이 유비의 삼고초려(三顧草廬)후 군사(軍師)의 지위를 맡아 군을 지휘함에 있어서, 법규를 엄중히 집행하고 명령에 복종시킴으로써 군기를 바로 잡는 것을 첫째로 삼았다. 삼국지의

읍참마속(泣斬馬謖)을 보면, 제갈공명이 군량의 중요한 수송 요지인 가정을 위(魏)의 사마의(司馬懿)가 빼앗으려 하자 마속과 왕평(王平)에게 군사 5천을 주어 가정을 지키도록 했다. 그러나 마속은 공명이 명한대로 진을 치지 않고 산 위에 진을 침으로써, 위군이 산 아래로 빙둘러 포위해 버리자 군사들은 목이 말라 제대로 한번 싸워 보지 못하고 패했다. 주위에서는 공명에게 마속의 실수를 용서해 줄 것을 간청했지만 공명은 대의(大義)와 엄정한 군기를 위해 마속의 머리를 베어 버렸다. 공명은 기강을 위해 개인감정에 매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중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로 모택동이 있다. 모택동의 일화중 중국 통일의 초석이 된 3년간에 걸친 대장정(大長征)은 유명한 이야기이다. 모택동이 이끈 홍군(紅軍)은 1932년부터 1935년까지 3년간 장개석 국민당 군에 쫓겨 1만 2천km의 대장정에 오른다. 추위와 배고픔,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보안(保安)에서 3년간에 대장정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홍군의 규율이 바로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당 군이 부정 부패하고 잔혹하여 국민의 신뢰를 잃은 반면, 홍군은 엄정한 군기와 사상을 바탕으로 한 대민 보호로 당시 국민의 대다수였던 농민들로부터 비호를 받았다. 군의 엄정한 군기와 기강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이다. 군이 군으로서 갖는 참모습은 바로 군기를 바탕으로 하며, 사회와는 구별되는 군의 특성을 살리고 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모습인 것이다.

3. 결언

우리 한반도의 현실은 150만의 남·북한 병력과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긴장감이 감도는 곳이다.

정말 군은 중요하고 필요하다. 또한, 세대와 문화가 바뀌고 과학기술에 의한 군이 운영되어도 군의 근본 모습은 역시 군대 분위기 여야만 한다. 지난해 동해안에서 북한 잠수함 침투 사건이 발생하여 국민들로부터 우리의 안보정세에 대한 경각심과 비판의 소리가 높았으며, 한편으로는 우리 군의 기강과 전투 수행능력에 대한 의구심과 비판이 연일 언론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진 바 있다. 이는 그동안 우리 군의 안이해진 자세와 해이해진 군 기강에 대한 질타로 볼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군 기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와 절차를 재점검하여 시대 변화에 맞게 조정하고 장병에 대한 군법, 군기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군대는 군대 분위기로 만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록 일반사회나 가정에 비해 군수보급품의 질적저하가 있어도, 신세대 장병들로부터 군의 제반 여건들이 거부되거나 경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휘관들의 자발적인 군 분위기 조성과 엄정한 군기 확립을 위한 노력이다. 엄정한 위계질서 조직인 군의 특성상 군기강 쇄신을 위한 개혁이 없는 한 군의 체모습 찾기란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우리 군 모두가 군 본연의 사명과 임무를 망각해서는 안된다. 항상 위기에 대비하고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기강을 확립하고 확고한 전투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공군이 되는 것이다. **종결**

뜨거운 한마디

신 준 식

준위/제3훈련비행단 무장대대



지난 해 9월, 당질 혼사 관계로 천리길 서울을 다녀올 기회가 있었다. 상경은 항공편으로 해결하였지만, 갑작스런 계획의 변경으로 귀향길 교통편을 미처 구하지 못한 것이 일의 발단이 되었다. 갓은 고생끝에 입석표를 구하게 되어 진주행 무궁화호 야간열차를 타게 되었다. 지난해 3월, 검열때 다친 다리가 불편하여 장시간 건디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는, 승무원으로부터 좌석표 한장을 운 좋게 구할 수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자리에 앉게 된 나는 흥가분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의 눈길은 옆자리의 한 신사에게 멈췄다. 내 연배쯤 되어보이는 그 중후한 신사 덕분에 웬지 지루한 여행이 되지는 않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느낀 그대로 그 사람은 먼저 말을 건넸다. 자신을 모대학 교수라고 소개하고는 학교의 애로점에서부터 현 시사 문제까지 막힘없이 열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내 생각이지만 요즘 군대의 군기문란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는 더욱 강

경한 어조였다.

그는 군대의 생명은 군기라며, 요즘 군대 훈련이 약하다며 과거의 강한 훈련을 그리워 했다. 자기 자식을 아직도 회초리로 다룬다고 하던 그는 꽤나 완고한 사람 같았다. 사실 그의 말은 나에게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물론 현실을 배격한 고집도 없지 않았으나, 그의 강의(?)는 잊고 있던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었다.

요즘 흔히 말하는 X세대들, 더 나아가 우리 기성세대들도 현실에 안주하고 기회만 열보려는 것은 아닌지, 요즘 우리 사회는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왜 그런 안타깝고 한심스러운 일들은 되풀이 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니 나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가슴이 아팠다.



종착역이 가까워 질 때까지 내내 그 문제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마침내 헤어질 때가 되어 나는 그 교수에게 인사를 했다. 그는 섭섭해 하면서 나에게 한가지 당부를 했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책임의식이 없으니, 가정과 학교에서 얻지 못한 빈 곳을 군대생활에서 채워 달라고, 순간 한줄기 서광이 비치는듯 했다.

그렇다. 나는 신세대들이 우리의 희망임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분명 다음 세상의 주인은 그들이니까. 내 주위의 신세대 장병들을 생각하니 더 분명해 진다. 그들은 익히 알려진 신세대들의 허상과는 거리가 먼 착실한 청년들이 아니던가.

우리 군은 현실을 직시할 줄 안다. 미래의 첨단과학이 아무리 발전하더라도, 사소한 인적 요

소의 사고라도 발생하면 현실은 흔들리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내가 부임한 5년동안 우리 반에 아직까지 인적·물적 안전에 한건의 사고도 없이 순탄의 길을 걸어온 것은, 모든 조직의 구성원들 하나 하나의 역량이 합쳐졌기 때문일 것이다. 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감독관들이 그렇다면 이 사회는 아직 희망이 있는 게 아닐까?

더불어 군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 열차에서 만난 교수님과 같은 지식인들이 활동하고 있으니 더욱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정축년이 시작된 지 한달여가 지났지만, 그 교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나의 임무를 생각해 보게 된다. **중근**

외로운 양치기 소년

조 일 규

병장/방공포병학교 정비교육지원대



“늑대다~! 사람 살려~.”

놀란 마을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일을 제치고 양치기 소년이 있는 들까지 뛰어 오지만 늑대는 온데 간데 없고 즐거워하는 양치기 소년뿐……. 늑대가 나타났다는 장난도 두 번까지 통하지만, 정말로 늑대가 나타나 양치기 소년이 애타게 마을 사람들을 부를 때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어렸을 때부터 익히 들어오던 이야기이다. 그때마다 거짓말을 하면 안된다고 배워 왔고 양치기 소년을 나쁜 소년으로 인식해 왔다.

나는 이 이야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 보고 싶다. “과연 왜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했을까?”라고 달리 생각해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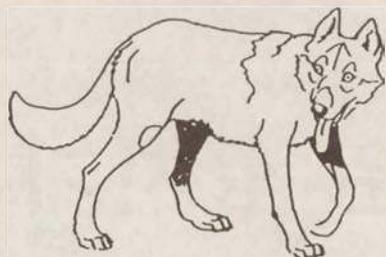
양치기 소년은 늘 황량한 들판에서 친구도 없이 외로이 양을 지키며 지내 왔을 것이고, 어쩌면 하루종일 말벗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의 정이 그리워 참지 못해 마을 사람들을 부른 것은 아닐까?

마을 사람들은 그저 양치기 소년의 장난으로

생각하지만 끝내 그 소년은 외로움 속에 비극을 맞이하고야 만다.

양치기 소년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외로움을 참지 못해서라고 새로운 각도로 보고 싶다. 어떤 글을 보니 “늑대라는 동물은 청각이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몰려올 때마다 그 소리를 듣고 잠시 피했을 것이므로 양치기 소년은 결코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라고 적힌 글을 보았다. 이러한 견해 또한 색다른 관점이다. 하지만 나는 이 글의 시비를 따지는 관점이 아니라 단지 ‘왜’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다. ‘왜’라는 의구심은 이야기를 달리 생각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의식하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진리가 발견되기도 한다.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 냈다. 뉴턴만이 떨어지는 사과를 본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많은 물체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며 물체는 당연히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뉴턴



은 '왜'라는 단어를 덧붙여 한 번 더 생각했다. '왜'라는 한 단어의 덧붙임이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과학자를 탄생하게 만든 것이다. '당연히 시과가 떨어진다.'라고만 생각한 것처럼 지금도 살아가는 동안, 당연히 여기고 의식하지도 못한 부분에서 약간의 색다른 생각으로 세상을 엄청나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세상을 '왜'라는 관점뿐 아니라 보다 넓은 '새로운 생각'으로 본다면 세상이 새롭게 보이지 않을까?

지금까지 '새로운 생각'에 대하여 말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관점의 생각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에 대한 나의 의견을 말해 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생각들 중 '넓은 생각'이 있다. 말 그대로 넓은 관점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경쟁사회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경쟁에서 꼭 이기려 하고 정상만 바라고 뛰어 간다. 어떤 회사 광고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1등은 기억되고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

이것은 경쟁사회를 잘 나타내고 있는 것 같다. 1등만이 승자이고 2등은 패자, 1등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1등 우월주의를 잘 나타내고 있다.

넓게 생각해 보면 2등은 1등을 놓쳐서 안타까워하고 패배감에 젖어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뒤에는 2등보다 1등을 놓친 것에 안타까워하고

더욱 더 큰 후회와 패배감에 젖어 있는 이도 있다고 보고 싶다.

광고에서 1, 2등 이외의 심정을 생각해 내는 것은 무리가 있을지 모른다. 사람들은 늘 1등 또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기 위해 노력한다. 승자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하지만 패자가 된다면 패자의 비굴함에 대하여 생각지도 않는다. 막상 패자가 되어 패배감을 느껴야 후회를 하게 된다.

광고를 통해 자칫 잘못하면 패자라는 쓰라림을 느낄지도 모르니까 보다 신중하게 정상을 향해 전진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넓게 보고 싶다. 승자가 되기 위한 '넓은 생각'을 말해 왔다. 이번에는 반대로 패자가 된다는 입장이 되어 보다 폭 넓게 생각하려 한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양하고 많은 경쟁을 한다. 그 많은 경쟁 속에서 승리만 한다는 보장 또한 없고 때로는 패자가 되기도 한다. 어떤 경쟁이냐에 따라 그 패배감은 작게 느껴지기도 하고 크게 느껴지기도 한다. 패배라는 낙담 때문에 자포자기가 되어 심지어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이 더러 있다. 중고생들의 성적비관 자살이 바로 그런 사례인 것이다.

패배를 하여 낙담을 하고 있는 이에게 사람들은 종종 "더 좋은 내일이 있으니 희망을 가져라!"라고 긍정적 생각을 유도하게 된다. 나는 보다 폭 넓게 바라보고 싶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큰 낙담과 절망 속에 후회를 하고 있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가령 지금 막 사형집행을 받으러 가는 사형수의 처지가 되어 생각을 해보려 한다. 우스개 소리로 사형집행을 받으러 가던 사형수가 돌에 걸려 넘어질 뻔 하면서 “죽을 뻔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아무리 우스개 소리이지만 사형집행을 하러 가는 사형수라도 죽음이 두렵고 1분 1초라도 더 살고 싶을 것이다. 그런 사형수의 입장이 되어 본다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후회에 또 후회를 하고 있을 것이고, 다시 한 번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없을까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사형수의 처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창백해진 얼굴로 마지막 세상을 보는 그의 눈과 떨리는 입술을 그려보면 사형수의 절망감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내일이 없는 사형수가 낙담에 빠져 있는 모습, 절망감에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의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한심하게 생각하지 않겠는가.

극단적인 예로 사형수를 들었지만 세상에는 사형수들보다 더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사람들은 절망감에 젖으면 자기자신보다 더 절망하는 이들이 있다고 보다 넓게 생각하지 못한다. 더 악한 처지에 처해 있는 이를 생각해 보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긍정적인 입장으로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

사람들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 위를 바라보기만 한다. 하지만 보다 넓게 바라본다면 아래와 옆에는 정상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을 수 있고 낭떠러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세상을 보다 넓게 바라보는 생각을 통해 앞으로 가야할 길을 후회하지 않고 보다 긍정적인 길로 선택해서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넓은 생각’을 말해 왔다. 이번에는 깊은 생각에

대해 말해 보고자 한다. 넓은 생각에 비해 보다 더 신중한 관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삼사일언(三思一言)’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라는 말이다. 이처럼 깊고 신중한 생각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깊은 생각을 토대로 미래사회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정보화 사회, 초고속화 사회, 윈터치 사회 등……. 아주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가 된다고 한다. 이런 미래 사회의 공통점은 과학기술 등 여러 가지 분야의 발전을 통해 사람들이 보다 편리하고 간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이고 사람들 또한 그런 사회가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있다.

우리 나라는 30년전에 비해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그 당시만해도 길에서 자동차를 보기란 힘들었고, TV, 전화 또한 찾아보기 힘든 물건이었으며 시계를 차고 다니는 사람 또한 극히 드물었다고 한다. 아마 그 세대의 사람들도 미래 사회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상상했을 것이고 그렇게 만들어 왔을 것이다. 정확히 그들이 어떤 상상을 했을지 모르지만 자동차를 자기가 직접 운전하고 집집마다 TV, 전화가 있는 그런 미래 사회를 상상했을 것이다. 지금 현대 사회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몰라보게 발전했다. 발전을 통해 살기 편해진 것 또한 사실이고 미래 사회는 더욱더 편리해질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이 발전한 사회의 이면에 대해 신중하게 관찰해 보면 얻은 것만큼 잃은 것 또한 많다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이웃간의 정이 없어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사건까지 일

어나기도 했으며 사람들은 점점 자기자신만 아는 극단적 이기주의로 몰락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자연환경 또한 많은 곳이 급속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 이제는 강가에서 물고기를 찾아보기란 힘들고 울창하던 숲들은 사라지고 뺏뺏하게 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미래사회를 생각해 보면, 과연 사람들이 말하는 살기 좋고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사회일까? 과학기술이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듯이 환경과 인간의 정 또한 가속적으로 파괴되고 매말라 가고 있다.

미래사회는 과학기술이 발전하여 살기 편리해질 것은 분명한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신중하고 깊게 생각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가 건설되었으면 하는게 개인적인 나의 바램이다.

사람들은 신중하게 선택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다 깊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아닐까?

여기까지 새로운, 넓은, 깊은 생각을 말해 왔다. 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의 생각을 해보려 한다. 사과로 정물화를 그릴 때 사람이 쳐다보는 각도에 따라 다양한 그림이 나온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좀 더 다양한 각도에서 생각해 본다면 가지각색의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다.

사과를 가지고 다양한 그림뿐 아니라 다양한 생각 또한 가능할 것이다. 가령 길 한복판에서 사과가 있다고 가정하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그 사과를 보고 달리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과수원을 하는 이가 지나가다가 이 사과를 보면 썩거나 운반중 떨어진 필요없는 사과로 보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고, 과일 장수가 본다면

하나라도 더 팔지 못해 안타까워 할 것이다. 어떤 이는 그저 사과를 먹고 싶다고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 사과로부터 한 폭의 그림을 생각해 내는 이도 있을 것이다. 물론 어떤 길이나에 따라 그 사과 또한 다른 각도로 보게 될 것이다. 이처럼 한 사과로부터 다양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다양한 생각을 하고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내놓는다. 때로는 의견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며 서로가 오해를 하기도 한다. 서로가 다른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자기 자신이 보다 다양한 생각을 한다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다양한 생각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도 있고 무관심속에 지나쳐 온 것을 다시 생각해 생활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가지 방식의 생각을 말해 왔다. 앞에서 말한 4가지 방식의 생각말고도 또다른 방식의 생각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미래사회는 아이디어 사회이다. 남들과 똑같은 또는 비슷한 방식의 생각을 하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가지 방식의 생각을 한다면 보다 새롭고, 신중하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끝으로 이 글을 보는 필승 공군 여러분께 한 마디하고 싶다!

지금 우리가 복무하는 군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남은 인생이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기간을 단지 시간 낭비라고 본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군 생활을 미래로 도약하기 위한 자기 자신의 준비기간이라고 생각한다면, 미래를 향해 멋지게 도약할 수 있지 않을까? **공군**

P · H · O · T · O · N · E · W · S



- ▲ 제16전투비행단 주임원사단은 부대내에 근무하는 영내사병들로 하여금 병영생활의 적극성과 활기찬 복무기량을 유지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생활로 술선수범하는 능동적 군복무상을 확립하기 위해 모범사병 및 모범 내무실을 선발하여 건전한 병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기지 소강당에서 실시된 모범사병 선발식에서는 최종 선발된 5명의 모범사병들이 단 주임원사로부터 모범사병 뺨지를 전달받고 부상으로 위로휴가를 받았다.(1.31.)



-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은 예하 전부대 정훈참모와 정훈장교 1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7 정훈참모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정훈현황 보고, '96년도 정훈업무 분석, '97년도 주요 정훈활동 발표, 특별교육, 정훈세미나 순으로 진행됐다.(2.3.)



▲ 제8196부대는 '차량 무사고 20주년 운행기록'을 수립하고 기념식 및 축하행사를 가졌다. 이번에 달성한 20주년 무사고 운행기록은 지난 '77년 2월 12일부터 '97년 2월 11일까지 총 7천 3백일에 걸쳐 수립된 것으로 총 운행거리가 2백 60만Km에 이른다. (2.11.)



▲ 제19전투비행단 방공포대는 최근 10일만에 걸쳐 '97 동계작전 적응훈련을 실시했다. 내한 극복훈련과 체력단련, 기본군사훈련 과제숙달, 동계작전 적응훈련 향상에 중점을 둔 이번 훈련을 통해, 포대장 이하 전포대원들은 혹한기와 악조건 속에서도 주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자신감을 키웠다. (2.3.~2.12.)



▲ 제10전투비행단은 박춘택 작전사령관을 비롯해 주요 지휘관 참모와 부대 전장병이 참가한 가운데 3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한 제156전투비행대대에 대한 시상식을 성대히 거행하고 총화적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기록은 지난 '88년 11월 17일부터 시작돼 8년 2개월 동안 단 한건의 사고도 없이 달성된 것으로 조종사는 물론 정비사, 무장사 등 관련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성과이다. (2.24.)



▲ 제3173부대는 연인원 120여명이 동원되어 경기도 소방본부를 비롯해 지역내 의용소방대와 합동으로 민·관·군 합동 산불 진압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을 통해 인근주민에게 산불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재발생시 동원가능한 군부대 인력과 소방당국 및 지역주민과의 유기적인 협동체계를 점검해 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5.)

P.H.O.T.O.N.E.W.S



▲ 제168기 공군 하사관 후보생 교육수료 및 임관식이 교육사령부의 각급 지휘관 참모와 장병들, 그리고 임관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거행되었다. 신임 하사관들은 18주 간에 걸친 강도 높은 훈련과 교육을 통해 하사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강인한 체력과 품성, 지휘 통솔력 등을 연마하여 영예로운 임관을 맞았다. (3.5.)



▲ 제5전술공수비행단은 배양일 참모차장을 비롯한 내빈과 부대 전장병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51전술공수비행대대의 9개년 무사고 비행기록에 대한 안전시상식을 거행하였다. 지난 '88년 1월 11일 창설된 이래 9개년에 걸쳐 수립한 이 무사고 기록은, 최상의 안전관리와 합리적 비행운영을 위해 노력해 온 부대장 이하 전장병이 흘린 땀의 결과로 국민들에게 믿음직한 군의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다. (3.7.)

보라매의 요람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시대 주역으로 응비할 정예 사관생도 양성



공군사관학교는 1949년 개교 이래 반세기 동안 전투조종사를 비롯하여 각 분야 전문기술 인력등 정예 공군장교를 배출해 냈으므로, 명실공히 조국 영공수호 산실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해 왔다.

더욱이 '97년도부터는 건군 이래 3군 사관학교 최초로 여자 사관생도를 선발함으로써 21세기 항공우주시대를 맞이하여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여성 군사전문가 육성·배출 계획을 세우는 등 새로운 응비의 기틀을 다져가고 있다.



▲ 어학실습 교육



▲ 항공 체력단련



▲ 일반군사학 교육

공군사관학교는 지(智)·덕(德)·체(體), 및 합리적 사고능력을 겸비하고 부대 지휘능력을 갖춘 공군의 정예 초급장교를 양성하여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조국 영공수호에 대한 확고한 보장과 항공우주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는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숭고한 교훈 아래 생도의 일반학 교육, 체육, 군사훈련, 정신교육, 인성 및 덕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공군사관학교는 오늘날과 같이 고도로 과학화되고 정밀화된 항공무기를 직접 조종, 운용, 관리하는 핵심요원을 교육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적 자질의 함양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사 생도들은 4년간의 생도생활 기간 동안, 1학년 교양 과정을 통해 인문사회 과학계통의 학문과 기초 응용과학 등 자연과학 계통의 교과목을 고르게 이수하며 2학년부턴 항공공학, 전자공학, 국제관계학 등의 9개 전공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전문교육을 받게 된다.

생도들은 일반학, 체육학, 군사학 이외에 일과후 자유시간과 매주 목요일 4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소양교육활동 시간을 이용해 개인의 정서함양을 위해 폭넓은 취미생활을 추구한다. 취미활동 모임으로는 학술부 8개반, 체육부 10개반, 예능부 15개반 등 3개 분야 총 33개반이 있다. 생도들은 취미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나 작품을 생도들의 축제인 성무제 행사를 통해 전시하거나 발표함으로써 하늘과 조국, 미래를 생각하는 순수한 마음을 작품으로 승화시킨다.

한편으로 생도들은 조종사가 되기 위해 재학 중 비행에 관해 친숙감과 자신감을 배양시키기 위한 관속비행, 항공적성 능력 함양을 위한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항공체력단련 및 항공생리 적응훈련을 순차적으로 받게 되며, 임관 후 초등·중등·고등 비행훈련을 거쳐 영예의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정예

부 · 대 · 탐 · 방

조종사로서 활약하게 된다.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공군 소위로 임관하는 졸업생들은 공군의 핵심 간부진으로 경력을 쌓아 나간다. 공군의 간부진은 한반도의 공중상황을 통제하고 전략·전술을 구사하는 최고의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90%에 이른다.

졸업생의 약 40%는 전투조종사로 근무한다. 이외에 졸업생의 약 30%가 수송기, 공격기 및 헬기의 조종사나 항법사로 근무한다. 따라서 졸업생의 약 70%가 공중 근무자로 활약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의 장교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공중 근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원하는 임무를 맡는다. 재학중 성적우수자는 해외 유학(미 공사) 기회와 해외 우방국 연수 기회를 부여하며, 임관 후 매년 선발을 통해 해외 유학 또는 국내 대학원(석·박사 학위과정)에 국비 위탁교육의 혜택과 임관 5년차에 한해 전역 기회를 부여한다.

한편 공군사관학교는 매년 전국민적 항공축제인 공군참모총장배 모형항공기대회와 행글라이딩 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하늘에 대한 꿈과 동경을 심어주며 국민들에게 항공사상을 앙양하고 국민과학기술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1979년에 처음 시작된 모형항공기 대회는 매해 5월 12,000여명의 선수 및 관람객들이 참석하는 국내 최대의 항공축제이다. 또한 한 해의 행글라이딩계를 결산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글라이딩 대회에서는 전국 각지의 활동인들이 참가하여 그 기량을 겨루고 있으며, 이는 항공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공군 및 공사에 대한 이해와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되고 있다.

공군사관학교는 국가의 간성을 양성하는 소임을 완수하고 명실공히 항공 우주 시대의 주역으로 웅비할 때까지, 지휘관을 중심으로 전장병 및 군무원이 '정예 사관생도 양성'이라는 주임무 수행에 전력을 다 할 것이다.



▲ 생도들의 과외활동



▲ T-41 초등비행훈련



▲ 금지한 증정식

공사 제49기 최초 여생도 탄생

- 5주간의 기본군사훈련('97. 1. 20~2. 22) -



▲ 선배들의 환영을 받으며... (가입교식 장면)



▲ 경례자세를 바로 잡아 주는 여훈육관.



▲ 긴장이 앞서지만, 나도 명사수. (사격훈련)



▲ 남자만 하느냐! (유격훈련)



▲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입교식 직후)



▲ 자랑스런 19명의 여생도 탄생!!

패기, 신념, 정열, 극복, 49기 화이팅!!



박 장 경
중령/공군사관학교 생도대

본 내용은 필자가 가입교 훈련 교육 대대 장으로서 훈련중 매일 기록한 일지를 요약 게재한 것임<편집자 주>

1997. 1. 20. (월) 맑음

내가 가입교를 한지 어언 20년이 지났다. 다행히 20년전 그 때만큼 춥지는 않다.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생도 2학년때 돌아가신 내 아버지와 대방동 성무대 정문에서 작별을 하고 시작된 지난 날의 수 많은 기억들이 하나도 잊혀지지 않은 채 되살아난다. 부모님들의 자식에 대한 기대어린 시선을 보면서 추위도 잊은 채 한참을 기다린다. 49기 사관생도는 여생도들이 입학함으로써 인해 내·외신 기자들이 벌써(?)처럼 모였다. 그들의 취재 경쟁속에서 가입교 생도들은 더욱 마음이 들떠 있는 것 같다. 아니 더욱 긴장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여학생들은 당연히 그러해야 하는 듯이 태연하고 카메라에도 체면 익숙한 듯한 태도를 보인다.

재교생들의 공사구호가 들려오고 드디어 군악대를 앞세우고 성무탑을 지나 부모님들을 뒤로 하고 재교생 사이를 행진해 간다. 눈시울을 적시는 부모님도 계신다. 그것을 보는 내 자신도 숙연해 진다. 이 발걸음을 보는 부모님도, 자녀들도 이제 사관학교를 입학하는 모습이 기쁘지만 앓은 것은 앞으로 있을 5주간의 기본 군사훈련을 잘 이겨내야 만하는 걱정과 또 자식들과 이별 아닌 이별을 해야하는 아픔이 엇갈리기 때문일 것이다. 교수부 314 강당에서 교육대대장이 중대장 소개를 시작으로 5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있는 대대장이라고 나를 소개하고 중대장들을 소개한다. 얼마나 그 말을 이해할 지 모르겠지만.....

식사를 하고 이발을 하고 전투복을 갈아 입고, 이 모든 것들에 카메라가 붙고 인터뷰도 하고 정말 바쁘게 하루가 간다. 잠자리에 누워서도 지난 20년전 오늘이 너무도 눈에 선하게 떠오른다.

에 든 후에 내가 누울 것이며, 매일 이렇게 일기도 가입교 생도들과 똑같이 써 나갈 것이다.

1. 21. (화) 맑음

영하 15도의 매서운 추위가 몰아친다. 바람까지 불어서 체감온도는 영하 25도가 넘는다고 한다. 귀가 떨어질 것 같은 새벽의 찬바람 속을 헤치며 힘차게 출근한다. 이 추위에 자식을 사관학교에 보내놓고 걱정이 많으실 부모님들의 심정이 절로 떠오른다. 처음 뛰는 아침 점호 구보가 그들이 추위를 느낄 틈을 주지 않는다. 내무지도들이 몰아치는 소리에 거의 반사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다. 1·2 중대 뒤에서 뛰다. 다행히 여학생들도 잘 따라간다. 그런데 3·4 중대는 초기에 속도를 좀 냈던 모양이다. 2중대뒤에서 뛰면서 1·2 중대를 보고 있던 잠깐 동안에, S 생도와 P 생도가 낙오했다. 예상했던 대로다. 몸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니까. 남학생도 1명 낙오했다. 처음이라 가볍게 뛰었지만 워낙 약한 상태이다. 구보 후 별관 옥상에서 3·4 중대 구보 인솔자들을 다시 교육시켰다.

오늘 아침부터 직각 보행에 직각 식사다. 긴장하고 해보지 안왔던 것들이어서 손발이 같이 움직이고, 밥을 먹기가 여간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 반찬을 먹을 생각은 아예 포기한 것 같다. 힘들 것이다. 5주간이 다 힘들지만 아마도 심리적으로 가장 어려운 기간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바뀌는 첫째주 일 것이다. 그리고 차차 적응해 감에 따라 심리적 어려움에서 육체적 어려움으

적은 극기심이다. 나를 이기는 힘을 길러 주는 것이다. 그러면 나를 이겨서 무엇을 얻고자 함인가 올바른, 즉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무리 나를 이기고 극기심이 있다해도 올바른 곳에 쓰여질 수 없는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둘째는 그러한 의로움을 어떻게 지켜나가고 완성시킬 것인가? 라는 내용을 준비한다. 그러나 두 가지만 강의한다. 마지막 세번째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어서 생략한다. 나중에 할 수 있으니까. 제법 눈이 초롱초롱하고 집중하는 애들이 있다. 물론 벌써 조는 사람도 있고…….

3·4 교시는 가입교식이다. 수석 입학한 최정진 생도가 선서한다. 제법 잘 한다. 5~8 교시는 개인소개를 한다. 처음 3~4명은 어찌할 줄 모르고 어정쩡하게 지나간다.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소신껏 재미나게 하는지 배를 잡았다. 이렇게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좋다고 소개를 시작하는 아이도 있다.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두명이 노래를 했는데 그 중 한 명이 여학생이다. 황윤지라고 이화여대를 다니다가 입학한 학생인데, 너무 긴장된다면서 '울릉 울릉 울릉되는 울릉도~'를 잠깐 부르고 몇마디 하다가 다시 '처녀 총각~'을 춤을 추면서 부른다. 모두들 즐거운 시간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1·2 중대만 하고 3·4 중대는 다음으로 미루었다.

1. 22. (수) 맑음

오늘은 사진 촬영과 학력평가다. 별로 부담이 되지 않는 일정이지만 예비생도들은 제일 힘든

일과가 시작된다. 내무지도들이 들볶으니까. 첫날은 훈련준비에 바쁘고, 둘째날 몰아칠 때는 아무 정신없이 뛰어다니지만 오늘 셋째날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할 것이다. 내가 왜 여기와서이고 생하는지, 이곳이 정말 내가 꿈에 그리던 사관학교이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곳인지? 등등. 아직 관동성명과 직각 보행, 직각 식사가 어색하다. 아마도 이것들이 모두 익숙해지는 금주말쯤이면 훈련에 탄력이 붙을 것이나,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극복하지 못하면 도태가 될 것이다. 모두가 잘 해주길 간절히 빌고 기도할 뿐이다.

아니나 다를까 중대장이 자퇴 의사를 밝히는 생도가 있다고 보고한다. S, K, C 학생이다. 내무지도, 대대 근무생도, 중대장, 내무교육대장 순으로 면담을 진행시키고 상담교수와도 면담을 하도록 한다. S학생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르며 K 생도는 혼자 계시는 친어머니를 부양해야 한다고, C 생도는 생활의 엄격함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받았다. 모두들 훈련은 견딜만 하다고 하지만, 힘든 훈련으로 인해 표출되는 갈등형태들의 일부라고 보여진다. 지도록과 면담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보고 내일을 준비한다.

1. 23. (목) 눈(25mm)

이제 3일밖에 지나지 않았고 최초 야외훈련인데 상황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한 말씀씩 조언을 하시니, 내가 중심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교육 전체의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일관성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소신있게 교육해 나가야 한다. 결국 열매는 가입교 생도들의 태도로 나타나기 때문이며 나

또한 무리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금함이 없이 훈련이 진행되도록 잘 감독해야겠다.

내가 사관학교로 보임한 이래 퇴교조치를 내릴 때가 가장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 부모님들을 대할 때면 더욱 그러하다. 왜 그렇게들 경솔한지, 부모님의 가슴에 평생 빼지 못 할 못을 밝는 일이 바로 퇴교시키는 일인 것 같다. 그런데 가입교를 시작하고서 채 1주일 안되어 벌써 학교를 나가겠다는 학생이 나오고 있으니 더욱 가슴 아프고, 그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며 합격하지 못한 학생을 생각하면 너무 아깝기도 하고, 어떻게든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데 그것이 잘 안되니 더욱 괴롭다. 내 품에 있을 때나 내 자식이니, 내 자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부모라는 말을 수십번 되뇌이며 위로한다. 일단 너무 생활을 모르는 상태에서 나온 성급한 결정으로 보고, 주말을 지내고 나면 좀 나아질지도 모르니까 각자 좀 더 신중히 생각해 보도록 하고 다음 주까지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 주말에는 훈련이 없으며 17비 견학도 있고, 피복가봉등 새로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일과로 계획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1. 25. (토) 맑음

오늘은 오전일과가 17비 견학이다. 비행단 견학이 가입교 기간 중에 계획된 것이 두번째이다. 교육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작년 가입교때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3개조로 나누어 비행대대, 야대, 비상대기실, 이착륙 장면 등을 돌아본다. Wing Take Off와 Low Pass를 본다. 비행기 좌석에도 올라가 보고 모두들 새로운 경험을 즐겨워 한다. 머지않아 자신도 그렇게 할 수 있음이 남의 일, 남의 경험처럼 보이지 않

는 모양이다. 39기생들이 차안에서 먹으라고 빵과 음료수를 실어준다. 전혀 남남이지만 단지 자신들의 대를 이을 10년 후배라는 사실이, 지금까지의 타인에서 곧바로 내가 돌보아 줘야 할 친동생처럼 변한다. 개개인의 느낌이 다르겠지만 훈련속에서 오랜 만에 찾을 수 있는 힘이 되고 앞날에 대한 기대와 희망에 더욱 용기를 가질 것이다.

저녁 점호후에 두더지 작전이 행해진다. 침구속을 거꾸로 들어가고 취침하는 것인데, 그 속에 빵과 우유를 숨겨두고 내무지도와 함께 내무실 회식의 기쁨을 처음 맛보게 하는 '작전'이다. 모두들 웃음이 돌고 즐거워한다. 여학생 내무실에 가서 빵을 다 먹지 못 할테니, 나에게 하나를 주고 나머지로 나눠 먹으라고 하니 절대 안된다고 한다. 그 모습이 너무나 절실하여 도리어 미안하다. 주말에만 맛볼 수 있는 것들이어서 다음 주말을 벌써 기다리게 될 것이며 이것이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어느새 자리잡게 될 것이다. 군인이, 생도가 되어 가는 것이다.

1. 29. (수) 맑음

가입교 예비생도 3명에 대한 퇴교가 결정됐다. 생도회관에서 C 아버님, H 어머님을 만나다. K는 어머님이 오실 수 있는 처지가 못되어 혼자서 가도록 했다. 모두들 침묵이다. 다같이 기쁨을 맛보고 일체감을 잠깐 동안이나마 느끼셨을 부모님들인데, 이렇게 또 다시 제일 먼저 낙오되는 자녀의 부모로서 같은 심정을 느끼고 이 시간 이후는 예전과 다름없이 완전히 공감대가 끊어진 남남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무도 눈을 마주치고 싶어하지도, 얘기를 꺼내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내가 한 명씩 돌아가며 용기를 북돋

아 준다. 너희들은 사회의 낙오자가 아니라 단지 사관학교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나갈 뿐이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짧은 기간 동안의 경험이지만 잊지 말고 힘들 때는 이때를 생각하고 잘 이겨내라고. 부모님께도 용기를 잃지 않도록 잘 돌보아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물론 내가 그러지 않아도 되고 그럴 필요도 자격도 없지만……. 3명의 뒷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내일 당장 후회할 일을 행한다는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다. 또다시 되돌아 가서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텐데, 이 훈련이 훨씬 쉬울텐데, 아쉬운 마음이 크다.

1. 31. (금) 눈발

오후에는 금주의 훈련을 마무리 짓는 구보가 있다. 이제 모두가 매주 금요일이면 구보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럭비구장을 5바퀴 돈다. 모두가 힘들지만 열심히 뛰다. 구보의 기쁨은 다 뛰고 나서 완주의 성취감에 있을 것이다. 모두들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이다.

2. 18. (화)

실제적 훈련은 종료된 셈이다. 완전군장 구보를 끝으로 이제부터는 입교식 준비 시간만 남아 있을 뿐이다. 기지병원 앞에서 아무래도 다리가 좋지 않아 보이는 C 생도를 구급차에 억지로 태운다. 본인은 너무도 야속했나 보다. 마지막 구보라 전 재교생들이 성무탑에서 명예광장까지 도열을 하고 있다. 성무탑 직전에 구급차를 세워 C 생도를 보니 영영 울고 있다. 뭘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그 정성이 가늠하여 다시 내려 뛰게 한다. 다리가 심하게 아픈 모양이지만 천천히 뛰다. 도열을 해산하지 말 것을 전파하며 마

지막 1명이 남아 있음을 알린다. 모두의 격려와 박수 속에 끝까지 완주한다. 나중에 알고 보니 4학년에 형이 있는 생도였다. 형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뛰려고 했으며, 그 모습을 본 형은 나서서 부축할 수도 없는 입장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한다. 동생을 뛰게 한 것이 잘 된 일인것 같아 마음 흐뭇하다. 한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완주한다. 짐포장에서의 그 함성소리가 그들의 보람을 대변한다.

2. 20. (목)

내무검사를 실시하고 생도생활을 시작함에 있어 다가올 생도대는 더 이상 환상으로 다가오지 않음을 교육한다.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움을 주지시킨다. 삶은 고통이며, 나를 위해 준비된 미래는 고통의 포장으로 내게 다가움을 역설한다. 그 포장이 너무 고통스러워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 속의 선물은 결코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그 고통을 받을 때 그 속의 선물을 가질 수 있으며 내게 준비된 미래를 가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눈물을 흘리는 학생도 있다. 생도가 되기전에는 막연히 멋있는 생도를 꿈꾸어 왔지만, 이제는 엄연한 생도로서 그 멋을 지켜나가야 함이 쉽지만 않을 것이며 멋을 지키기 위한 고통을 받아 들여야 함을 이해시킨다. 내무/훈련 지도에 대한 환상 또한 깨뜨려야 할 환상임을 주지시킨다.

별관에서의 마지막 밤을 아쉬워하고 내무실원과의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밤이다. 내일이면 생도대로 들어가고 가입교 대대본부도 정리를 해야될 시간이다. 힘들었지만 허전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나보다.

2. 22. (토) 맑음. 따뜻

다행이 포근하다. 대부분 행사가 야외행사인데 추우면 어찌해야 할까하고 걱정했는데 다행이다. 많이들 오셨다. 입교식을 거행하고 성무문화관에서 간단히 인사말을 한다. 다친 것에 대한 넓은신 아량을 구하고 뒷처리와 쓰레기 문제, 화기사용 유의 등을 안내한다. 메추리 관습 이양식 후 연변장은 순식간에 기쁨과 눈물의 바다로 변한다. 20년 전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어찌 할 수 없는데 그 감동을 지금 처음 겪는 생도들이야, 부모님들이야 오죽하랴. 감동을 주체하기가 힘들어서 금방 들어온다.

면회장소로 이동하는 생도들을 보며 내 동생, 내 자식 같은 생각이 들어 오히려 자꾸만 눈물이 내려한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때로 뛰쳐나가고 싶기도 했겠지만 잘 참아냈구나. 누구 소매를 붙잡고 나 이렇게 힘들었고, 나 이렇게 고생했고 하며 위로 받으려 하지 말아라. 우리들만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들만의 비밀로 간직하자. 5주간의 체험이 생도생활 4년의 초석이 될 것이며 앞으로의 삶에 대들보가 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한 뜻을 가지는 동료로서 웃으면서 우리의 훈련을 얘기할 수 있으니, 지나간 고통의 나날들이 오늘 이 순간 아름답고 즐거운 추억으로 변할 수 있음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4년후 졸업식날 다시 한번 다같이 '폐기, 신념, 정열, 극복, 49기 야!'를 외쳐보자. **등근**

49기 여자 사관생도를 맞이하며



한 기 정
대위/공군사관학교 생도대

가입교 훈련도 끝나고 이제 곧 졸업식이다.

5주라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에, 나 또한 49기 신입생도와 같이 내 나름대로의 훈련을 받은 느낌이다. 험뎅거리고 땀흘리며 훈련을 받는 그들을 보면서 7년 가까이 되는 나의 군생활을 돌이켜 보았고, 지금 이 시간이 남아있는 나의 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다.

그렇다.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현재 나는 대위로 있다. 이것은 흔히들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공군으로의 전군(轉軍)은 지나온 7년과 앞으로의 남아있는 삶에 있어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시발점이라 생각된다.

첫번째라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런 면에 있어서 나 또한 자랑스러우면서도 부담감이 없지 않았다. 공군에서의 간호 특기를 제외한 첫번째 일반 특기 여군장교! 이 호칭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개척하느냐에 따라서 내 뒤를 따라올 여군장교들

(현 여생도를 포함)의 미래에 대한 투시도가 그려진다고 해도 과장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더욱 49기 여생도들은 그 존재의 의미가 깊으며, 그들 또한 첫 여자 사관출신 장교라는 위치에서 오는 명예와 묵직한 책임감 및 부담을 느끼리라 생각한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이들을 4년동안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시켜 공군이 원하는 장교로 배출하느냐는 것이다. 그런 면에 있어 나는 이들에게 여자생도이기에 앞서 공군사관학교 49기 생도라는 소속감을 우선적으로 심어주고 싶다. 19명의 여생도 별도가 아닌 49기 208명중의 일원으로서 남자생도가 느끼는 고민이나 생각, 내무생활 등을 똑같이 경험하여 임관 후 장교로서의 기본 자질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나 자신이 경험한 군생활에서 느낀 것은 여군의 희소가치로 인한 주위의 지나친 관심으로 자신들에 대해 특별한 대우를 원하며, 남자장교와 동등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각자 갖고 있는 능



▲ 제49기 사관생도 입교식 장면

력을 십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 이것은 군(軍)에서 여군이 정착하는 데 있어 크나큰 장애가 아닐 수 없다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그릇된 사고를 지양하고 동일하게 선·후배, 또는 동기간으로서 생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훈육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엄격한 훈육만이 만사는 아니다. 때론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할 줄 알며, 경우에 따라서는 어머니·언니가 될 수 있고 군대의 선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여자이기 때문에 느끼는 고민들을 들어주고, 최대한 그것을 같이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동반자로서의 훈육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엄격하면서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훈육관! 항상 옆에서 같이 걸어가 는 훈육관! 이것이 생도들이 필요로 하는 훈육관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22.2:1의 경쟁률을 뚫고 입교했다는 것은 나머지 떨어진 지원자들의 뒤편까지 짊어지고 책임감있게 생활해야 한다는 얘기다. 장교는 그냥 만 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4년 동안의 땀방울과 자

신과의 피나는 투쟁으로 뭉쳐진 결실인 것이다. 내가 49기 여생도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그들이 입교전에 다졌던 그 각오와 다짐을 다시금 떠올리라는 것이다. 생도생활의 모든 것이 자신의 입맛에 맞추어 진행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억울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또한 군생활에서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다. 항상 “쉽게 얻은 것은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을 명심하여, 편한 것을 찾기 보다는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는 의지를 다시금 되새기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49기 생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부럽다”라는 것이다. 내가 보지 못했던 모든 것을 여러분은 생도생활에서 느끼고 고민하고 즐거워 하리란 것과, 208명의 49기 동기들이 있다는 것이 부러운 것이다. 이것은 생도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이자 평생의 소중한 재산이라는 것을 49기 생도 모두가 느끼길 바라는 바이다.

49기 사관생도 화이팅! **등문**

가입교 훈련을 마치고

박 민 규
1학년/공군사관학교



내가 이곳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된 동기를 지금 생각해 보면 다른 동기생들보다 그리 특별나지는 않은 것 같다. 단지 고등학교 2학년 때 작은 꿈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공군사관학교를 지원하게 된 것이다. 작은 꿈, 그것은 공군사관학교의 생도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 바로 하늘에 대한 동경이었다. 그러한 막연한 동경이, 때로는 영화 속에서 전투기를 타고 날아다니는 주인공을 보고, 때로는 하늘에 회색 선을 긋는 실제 전투기를 보며 하늘을 무대로 이상을 펼치는 그들을 부러워하였다. 그래서 전투 조종사 양성을 주임무로 하는 공군의 요람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할 결심을 다지게 되었고, 수험 기간 내내 이곳에 알맞은 적성을 기르기 위해 내 나름대로 땀을 흘리고 각고의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수학능력 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성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원하던 공군사관학교의 합격 통지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에 사관학교 올 결심을 세우기

전까지 많은 갈등을 해야만 했다. 왜냐하면 공군사관학교가 일반 대학과는 다른 군대의 성격을 띠고 있고, 가입교를 비롯한 생도대의 모든 생활이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주위 분들의 조언을 통해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꿈이 있기에, 하늘에 대한 청운의 뜻이 있기에 힘들게 얻은 기회를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입교를 결심하게 되었고, 힘들었던 나의 가입교는 두려움과 설레임 속에 시작되었다.

나의 가입교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다. 체력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입교 훈련에서 체력이 약한 나는 낙오를 하기 일쑤였으며, 그때 마다 훈련 지도 생도들의 차고 매서운 질타가 있었다. 거듭되는 훈련과 설움을 주지 않는 일과 속에서 나의 정신력과 체력은 며칠만에 바닥을 드러냈으며, 따뜻한 나의 가정이 그리워 잠 못 이루고 남몰래 훌쩍일 때도 있었고 가슴속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곱씹은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 이런 약한 마음에 사관생도

로의 길을 포기하려는 마음까지 먹게 되었다.

그러나, 고된 훈련 속에서 나와 함께 거친 숨을 몰아쉬며 비오듯 땀을 흘리는 동기생들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나는 뜨겁게 벽차오르는 가슴을 느낄 수 있었다. 주위에 사고고락을 같이 하고자 하는 수많은 동료가 서 있고, 이들은 내가 흘리는 땀방울과 눈물의 의미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 뒤로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된 동기생의 전투복에서 풍겨나오는 땀냄새는 나와 동기생이 함께 한다는 자신감이었으며, 어떠한 어려운 훈련 속에서도 동기생들과의 담소는 피로를 풀기에 충분하였다. 그렇게 어렵게 끝마친 가입교 훈련을 이제 어엿한 사관생도-비록 아직은 메추리지만-로서 바라보았을 때, 내게 던져 주는 가입교의 커다란 의미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가입교 훈련 속에서 나는 이곳 성무대의 언덕에서 거듭 태어나게 되었다.

가입교 훈련은 첫째로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던 철부지가 가족을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며,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청년으로 변하게 만들었다.

둘째로 가치관의 커다란 변화를 겪게 했다. 나에게 기대고 의존적이던 한 개인을 사관생도로서 자존심과 자신감, 인내심을 갖게 했다.

그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 앞에서는 솔직해지는 자존심, 어렵고 힘든 훈련을 극복해 내면서 얻은 성취감과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명예를 소중히 여기며 어떠한 불의의 힘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인내심을 나는 가입교 훈련을 통해서 얻었다.

이제 생각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가입교의 예비 생도에서, 대한민국 공군의 사관생도

로서 다시 한 번 성무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물론, 인고의 과정 끝에 이룬 것이라서 더욱 더 기쁘고 값지게 생각된다. 또한 나와 내 동기생들은 49기의 뜻 깊은 2001년 졸업과 임관을 하여 '21세기 공군 장교상을 새로 확립할 기수'라는 점에서 큰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나와 49기 동기생들은 아직 이곳 공군사관학교에서 가장 밑바닥인 1학년 메추리에 불과하다. 이곳을 지나간 수많은 선배님들의 경험과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 메추리 생활, 더 나아가서 생도대 생활 4년간의 어려움을 안다. 입교 후에 곧바로 내가 동경했던 생도생활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다. 인간 관계에서부터 학업에 이르기까지는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그러나, 숲을 볼 줄 아는 마음,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의 먼발치 끝을 보면 그 어느 곳보다도 밝고 보람찬 미래가 보이기 쉽사리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나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부모님, 친지들, 은사들이 나를 위해 기울인 노력을 생각하면 그분들의 기대를 쉽게 저버리는 약한 나의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시련도 절대로 미리 겁먹을 필요 없다.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힘들었던 가입교 훈련도 이제는 동기생들과 나 사이에 재미난 추억으로 간직되듯, 생도대에서 있었던 어려움도 언젠가 뒤돌아본다면 영원히 간직하고픈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이제 우리 메추리들의 본격적인 생도대 생활이 시작되었다. 선배들이 "메추리!"하고 부르는 소리를 언젠가는 미소를 지으며 회상할 날을 생각해 보며, 내가 원하던 이상적인 생도상의 실현을 위해 부지런한 노력을 다짐한다. **등교**

우리에게 꿈이 있다!

한 정 원
1학년/공군사관학교



사관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다짐한 것이 있다.

“예전의 나를 잊자!”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던, 그런 불규칙한 생활을 했던 나 자신에 대한 기억과, 이 곳에 오기 전에 느껴야 했던 내가 두고 온 것들에 대한 아쉬운 감정을 잊고자 했다. 그러나 이런 다짐은 하루하루 짝 짝 여진 바쁜 일과 속에서 저절로 실현되어 갔다.

5주 동안의 가입교 훈련 기간은 나에게 있어서 그리 만만하지는 않았다. 틈날 때마다 해야 했던 체력단력, 어디를 가든 발맞춰 뛰어야 했던 구보, 똑같은 시간에 기상, 밥 먹고, 훈련받고, 씻고, 잠자리에 들고,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생활…….

매 순간마다 고통과 피로를 느끼며 시간의 더듬에 두려워하면서도 어느덧 잠자리에 누워 있

고, 그러다 보면 일주일이 지나가고…….

“고통은 순간이다. 우리에게 꿈이 있다.” 우리 중대 모토였다.

‘맞는 말이지…….’ 하고 그냥 흘려 듣던 문구.

하지만 가입교 훈련 5주 동안 그 의미가 점점 깊이 내 가슴속에 각인되었으며, 내가 힘들 때마다 다 분발할 수 있게 해주던 문구였다.

2주가 지나기도 전에 난 환자부대(일명 ‘전파’)의 슬픔을 겪어야만 했다. 사관학교에 발을 들여놓기 전 “난 강하다”며 자부했던 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을 느껴야 했다. 남들이 땀 흘리며 구보를 땀 때, 뒤에서 그들의 뒷모습만 쳐다보며 추위에 떨며 서 있어야 했던 나약한 내 모습…….

왜 그리도 서글프던지.

훈련 때 느꼈던 육체적 피로보다 더 큰 고통과



▲ 힘들 때마다 내게 용기를 준 동기들(단독군장 구보 훈련 모습)

두려움을 느껴야 했다. 사관학교에 들어온 동기도 잇은 채, 방황했던 시기이다.

그러다 단독군장 구보를 완주하고 나서야 비로소 나 자신을 추스릴 수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느꼈던 나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실망감이 결코 헤어날 수 없는 절망이 아닌, 현재 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또 앞으로 더 잘해낼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서게 해 주었던 기회가 되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이미 가입교 5주는 아쉬운 과거의 시간이 되어 있었다. 이곳에서의 겨울도 끝나가고 있다.

5주 동안의 가입교 훈련을 유난히 추운 바람과 함께 시작한 49기 동기생들!

이제는 전투모에 까만 털이 날리는 귀마개를 했던 예비생도 메추리가 아닌, 칼같이 다림질한 근무복을 입고 학과공부를 하는 멋진 1학년 생도가 되었다.

그러나 진짜 훈련은 이제 시작이다.

생도대에서의 생활은 어찌면 또 다시 나를 힘들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5주 동안 가입교 훈련을 견뎌낸 그 정신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사관생도가 될 것이다. **등근**

10년만에 한번 기회 MIG기 포착 내가 먼저



박 효 성
소령/항공사업단 방공사업처

고도의 첨단기술을 응용한 항공무기 체계와 지휘통제 체계를 사용하는 현대전에서 개진초 공군력에 의하여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며, 방공 지휘 통제체계 마비시 효율적인 군사작전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최근의 걸프전에서 입증된 바 있다.

1950년대 말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컴퓨터를 이용한 반자동화 방공체계인 SAGE(Semi Automatic Ground Environment)를 구축 운영하였고, 또 한편 조기경보기의 본격적인 개발도 제2차 세계대전 종료 직후인 1945년 말에 미국에서 시작되었는데, 현재는 자유진영 국가 중 20개국 이상이 자동화 방공체제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우리 공군도 변화하는 작전환경과 기술발전을 수용하여 30여년간 운영해온 수동 방공체제를 '85년도에 자동화함으로써 공중감시, 항적식별, 무기운영 및 요격관제의 방공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도의 컴퓨터 장비를 무중단 운

영함으로써 첨단기술을 축적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첨단무기 체계를 확보하는 방안에도 주력하고 있는 바 완벽한 조기경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움직이는 방공지휘 통제체계인 조기경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5월 23일 북한 공군 조종사 이철수 대위가 MIG-19기를 몰고 북방 한계선을 넘어 서해안을 거쳐 귀순 할 때도, 우리의 자동화 방공 체제에 의한 철통같은 공중감시와 조기포착 및 요격관제로 완벽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실로 10년만에 있는 실제 공중 귀순작전이었지만 현재 북한체제의 붕괴상태를 볼 때, 공중을 통한 제2·제3의 귀순상황이 없으리란 보장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방공통제 체제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들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한 우리의 방공망은 물샷틈이 없고, 제2·제3의 공중작전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여기서, 비록 중공 항공기의 귀순작전이었지만 10여년 전을 회상하며, 우리의 자동화 방공 체제에 의한 완벽한 방공작전이었던 1986년 10월 24일 일어난 중공 MIG-19기(조종사 : 정채전) 귀순작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14:38 King Star : JM.W Hard Starboard 270.

JM.W : Steady 270 W.

14:39 King Star : BN.S Starboard 260.

BN.S : Rogaer Starboard 260.

BN.S : Staeady 260 S.

King Star : JM.W Now Hot Divert for Bandit

King Star : JM.W Set Speed .85.

JM.W : Roger Speed .85.

14:40 King Star : JM.W Bandit 270/45.

JM.W : Roger.

King Star : JM.W Set Speed Vmax9.

JM.W : Roger VmaxP Gate Now.

King Star : W Descend Angel 15.5.

King Star : W Ammo Hot.

JM.W : Roger Ammo Hot.

King Star : W Bandit 270/35 Tracking East.

:

1986년 10월 24일 오후 12시30분, 맑고 푸른 가을 하늘을 보며 오후 근무 상하반을 위해 브리핑을 마치고 작전실로 향했다.

어느 근무교대 때와 같이 하번자들의 작전임

무 신송으로 작전실 내에는 군데군데 통제사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나의 임무는 수도권 공중전투초계가 맡겨졌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에 각각 한 편대씩 전투기가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작전임무 콘솔의 이상유무와 임무 항공기의 고도, 속도, 무장상태, 통신망, 잔여 임무 가능시간 등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0분대기 개념으로 실시하고 있는 수도권 공중전투 초계임무의 중요함을 생각하며 조종사와 무선교신 상태를 확인하였다.

○○기지와 ○○기지에서 이륙한 2F-5E/F, 2F-4E 항공기가 체공중이었는데, 각각 HOT-I 과 HOT-II 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조종사에게 임무지역의 기상상태를 문의하니, 임무지역에는 고고도 3만피트 정도에 얇은 구름이 끼어 있으며 이외의 지역은 맑은 상태라고 보고하였다.

콘솔에는 아주 많은 항적들이 시현되고 있었으며, 의외로 북한지역에는 가끔 한 두개 정도의 항적만이 포착될 뿐 거의 비행활동이 없는 상태이고, 중국의 싼똥반도 쪽에는 제법 많은 항적 활동이 있었다.

13:00경 수원과 예천에서 이륙한 새로운 편대가 임무교대를 실시하여, 임무가 끝난 항공기를 귀환 주파수로 넘기고 새로 임무에 투입된 항공기에 고도, 속도, 방위, 무장 상태 등을 지시하고 지속적인 공중감시를 해가며 수도권 공중전투초계임무를 수행하였다. 계속해서 북한의 비행활동은 없었으며, 중국쪽에서의 비행활동은 여전하였다.

시간이 흘러 체공중인 항공기의 연료가 거의 소모되어 14:00경 ○○비행장에서 이륙한 2F-5E인 JM.W(지미 위스키)와 ○○비행장에서

이륙한 2F-5A인 BN.S(베이컨 시에라)가 임무 교대를 하였다.

JM.W는 HOT-I 지역에서 고도 19,500피트, 속도 SAUNTER로, BN.S는 HOT-II 지역에서 고도 21,500피트, 속도 SAUNTER로 무장은 SAFE상태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HEADING 270°, 90°로 수평비행을 계속하면서 각 편대별로 자체적 기동훈련을 병행하고 있는지, JM.W는 NO.1과 NO.2가 편대를 잘 유지하는데, BN.S는 NO.1과 NO.2가 가끔씩 분리되기도 하였다.

14:38 연료잔량을 확인하니, JM.W는 24이고, BN.S는 22였다.

14:39 JM.W가 HEADING 090로 비행하고 있는데 백령도 남서쪽 50NM정도에서 이상한 물체가 포착되어, 실제 항적인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어 JM.W의 HEADING을 270로 HARD TURN지시를 하였다.

두번 플라이트 나타나고 세번째 플라이트 나오는 것을 보고 선임무기배정장교인 이소령에게 “이상한 항적이 있어서 JM.W를 투입하겠습니다.” 동시에 선임무기배정장교는 공중 감시수쪽을 향해 “잡어”라고 소리쳤다.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의해 작전실 내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모든 작전요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지휘부에서도 상황 파악과 전술조치를 위해 TCD, SD도 바쁘게 움직였다.

공중감시수에 의해 항적이 설정되고, 미식별 항적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항적에 대한 고도, 속도, 진행방향 등의 컴퓨터 자료들이 콘솔에 전시되기 시작했다.

미식별항적은 고도 12,500피트, 속도 560KNOT, HEADING 095로 한반도 영공을

향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JM.W를 고도 15,500피트로 강하시키고, 속도를 증속시켜 .85 — VmaxP까지 지시하고, 무장을 HOT 상태로 지시하는 한편, 미식별항적에 대한 CROSSING정보(W Bandit 270/35 Tracking East)를 제공한 후 BN.S에게 실제상황임을 통보하고 임무지역을 HOT-I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니, BN.S는 연료가 부족하여 작전투입에 불가능하고 귀환하겠다고 답변하여 귀환주파수로 넘겼다.

상황이 시작되면서부터 지휘부에서는 즉각적인 전술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모든 일반 임무 항공기를 기지로 귀환시키고, 전술조치가 가능한 채공전력을 투입하는 한편 각기지에 대기하고 있는 비상대기 항공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JM.W와 미식별항공기와 거리는 점차 좁혀들어 25NM까지 접근되고, 작전실 내는 더욱 긴장이 고조 되었다.

“JM.W BANDIT 270/20” “ONE STRAGER CONTACT 5 RIGHT 18”
“ROGER CONTACT TARGET”

JM.W가 18NM 접근한 상태에서 항공기레이다로 미식별기를 포착한 것이었다.

“JM.W NOW 15MILE” “ROGER”
“KING STAR JM.W NOW CONTACT LOST”

미식별기와 10MILE 접근한 상태에서 JM.W 항공기레이다에서 사라진 것이었다.

“JM.W BANDIT DEAD AHEAD 8MILE” “ROGER” “JM.W RECHECK AMMO HOT” “ROGER COMPLITE” “JM.W 적대대비, 적대대비” “ROGER 적대대비”

만약의 경우 미식별기가 적대행위를 할 경우 교전을 해도 좋다는 내용을 JM.W에게 통보하였다.

“JM.W BANDIT DEAD AHEAD 5MILE” “ROGER”

5MILE까지 접근하였는데도 미식별기를 육안으로 포착하지 못하길래 바짝바짝 입술이 타들어 가는 것 같았다.

순간 JM.W부터 “TALLY HO RDR STAND-BY 왼쪽으로 지나간다. HARD LEFT”

정면으로 접근하던 미식별기가 왼쪽으로 스쳐 지나가는 순간, JM.W가 육안으로 미식별기를 포착하고 급기동으로 미식별기의 후미로 접근하는 순간이었다.

그때의 시간이 14:43분 미식별기가 레이더에 최초 포착된지 불과 4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우리의 영공을 침입하는 미식별기를 요격기가 육안으로 확인한 것이었다.

지휘부에서 미식별기의 기종을 확인하여 보고 하라고 지시가 하달되고 JM.W 조종사에게 “미식별기 기종이 확인되니까?”하고 물으니, “속도가 많아서 접근이 안되고 있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자유를 찾아 최대의 속도를 다해서 비행하는

미식별기에게 가까이 접근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던 것이었다.

“ONE MIG-19, ONE MIG-19 중공, 지금 WING ROCKING하고 있어요.”

미식별기의 기종은 MIG-19이고, 현대이며, 국적은 중공, 그리고 귀순의사를 밝히는 날개를 좌우로 흔들고 있다는 JM.W 조종사의 보고였다.

위 사실을 선임무기배정장교에게 보고하고, 귀순기로 지속적인 요격기 투입이 계속되어, JM.W NO.1은 귀순기 바로 가까이에서 귀순기와 수화로 “내가 유도할테니 따라오라”는 의사소통을 하고 NO.2는 만약의 경우 적대행위를 대비해서 3,000피트 후방에서 무장발사 준비를 완료한 상태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요격에 들어온 후속 편대들이 속속 목표기에 접근하여, F-4E 2편대, F-5E/F 3편대가 주변을 비행하고 있었다.

JM.W 조종사에게 귀순기를 현위치에서 가장 근접한 수원기지로 유도할 것과 연료확인을 지시하니, 연료는 충분하다고 보고 하였다.

귀순기는 요격기들의 안전한 유도를 받으며, 수원기지를 향해서 비행을 하고 있는데, 지휘부로부터 귀순기를 청주기지로 유도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었다.

“JM.W KING STAR 귀순기를 청주로 유도하세요.” “ROGER W”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수원기지로 유도할 경우에는 수도권지역에 민방공 경보를 발령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주기지로 변경하였다고 한다.

JM.W 조종사에게 청주기지의 기상상태 및 관제타워 주파수를 통보하였다.

“ KING STAR LEAVING YOUR FREQUENCY FOR CONTACT 청주 TOWER”

“ JM.W CLEARED LEAVING MAINTAIN VFR”

JM.W의 RADIO가 일단은 청주TOWER로 넘어간 상태에서 새로운 작전상황이 전개되었다.

긴급출동한 16개 편대가 초계비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서해상공에 다시 미식별항적이 포착된 것이었다.

미루어 짐작컨데 귀순기를 추격하는 중공의 요격기인 것 같았다. 작전실은 다시금 긴박한 순간이 계속 전개 되었다.

추격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지점에 있는 수원 기지에서 이륙한 2F-5E를 투입하여 추격기의 영공침투에 대비하였다.

추격기는 계속 동진하여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우리 요격기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들어 25NM까지 접근하였다. 여차하면 정말 공중전에 돌입해야 할 상황까지 간 것이다.

순간 15NM까지 접근하던 추격기는 기수를 남으로 돌려 비행하기 시작하고, 우리 요격기는 대등거리를 유지하며 같이 남쪽으로 비행하였다.

약 30NM정도 남쪽으로 비행하던 추격기는 기수를 서쪽으로 돌려 중공쪽으로 비행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요격기는 현지점에서 선회비행을 하며 초계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한편 청주기지로 유도된 귀순기는 우리의 JM.W에 의해 무사히 안착하였다는 보고가 청주기지로부터 전해왔다.

실제 작전임무로 부산하게 움직이던 작전실은 모든 작전요원들의 합성으로 우렁차게 울렸다.

이렇게 중공의 MIG-19 귀순기 유도작전은 성공리에 막을 내리게 되었다.

본인은 1983년 소위로 임관하여 ○○○에서 방공무기통제장교 교육훈련을 수료하고, 처음 배속을 받은 곳이 ○○○ SITE 선임관제사였는데, 처음 제주도 SITE 작전실에 들어가니 “10년만에 한번 기회 MIG포착 내가 먼저”였다.

정말 어려운 근무여건 속에서도 24시간 조국의 영공을 부릅뜬 두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우리의 방공무기통제사들이 진정한 하늘의 불침번이라는 생각이 든다.

본인은 개인 건강사정으로 1987년 보급특기로 전환하여, 사천기지, 군산기지를 거쳐 현재는 항공사업단 방공사업처 조기경보과에서 군수계획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보다 나은 우리나라의 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 한편으로 뿌듯함을 느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조국영공의 방공망을 감시하고 있는 많은 장병들에게 격려와 찬사의 박수를 보낸다. **등론**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이 희 호

5급/군수사령부 40보급창



대구 산격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지났다. 처음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원봉사가 어떤 것일까 하는 단순한 호기심과 일상의 짜투리 시간을 좀더 유익하게 보내고 싶어서 였다. 여러가지 하고 싶은 여가활동도 많았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내가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끌렸다. 내게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경험 삼아 몇 개월간이라도 해보야겠다는 생각으로 부담없이 복지관을 찾았다. 낮에는 직장에 매인 몸이라 야간에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선택해야 했다. 담당 사회복지사와의 면담 끝에 결정한 활동 영역은 성인 한글교실이였다. 무슨 일이든 처음이 다 그렇듯이 나 또한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조심조심 교실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20대 청년에서부터 60이 훨씬 넘어 보이는 할머니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십여 명이 멧쩍게 들

어서는 나를 그저 멀뚱하니 쳐다보며 앉아있었다. 나는 먼저 "안녕하세요?"하며 웃어보였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시뻘잖았다. 활동 기간동안 친절과 열정으로 최선을 다하겠노라는 내 의지는 예상치 못했던 썰렁함에 받은 꺾여지는 느낌이었다. 후에 안 일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봉사자들의 교체가 잦았던 탓으로 그들에 대한 신뢰감이 많이 실추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선생님과 학생간의 관계가 그저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 이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아마도 봉사자로부터 진득하고 푸근한 정이 우러나오기를 바랬던 모양이다.

학생들과의 서먹함은 꽤 오래 갔으므로 그 분위기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어렵게 시작한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결석이 잦았고 재미를 붙이지 못하는 듯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에는 반 이상이 결석을 하였고, 나는 용기와 의욕을 상실한 채 '왜 내가 이렇게 용기 없고 의지

가 약한 사람들에게 나의 귀중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건가, 이건 시간낭비가 아닌가?’하는 갈등에 괴로워했다. ‘봉사활동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만만치 않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때쯤이었다. ‘그래도 마음먹고 시작한 일이나 6개월은 해내야 명목이 서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나는 학생들과 친해질 수 있는 방안을 골똘히 궁리해내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학생 개개인과의 면담이었다. 특별히 틀에 짜여진 상담이 아니라 자연스레 인사를 나누며 집안 이야기며 한글 공부를 배우게 된 동기들을 물으면서 들어주었고, 결석하는 날엔 전화해서 안부를 전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꼭 나올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마흔 후반의 한 학생이 들려준 직장 생활의 힘든 경험에 관한 이야기는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 분은 직장에서 동료들과 회식이 있는 날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한다. 집에서 먼 거리에 있는 곳에 회식장소가 정해지면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의존해야 했다. 문맹자였기 때문에 버스 코스나 이정표를 알지 못해서 자녀들이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주고, 회식이 끝날 때쯤에 자녀들을 기다렸다가 같이 집으로 가곤 했다는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복잡하고 전문화되어 가는 사회에서 근 50년을 눈 먼 봉사나 다름없이 살아왔으니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을까? 이 경우 말고도 학생들의 이야기는 눈물 나도록 사연도 많고 한도 많았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갈등과 고민, 답답함에 공감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아낌없이 투자하리라는 야무진 다짐들을 다시 하게 되었다.

배움에 한이 맺혀 목말라 하는 그들을 위해 열

심히 수업 준비를 하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관심을 가져주면서 그들과 나는 이웃사촌처럼 편하고 친해졌다. 함께 한글을 가르치는 동료 자원봉사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만둘 때는 학생들이 걱정되고 안타까웠다. 그리고 잘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자원봉사를 해 줄 것을 부탁하고 권유하여 이 봉사활동에 동참시켰다. 우리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보다 나은 수업을 위한 상의도 하고 인간적인 친분도 돈독히 해나갔다.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봉사자도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수업을 빠뜨리는 일 없이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오히려 봉사활동에 대한 당위성을 이야기하곤 해서 흐뭇하기가 그지 없다.

학생들도 출석률이 매우 높아졌다. 별다른 이유 없이 결석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한번씩 전화를 하면서 그 다음 날에는 나오도록 개별적인 관심을 가져주었다. 또한 결석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 담당 사회복지사와 의논하여 3개월동안 출석률이 양호하고 근면한 학생에게 성실상을,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우수상 표창을 수여하였는데 예상대로 효과가 있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는 영세민이나 노인들에게는 수강료를 무료로 한 반면 일반인들에게는 한분기에 2만원 정도를 받도록 하였는데, 이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땀땀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책임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 모두가 공감을 하였다. 또 학생과 봉사자 상호간에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봄과 가을에 각각 한번씩 김밥과 음료수를 준비하여 야외 나들이를 하는가 하면 학생들의 소속감 형성을 위해 반장, 부반장, 총무, 서기 등으로 전원을 간부화하여 협동적인 팀워크를 유지토록 하였더니 매사에 열성적이고 협조적으로 되어 운영이 잘 되었다. 지난 해에는

학습 의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유행가 가사를 이용해보기도 하였다. 노인들이 읽기 좋게 글자를 크게 복사하여 수업을 마치기 전에 한두 곡조씩 배우게 한 후, 그 다음 날 복지관 앞 가요방에서 실전에 임하도록 했더니 한글 학습에 좋은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성적이 향상된 몇몇 사람들에게 운전면허 시험 응시를 권유하기도 하였다. 물론 안타깝게도 두번씩이나 낙방을 하였지만 그들은 배우겠다는 강한 집념으로 재도전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운전면허 획득쯤이야 시간이 문제지 멀지 않은 날에 합격하리란 것을 우린 모두 확신하고 있다.

금년 한글날에는 복지관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주·야간 학생들 모두와 봉사자 전원이 한자리에 모여 지금까지 공부한 것을 발표하게 한 것이다. 중년의 한 아주머니는 열심히 공부를 하여 군에 간 아들에게 성실히 군 복무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편지를 적어 왔었고, 또 어떤 이는 평생에 한 번이라도 자기의 이름과 주소를 혼자서 써보는 것이 소원이었다는데 복지관과 고마운 선생님들 덕분에 성취하게 되었다며 눈물나도록 감사하다는 편지를 낭독하기도 하였다. 남편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자신이 경리역할을 거뜬히 해낸다는 자신감 넘치는 사례, 난생 처음 상장 한번 받아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통제하기조차 벅찰 정도의 감개무량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한 아주머니의 사례, 서정주의 '국화 옆에서'란 시를 자작시로 개작해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살이에 비유하면서 문맹을 탈피하기 위해서 노력해온 과정을 읊은 내용……. 어느 사연 하나 감동스럽지 않은 이야기가 없었다.

우리 한글교실은 마치 한 가족 같은 화기애



한 학습 분위기로 공부를 하며, 수업이 있는 날에는 교탁 위에 정성스럽게 마련한 음료수 한 잔이 올려져 있을 만큼 나를 끔찍이도 위해준다. 물론 나 역시 퇴근 후의 바쁜 시간을 할애하지만 워낙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다보니 권태감도 피곤함도 느낄 여지가 없다.

내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데에는 나의 아내와 자식들의 공로도 크다. 아내가 만약 어느 사람들처럼 늦은 귀가 시간 때문에 바가지라도 굶었더라면 봉사활동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이다.

가끔 학생들이 고맙다는 인사말로 농담삼아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 남편은 나에게 의식주를 해결해 주지만, 이 선생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낚시 방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다.'라고 말이다. 비록 과장된 인사말이라는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나는 기쁘다. 이러한 기쁨과 보람, 그리고 활동을 통한 삶의 재충전, 자원봉사 활동이 내게 안겨주는 보답이 아닐까 싶다.

산격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만난 사람들은 내 생이 다할 때까지 잊지 못할 소중한 사람들이다. 오늘도 머리가 희끗희끗한 학생들을 만나러 가는 내 발걸음은 가볍고 흥겹기만 하다.

안전의식과 안보의식은 근본이 같다.

정 두 진

준위/제30방공관제단 화학지원대



I. 서론

우리는 보통 국가방위를 말하는 안보와 일상 생활에서 위험요소 방지를 위해 강조하는 안전을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전의식과 안보의식은 양자 모두 확률이 아주 낮은 가능성에 대비하여 인력이나 돈 같은 비용을 들인다는 맥락에서 보면 서로 상통된다고 할 것이다. 안보의 대상은 국가와 국민이요, 안전의 대상은 개개인이지만 안전의식이 약하다 보면 안보의식도 약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고 또는 안보상의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보다는 적기 때문에, 안전과 안보를 강조하는 사람들의 소리는 무심코 한귀로 흘려버리고 무시하기 쉽상이지만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도 당연한 일일 것이다.

또한 안전이나 안보 두가지 모두가 작은 일부

터 대비하여 큰 것을 막는다는 것에서는 같은 것이기도 하다.

중국 진(秦)나라 시황제(始皇帝)시대의 법가 사상가(法家思想家)인 한비자(韓非子)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천장(千丈)의 제방도 개미구멍 하나로 무너진다'라고. 그래서 무슨 일이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지혜로운 일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에 일어난 대형사고 사례를 예로 들어서(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지금 우리의 안전의식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우리의 안전의식 일반

● 「빨리 빨리」 병

길거리에 나가보자. 사람들은 모두 앞만 보고 서둘러서 가고 옆사람의 어깨를 치고서도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 할 겨를도 없이 바쁘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서도 뛰어 올라가고 뛰어서 내려오며, 건널목에서 또 푸른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길 중간쯤에 가 있다. 왜이리 모두 바빠까? 이러면서도 민방공 훈련을 할 때는 경보 사이렌이 울리는 데도 느긋하기만 하다. 뛰어서 대피하는 사람을 거의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외국에 나가서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식당에서는 밥 빨리 달라고 독촉해서 5분 만에 먹어치우고 담배도 30초만에 피워버린다. 그래서 외국의 장사꾼들이 한국의 관광객을 부를 때는 이렇게 부른다고 한다. "Hey 빨리빨리 Come on in." 이라고.

물론 빨리해서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다. 잠은 빨리 자고 빨리 일어나야 좋고, 학교나 직장에는 일찍 출근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일을 빨리 처리하고자 하는 욕심때문에 서두르다 보면 나쁜 일이 더 많다. 서두르는 사람 지갑놓고 장보러 가고, 성질급한 사람 술값 먼저 낸다.

차를 과속하면 사고가 나고 건축공사를 빨리 하면 부실이 된다. 이렇게 빨리빨리만 해서 빨리 먹다가 체해서 쓰러지고 무너진 증세가 대형 사고로 나타났으니 그러한 것들이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과 그 이전에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 아시아나 항공기 추락, 아현동 가스기지 폭발, 대구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서해 페리호 침몰 등의 대형 사고들이었다. 더욱 안타까운 일은 사고 당시마다 타인의 불행에 가슴 아파했고, 이제는 우리도 한차원 높은 안전의식을 가다듬을 때

라고 다짐했던 사람들도 지금은 모두 다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잊어버리는 것도 빨리빨리 한다. 왜일까? 그것이 나와 내가족의 불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면 오래 기억하고 반성하기엔 머리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지금 우리의 생각들도 패스트 푸드처럼 인스턴트화 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 안전의식 불감증

삼풍 백화점이 붕괴되었을 때 어느 외국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한강다리를 건너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면 죽을 확률이 99%"라고 비꼬았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 하는 말이다.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도 우리의 안전에 대한 수준이 이리하므로, 우리 스스로의 안전의식의 현장을 몇가지만 솔직하게 짚어 보기로 한다.

○ 이기주의의 교통문화

해마다 교통안전 캠페인 기간이 되면 영업용 택시나 개인차량 등에 「너도 양보 나도 양보」, 「먼저 인사합시다」 등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닌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어 502명이 사망하고 1,500여명이 다치는 초대형 안전사고가 났던 1995년 한해에만도 어린이만 78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만 3천여명이 부상을 당했다. 자신만의 편의와 이익을 위해서는 질서와 양보는 증발하고 타인의 권리마저도 침해한다.

차라리 현실이 이러하다면 「너도 양보 나도 양보」라는 구호는 「너는 양보 나는 새치기」로 바꾸고, 또 「먼저 인사합시다」는 「먼저 실례합니다」라고 바꾸면 어떨까. 이것이 현재 우리의 교통문화의 현장이다.



○ 국민 안전의식 조사결과

과학기술 정책 관련 연구소가 '96년 7월에 발표한 한국인 안전 의식조사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질문(조사) 항목	그렇다는 대답
1. 자기 지역사회에서 안전을 위협할 만한 곳이 있으면 해당 관청에 알린다.	직장인 45%, 주부 40%, 학생 15%
2. 공사장에 안전시설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그저 우회하여 돌아가기만 한다.	50%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나타내는 것은 자신의 이해득실에는 극도로 민감한 반면 타인의 위험에는 매우 둔감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전 불감증이 빨리 고쳐져야 만이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우리의 삶이 위협받는 일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2. 삼풍 백화점 붕괴에서의 안전의식

우리의 안전의식 수준은 경제와 교육수준에 비해 매우 낮은 것 만은 틀림이 없다.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푸대접 받고 미움받기가 일쑤이고, 일반 기업체에도 안전관리 전담관은 보기 드물며 있더라도 책임만 지고 권한은 없는 위태로운 자리라서 오래 있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안전에 투자하는 노력과 비용은 그것을 아껴서 발생하게 될 손해보다 훨씬 낫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와의 전쟁에 그만한 돈은 쓸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안전에 투자하는 것에 인색했던 삼풍백화점은 붕괴되고 난 후 그 피해액만도 4,00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만약 평시에 피해액의 1백분의 1인 40억원만 안전에 투자했다더라도 4,000억원이라는 손실은 없었을 것이고 502명이라는 많은

아까운 목숨들도 희생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전의식은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인간 생존과 생활에 필요한 물, 공기, 음식, 화폐처럼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가의 안보의식 만큼이나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온 것 같다. 그럼 먼저 삼풍백화점 붕괴 당시의 피해내용을 간략히 도표로서 살펴보고, 삼풍백화점 붕괴원인과 사고통제 과정에서 도출된 안전문제들을 잠깐 언급하기로 한다.

○ 건물개요

○ 인명피해 내용

사고발생일시	건물규모	건축에 소요된 기간	붕괴에 소요된 시간	복구에 소요된 기간
'95.6.29. 17:50	지상5층, 지하4층, 연면적 22,000㎡	약 3년	10초	2개월

○ 구조 및 발굴내용

사망	부상	실종	총계
502명	중상:709명, 경상:228명, 계:937명	31명	1,470명

● 붕괴 원인으로서는 안전

동원된 연인원/장비	자원봉사	진재처리	차량파손	물품피해	최장매물기록
89,071/ 9,604	24개단체 /6,000여명	36,400t	310대	869건	박승현(여, 19세) 15일 17시간

○ 백화점 경영주측의 안전의식 둔감증

백화점측은 사고 발생 20여일 이전부터 위험을 감지하고 수차례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고발생 2시간 전에도 5층의 바닥이 20cm나 가라앉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진단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영업은 계속되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설마 지은지 10년밖에 안된 건물이 폭삭 내려앉기야 할까 라는 설마 심리에서 설마 설마 하다가 허망하게 그냥 10초만에 땅속으로 몽땅 가라앉아 버리고 만 것이었다. 그야말로 무지몽매에서 오는 안전의식 둔감증의 극치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제일 크고도 직접적인 원인이다.

- 건축의 부실공사
- 불량 자재의 사용과 공사 진행상의 부실
- 업계와 관료간의 유착관계
- 감리단계의 부실과 대중 눈감아 주기와 부조리의 관행

● 사고통제 과정상의 안전

- 총괄 지휘통제의 혼선

대형사고(재난)에 대응하는 것은 발생초기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인명구조가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지휘 체계가 전문적인 인원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은 신속하고 치밀해야 하며 종합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휘체계는 일관성 있고 단일 체계로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초기에는 소방, 경찰, 군의 지휘체계가 각각이었고 통제(처리)에 대한 의견의 혼선도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제일 중요한 인명구조와 매몰자의 안전문제에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각 분야의 활동사항 중에서 인명구조와 매몰자의 안전에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내용만 간추리면 아래의 표와 같다.

3. 외국의 안전의식

- 파리의 노트르담 사원을 보면 어느 부위는

구	활 동 사 항	내 용
지휘 및 통제	총괄 지휘통제의 전문성 및 체계성	지휘체계의 혼선과 비전문적인 대응
	가변적 상황에 대한 대응 및 안전조치	새로운 화재발생이나 추가 붕괴위험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안전조치 미흡
	대형 크레인, 특수 카메라, 음향탐지기 등의 구난장비 조기 사용 및 사용할 시기의 적절성 여부	사고 초기에 활용기회를 놓치고 뒤늦게 사용하여서 사용 효과가 적었음
구조 활동	재해지역 교통로 확보 및 인근주민 위무활동	사고 초기에는 전혀 손이 돌아가지 못했음
	구조요원 자신을 위한 안전작업 및 안전장구 등의 구비상태	구조요원은 대부분 자신의 안전은 도외시키고 생존자 구조만을 목적으로 활동함
경비 통제	구조대상에 대한 합리적 판단 및 구조 활동의 체계적 이행 상태	구조작업은 개인 또는 구조팀별로 판단하여 실행되었고, 각 팀과 팀간의 작업 인계 인수도 정확히 되지 못했음
	환자응급호송과 구조장비 출동에 필요한 교통로 확보여부	초기에는 위낙 무질서하여 경찰이 손도 대지 못함 2~3일 이후부터 질서유지
	매몰 현장에 출입하는 각 구조팀의 통제와 언론 종사자의 무작위 출입의 통제	구조팀의 출입은 전혀 통제되지 않고, 언론종사자도 구조 현장에 직접 출입함으로써 구조작업에 지장이 있었음
응급 구조	재해지역 통제선(Police Line)	사고 발생 4일째부터 Police Line 설치됨
	응급조치용 장비 및 기구의 구비상태(산소마스크, 간단한 수술도구, 응급 Set 등)	출동한 응급구조 팀은 응급 set만 갖추고 출동하였음
후방 지원 및 위생	각 구조요원에 대한 물자 지원 상태(수건, 장갑, 산소통, 방독 마스크, 전선로프, 렌턴, 음료수 등)	초기에는 일부 품목만 지급되다가 수일 이후부터 완전히 지급되었음(삼공물산의 방독마스크는 사고 당일부터 3일간 1,000개 이상 지원 되었음)
	화장실, 상수도, 구조요원 대기시설 등	매우 부족하고 불편한 상태였음



고딕형 건축이고 어느 부위는 르네상스식 건축으로서 서로 양식이 다르다. 착공해서 480년 동안이나 지었으니 건축양식이 다를수 밖에.

또 런던 브릿지도 110년동안이나 지었다. 그러기에 완성해 놓으면 폭격을 하거나 일부러 붕괴시키지 않고는 불멸, 불후의 구조물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건축물이 아무리 대형이라도 2~3년만에 후딱 짓고 10년만에 무너져 버리는 것과는 비교가 안되는 것이다.

● 미국의 예를 하나 더들면 듀폰사의 경우 「안전의식이 떨어지는 사람은 리더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 철칙이다. 안전사고를 내지 않느냐, 아니면 사업 실적을 올리느냐 둘중의 하나를 택하라면 누구나 안전사고를 내지 않는 쪽을 택한다. 「안전을 통해서 회사 이익을 남겨라. 사고로 1억원을 지출될 경우, 그 정도의 이익을 내려면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 안전이 바로 좋은 실적보다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이 회사의 방침이다. 그들은 또한 사무실에서 불펜하나라도 연필통에 꽃을 때 반드시 손잡이가 위로 가도록 꽃아야 한다. 뾰족한 불펜심에 찢리는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자는 것이다. 심지어 호치킥으로 눌러막는 침 하나를 제거할 때도 꼭 제침기로 뽑는다. 한국 사람이라면 그냥 손톱이나 칼끝으로 뽑아버릴 것이다. 작은 일을 불안정한 방법으로 하는 사람은 큰 일도 반드시 불안정한 방법으로 할 것이기에, 그것이 곧 대형 안전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일이고 언젠가는 자기 회사나 사회에 큰 손실을 입힐 수 있다는 위협의 가능성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절대로 중요한 직책에 앉히지 않는다.

4. 안보와 안전은 같은 것이다.

● 안보와 안전은 남의 일인가?(삼풍붕괴사고 1주기가 되어가는 '96.6.23. 조선일보에 게재된 유근일 칼럼의 내용을 부분 발췌한 것임)

○ 한국은 참 재미있는 나라다. 삼풍백화점같은 차 안에서 3D 업종을 마다하는 날라리들이 한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손으로는 옆사람과 에무를 하면서 시속 2백km로 음주운전을 하는 폭주족의 세계—그러면서 그들은 외친다. 「야, 신난다. 우린 선진국이다. 실컷 놀고 양껏마시고 밤새워 춤추고 카드 긁어 쇼핑도 왕창하자」

○ 국민소득 1만달러, OECD 가입, 세계의 중심국가, 해외 여행 급증, 소비의 고급화, 2002년 월드컵, 3D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적기가 넘어와도 경보 사이렌은 울리지도 들리지도 않아……. 가히 태평성대요 부자의 나라이다. 어디를 봐도 근신하고 절제하며 조심하는 기색은 없다.

○ 이렇듯 우리는 마치 전성기의 폼페이와도 같은 선진국이 다되었다는 기분에 들떠 있다. 이러한 때에 1년반이나 지난 삼풍백화점 사고나 안보에 대하여 말한다면 「안보? 설마 이 탈(脫)냉전 시대에 무슨 일이 날라고, 북의 경제력은 우리 규모의 5% 밖에 안되고 지금 한창 쫄쫄 굶고 있는데, 저희들이 무슨 수로? 경제?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다.

앞으로 21세기엔 동아시아의 경제대국이 된다. 지금 차없는 사람 어디 있으며, 먹자 거리엔 음식 잔반이 산더미처럼 쏟아지고 영양실조보다 도리어 비만이 골치거리인 시대다. 바야흐로 노라리 판과 소비의 시대다 등등.」

○ 그러나 정말 그렇기만 한가? 한보는 배부

른 쪽의 나태함에 비해 배고픈 쪽의 결사항전의 지가 어느모로 보든 위협적인데(그 증거로 최근의 일만해도 동해안 잠수함 간첩 침투사건을 보라), 현실은 불행히도 「안보 불감증」의 확산으로 우리 사회에서의 안보란 마치 「구시대의 남의 일」이지 「이 시대의 나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란 듯한 무관심이 풍미하고 있다.

○ 문제는 안보에만 있지는 않다. 우리의 삶터의 생명성 자체를 파괴하는 대형사고(재난)의 위험성이 대도시의 곳곳에 지뢰처럼 은폐되어 있는데도 우리가 이를 정서적으로 납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도 안보와 안전을 동일선상에서 생각하고 이 양자의 현실적 중요성과 그 심각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Ⅲ. 결론

이제까지 삼풍백화점 붕괴라는 대참사의 예를 들면서 우리의 안전문화의 수준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안전에 대하여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이다. 즉 쉬운 말로 「안전 의식」이라는 한마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첫째, 모든 일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실천하자.

모든 건축, 공사, 작업 등 인간의 모든 행동은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실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야구장 「후쿠오카 돐」은 지붕을 개폐

할 수 있게 설계한 첨단 구조물이다. 경기장이 가득찰 경우의 관객수는 5만 2천여명, 그때 지붕은 닫혔을 수도 있고 열렸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재해대책은 「지붕이 닫혀있고, 객석은 최대로 만원인데 이때 화재가 발생했다」라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수립된다.

둘째, 기준을 기준 그 자체대로 지키자.

과거 일본인이 지은 건물은 아직도 견재하고 앞으로도 지나온 세월만큼이나 지나도 견재할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 충무로에 있는 신세계 백화점 본점 건물은 1930년 10월에 준공했으나 67년이나 지난 지금도 금간곳 하나없고, 증축을 하고 싶어도 워낙이나 견고해서 공사를 하기 힘들다고 하며 벽에 구멍을 뚫으려고 드릴을 들이대면 철판을 뚫는 기분이 든다고 한다. 또한 슬라브의 강도는 m^2 당 390kg으로서 일반 건물의 300kg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이다. 이 건물이 이렇게 강한 것은 무슨 특별한 공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가장 고전적인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다. 즉, 건물을 지을 당시의 공법과 콘크리트 제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 뿐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준을 기준 그대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셋째, 안전은 질서를 지키는 데서 나온다.

금년 설 연휴 동안에도 많은 인원이 이동했다. 그러나 어김없이 일어나는 것은 교통사고였다. 금년에도 설 연휴동안 발생한 교통사고는 1천 8백여건, 91명 사망, 부상은 2천 3백여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각종 질서 위반 사범이 작년보다 무려 2.3배나 늘어난 4만 3천 7백명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고와 안전위해요소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넷째, 도덕적 감성지수를 높이자.

자꾸만 발생하는 대형 안전사고들의 그 밑바닥을 훑어보면 도덕성 결여라는 뿌리가 박혀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도덕 불감증에 걸려 있어, 서로가 다른 사람이 먼저 고쳐야 한다고 생각할 뿐 병이 자신의 잘못때문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너무 적다. 거짓말은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며 불로소득은 복이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세금 한푼 내지 않는 사람이 민주주의라는 명목하에 방탕한 생활을 하고, 젊음(신세대)이라는 미명으로 질서와 규율을 무시하면서 사는 것이 너무나 많이 눈에 보이니 올바르게 살고 싶고, 안전하게, 또 지키면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어찌 나만이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게도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화」와 「사회질서」를 상충된 것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이며, 젊음의 자유도 질서와 규율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은 너무나 명약관화한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대형 안전사고가 모두 남의 탓만이 아닌 내 탓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감성지수(MQ)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섯째, 인간생명에 기준을 두는 가치관을 다듬자.

우리도 GNP 수치로만 보면 분명히 1만달러를 넘었으니 이제는 선진국이요 곧이어 세계 10

대 경제 대국에도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선진국이란 제일 먼저 인간의 생명을 중시한다. 아파트 평수만 따지고 누가 어떤 승용차를 타느냐가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런 것들만이 선진국의 척도가 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 즉, 우선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추구하고 돈만을 위해 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부정직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기를 원하고 그 부정한 정신이 대형 안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때도 그랬다. 손님의 머리수를 돈으로 보다 보니 무너져 내릴 때까지 장사를 계속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제는 물질적 가치관, 외형적 가치관, 불안정한 가치관을 벗어 던지고 인간 생명에 중심을 두는 가치관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여섯째, 역사와 경험에서 교훈을 얻자.

지금까지의 많은 설명으로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안전이나 안보나 마찬가지로 역사와 경험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고방식의 경직성이다. 이것은 그저 어리석음일 뿐이며 진정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 아닐는지. 우리가 진정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처럼 땅 꺼질라 염려하고 하늘 무너질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가? 역사와 경험에서 교훈을 얻고 작은 일부터 대비하여 큰 것을 막는다는 의미에서는 안보와 안전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서 끝을 맺는다. **◆◆◆**

가정에서의 안전에 대하여

조 성 수

상사/공군본부 감찰감실



I. 서론

누구나 가정만큼 안전한 장소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고에 의한 사상자 총수의 약 1/3을 점할 만큼 가정에서의 사고는 대단히 많으며 그중에서도 어린이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이러한 가정에서의 안전사고 피해의 예방 및 대처방법중에서 추락·전락사고, 전기사고 예방법과 가정용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본다.

II. 추락·전락사고 예방법

미끄러지고, 걸려 넘어지고, 떨어지는 것은 가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고이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많이 발생하는 가정에서의 추락·전락사고는 가정이라고 하여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추락 및 전락사고의 예방에 대하여 기술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욕 실

- 욕실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매트를 깔아 두도록 한다.
- 로션·샴푸 등 세척용 액체가 떨어져 있으면 즉시 제거한다.
-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벽에 부착된 가로대나 욕조 한 부분을 잡고 이동하도록 한다.

계 단

- 계단에 손잡이를 설치하고 적절한 조명시설을 한다.
- 계단에서 시야를 차단하는 큰 부피의 짐을 옮기지 말아야 한다.
- 아이들이 계단 난간에 걸터 앉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

부엌

- 늘상 쓰는 주방용품은 손이 닿기 쉬운 곳에 정돈한다.



- 부엌 바닥재는 미끄러지지 않고 세척하기 쉬운 재질로 고른다.
- 금방 닦거나 왁스를 칠한 부엌 바닥을 곧바로 걷지 않도록 한다.

거실

- 거실은 가족 모두가 사용하는 공동의 장소인 만큼 항상 정리정돈을 말끔히 하도록 한다.
- 거실 바닥의 카페트, 전선 등에 끼이거나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 거실 가구 배치는 최소한으로 한다.

침실

- 이층침대의 안전대를 수시로 점검한다.
- 아이들이 이층침대에서 장난을 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 침실의 창문 가까이에 가구를 배치하지 않는다.

Ⅲ. 가정용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

가정에서 흔히 쓰는 도구로는 칼, 망치, 톱 등이 있다. 가정용 도구 사용시 별도의 공구셋트를 비치하여 알맞는 도구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다.

칼

- 칼로 물건을 자를 때는 먼저 주위를 살피고, 손을 베지 않도록 조심한다.
- 칼날이 무디면 사용시 무리하게 힘을 가하다가 베이기 쉬우므로, 칼날의 상태를 수시

로 점검하여 무디지 않게 한다.

- 칼·가위 등의 도구는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도록 보관함 또는 공구함에 넣어 잠금장치를 해 두거나, 어린이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톱

- 톱을 들고 다닐 때는 톱날부분이 지면을 향하도록 하여 보행한다.
- 톱질할 때에는 장갑을 착용하도록 하고, 손과 팔의 힘만으로 하지 말고 몸전체를 사용하여 톱질한다.
- 톱질이 끝날 무렵에는 톱질을 시작할 때와 같이 톱의 뿌리 부분으로 천천히 가볍게 톱질하고, 톱의 위치가 점차 수평이 되도록 자루를 낮춘다.

망치

- 콘크리트에 못을 박을 경우 못이 얼굴 등에 튕겨지지 않도록, 미리 드릴등으로 작은 구멍을 뚫거나 뱀치로 못을 꼭 잡고 망치질을 한다.
- 못을 박을 때는 망치면을 깨끗하고 평면이게 하고, 망치면의 중앙을 이용하여 수직으로 타격하여 망치나 못이 빗나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Ⅳ. 전기사고 예방법

전기는 우리에게 빛과 활력을 불어 넣어 주고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에너지이지만, 그 사용방법을 모르거나 부주의로 인하여 잘못 사용될 경우에는 곁잡을 수 없는 커다란 재앙을 불러오게 된다. 감전,

화재 등 가전에서의 전기 재해 예방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감전사고 예방

- 젖은 손이나 발로 전기 기기나 전선을 접촉하거나 밟지 않도록 한다.
- 전기기구의 수리 및 전구교체시 전원을 차단한다. 즉, 전기기구의 플러그를 빼어 놓는다.
- 어린이의 손이 쉽게 닿는 곳에 위치한 콘센트나 평소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는, 어린이들이 이물질들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덮개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다.
- 세탁기·냉장고·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은 접지를 함으로써 누전에 의한 감전사고를 예방한다.
- 누전차단기의 작동여부를 한달에 한 두번씩 확인하고, 작동하지 않을 경우 즉각 교체한다.
- 감전사고자를 발견하면 손을 대기에 앞서 전원을 먼저 차단한다. 감전사고 발생시 인공호흡, 심장마사지 등 초기 응급조치는 인명구조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다.
- 서툰 전기공사는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한다.

전기화재 예방

- 한 개의 콘센트에 전기·전열기구의 문어발식 접속사용을 금지한다.
- 각종 전기·전열기구의 사용후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
-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을 때 완전하게 접속되지 않으면 열이 발생한다. 특히, 파손되거나 접속이 헐거운 것은 새것으로 교체해 사용하도록 한다.



- 전열기구·조명기구 주위에 물질이 놓여 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보일러실이나 주방의 열이 많이 발생하는 곳 또는 가스관 주변에는 전기배선 및 전기기구 설치를 피한다.
- 퓨즈 대신 동선이나 철선을 사용하게 되면, 과전류나 합선시에는 끊어지지 않으므로 위험하다.
- 옥내 전기설비 용량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하면, 차단기 또는 배선에 열을 발생시켜 전기화재가 일어날 위험성이 높다.
- 전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전문가에게 의뢰한다.

V. 결론

가정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안전사항을 준수하며, 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을 미리 미리 점검하여 보는 것이 가정과 가족을 보호하는 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어른들이 평소에 위험요소를 살펴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최선책이다.

우리는 안전이 나의 생명을 지키고,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유지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다.

공민

봉황산(鳳凰山) 부석사(浮石寺) 기행

최 태 준

6급/군수사령부 수리창



단풍관광 여행지로 2주전부터 계획해온 부석사 출발을 위해 아내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 준비하고 있었다. 대구발 05:45 열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아침식사를 먹는중 마는중 하고 준비해둔 배낭을 매고 택시를 타고 동대구역에 도착하니, 등산차림의 손님들과 일반여행 손님들 등 대합실은 많은 사람들로 웅성거렸다.

개찰이 시작되자 역 홈에 내려오니 새벽바람이 차게 느껴져 몸이 움추러들었지만 열차안은 따뜻하였다.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나누는 정담이 조용한 열차내의 분위기를 한결 부드럽게 해주어 오랫동안 듣는 사랑방 얘기처럼 구수했다.

차창밖은 아직 어둠에 쌓여 있어 어디쯤인가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멀리서 비치는 서너개 썩의 전등불빛이 내 시야에 들어올 뿐이었다.

날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새벽녘에 열차가 몇 사람의 승객을 승하차 한 후에야 북 영천역임을 알았다.

화산(花山)과 신령(新寧)의 새벽 풍경은 고향과 같은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내 주었고, 산과 들과 강과 양육이 한데 어우러져 한폭의 거대한 동양화를 보는 듯해 업무에 찌들어 온 내 마음에 새로운 양식과 마음의 교양으로 다가서고 있었다.

열차가 갑티재의 봉림터널을 통과하자 수많은 감회가 교차되었다. 울긋불긋 단풍으로 둘러쳐진 산속마을은, 아침을 짓는 하얀 연기가 집집마다 모락모락 피어 올라 아침 대기속에 묻히고 있었다. 그 옛날 나의 시골 마을의 정겹던 그런 풍경이 나의 현실앞에 주마등처럼 실제의 영상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산에 무진장 깔려있는 깔비나 솟갑으로 밥을 짓거나 쇠죽을 끓이는 그런 연기였다. 연탄이나 석유는 낭비이다. 지천으로 깔린 땀감으로 난방까지 해결하는 것은 소박한 우리의 정서가 담긴 삶의 풍경이다.

화본역이 다가오자 나는 차창 너머를 열심히

바라본다. 무암동을 통과하고 운산동을, 그리고 윗청소와 화본역의 대명사격인 급수탑이 한눈에 들어왔다. 옛날 증기기관차가 중앙선을 달리던 시절은 거대한 급수탑과 기관고가 있어, 30m 가량의 두개의 굴뚝에선 줄곧 검은 연기를 하늘 높이 뿜아 올려 맑고 깨끗한 하늘을 덮었다. 특 급열차 또한 이곳에서 급수를 받기위해 반드시 정차하는 중요한 역이었다. 때문에 6·25 동란시는 대대병력과 미군 1개 중대도 이곳 급수탑을 보호하기 위해 주둔했던 것이다. 한때는 안동과 화본, 경주와 화본간의 통근열차 시발역이기도 했으나 지금은 초라해 보이기만 했고, 옛날의 그 화려한 명성은 간곳 없이 한적한 시골역으로 남아 있었다.

6:40분쯤 우보(友保)를 통과하면서부터 안개가 자욱히 끼기 시작하자 그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내 시야를 가렸다.

탐리 의성, 운산, 단촌, 무릉, 안동은 내 기억 속에 아직 생생이 남아 추억속에 옛모습 그대로였다. 날로 발전하는 도회지의 변화무상한 발전에 비해 우리의 농촌은 너무나 낙후되었다고 생각하니 안타깝기 그지 없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대 자연이 주는 혜택을 모른다.

철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농촌은 아름답다 못해 아담과 이브의 에덴동산과 같은 낙원이다. 한가롭고 여유있어 그렇고 평화롭고 풍요로워 그렇다. 때문에 내가 정년퇴직후 여건만 조성되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곳에 산과 들이 있고 강과 숲이 있고, 작은 언덕에는 종각이 높은 교회가 있고 아담하고 조그마한 학교와 웅기종기 모여사는 그 정다운 이웃사촌이 있었다.

추수가 끝난 동지선달 긴긴밤에 안방이나 사랑방에는 남정네끼리 부인들끼리 장작불 지펴놓은 따뜻한 방에서 오손도손 정담을 나누는 소리 들리는 듯하는, 예의바른 사람들의 긴밤 나누는 그들의 환한 모습이 보이는 듯 하다. 아침 햇살이 눈과 들녘에 조용히 내려 앉아 은백색의 서리가 더욱 아름답고, 산비탈 눈두렁이 구불구불 음양(陰陽)의 그늘이 주는 포물선은 더욱 아름다운 아침시간을 연출하고 있었다.

들녘에는 아직 못다 벤 벼들이 하얀 서리를 뒤집어 쓴채 주인의 손길을 기다렸고, 빨갭게 익은 사과가 탐스럽게 나를 유혹하여 잠시도 시선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안동을 지나면서 국보로 지정된 신세등 7층전탑이 눈앞에 들어왔다. 들녘에는 미처 수확하지 않은 고추가 말라버린 잎과리와 함께 버려져 있어, 고추 농산물의 가격 하락 시세로 수확을 포기하지 않았나 싶고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들리는듯 해서 안타깝기 그지없이 애가 났다. 이하, 웅천, 평은, 문수, 영주역까지는 많은 터널을 통과해야 했다.

37년전 쫓이던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 증기기관차를 타고 웅천 터널과 죽령 터널을 지날때마다, 차창으로 스며든 연기와 석탄재로 대부분 사람들은 흥역을 치루곤 했다. 기침소리와 함께 추운 한겨울에도 열차가 터널을 빠져 나오자마자 창문여는 소리가 일시에 들려왔다. 열차안의 자욱한 연기는 바깥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농촌의 시공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면 열차내는 잠잠해져 간다. 역마다 정차하는 완행열차는 시골손님을 몇사람씩 태우고 내려놓고는, 출발과 동시에 검은 연기를 하늘 위로 솟구치면

서 길고 짧은 기적소리를 내면서 숨가쁘게 달렸다.

당시만 해도 도로 교통이 발달하지 못해 친척 집이나 객지로 장을 보러 다닐 때는 주로 기차를 이용했기 때문에 열차는 항상 만원이었으며, 거기다 짐 붓다리는 선반 위나 통로까지 놓여 있어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어 사람 반 화물 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오늘은 이렇게 안락하고 편안한 열차에서 오랫동안 가을 풍경을 아내와 함께 즐기며 기차 여행을 한다는게 얼마나 다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진다.

영주역에 도착했다. 약 3시간의 열차 여행이었다. 낮설게만 느껴지는 영주역 광장에서의 산뜻한 아침거리는 금방 내 피부로부터 오는 여유로움으로 다가왔다. 대구에서부터 옆좌석에서 고향이야기며 시집살이 이야기를 이웃집 친구처럼, 동서끼리 처럼 다정한 이야기 꽃을 피우던 그 부인도 영주역에 함께 내렸다. 역대합실에서 부인의 아들이 승용차로 모친을 마중나와 나를 버스터미널까지 태워주었다. 고맙다는 짧은 인사를 나누고 터미널에 도착하자마자, 부석사행 시외버스를 탈 수 있어 한시도 지체할 틈도 없이 계속 연결된 여행코스였다.

버스안은 단풍계절이라 손님이 많은 편이었다. 물론 중간마을마다 손님이 내리고 탔지만 타는 손님보다는 내리는 손님이 더 많았다. 버스안에서 바라보는 소백산 국립공원은 솔의 푸른빛과 단풍의 빨간빛으로 나누어져, 아침 햇살의 맑은 공기속에 더욱 강렬히 내앞에 나타났다. 산아래로 연결되는 드문드문 옹기종기 모여 앉은 양옥과 한옥들이 숲 숲속에 모여 숨바꼭질을 하는

듯하다.

09:30분 봉황산 부석사에 도착했다. 울창한 숲과 계곡, 노랗게 변한 은행나무와 잣목 넘어로 웅장한 소백산이 장엄하게 감싸안고, 바람 한점 없는 맑고 투명한 아침공기가 아내와 나를 신선 의 세계로 인도해 줄 듯이 우리를 맞이해 주었다. 돌과 자갈로 잘 정돈된 관광통로 위에 노랗고 빨간 단풍이 예쁘게 깔린 길은 비단을 깔아놓은 듯 아름다웠다. 단풍을 밟으며 걷는 마음은 싱그럽고 상쾌했으며, 송진내와 더불어 밀려드는 흙냄새는 도심에서는 상상도 못한 지상낙원이며 천국이었다. 온몸과 마음이 고뇌하고, 찌들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을 깨끗이 씻겨주는 듯 하여 날아갈 듯 했다.

길가 중간 중간에 소백산 사과와 감, 그리고 이름모를 산초와 산열매들이 아무렇게나 진열된 채 시골아낙들의 손에서 손으로 팔리고 있었다. 아내는 승용차가 있었으며 저 사과 한상자를 사가지고 갈걸 하면서 몹시 탐을 내는 눈치였다.

길 아래쪽 여관과 식당가는 아직 조용했지만 손님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윗쪽 길가에서 좌판(坐板)으로 손님을 끌고있는 곳이 있었다. 바로 오댕국물에 동동주를 파는 간이 주점인 셈이다.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오댕국물에 동동주 한 사발이라 그 맛 참으로 기뻐차다. 한잔을 더 마시고 싶지만 아내가 말했다. 온 몸이 활력을 얻은 듯해서 기분이 매우 좋았다. 오르는 길가에서 은행잎과 단풍잎을 주제로 한 스냅사진과, 아내를 모델로 가을 풍경을 필름에 담으면서 부석사 입구에 닿았다.



필자는 여기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부석사를 잠시 소개한다.

이 사찰은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라 문무왕(文武王) 16년(676년) 해동(海東) 화엄종(華嚴宗)의 종조(宗祖)인 의상국사(義相國師)가 왕명으로 창건한 화엄종의 수사찰(首寺刹)이다. 1916년 해체 보수시 발견된 묵서명(墨書銘)에 의하면 고려초기 무량수전(無量壽殿)등을 중창하였으나, 공민왕(恭愍王) 7년(1358년) 전의 병화(兵火)를 당하여 우왕(禑王) 2년(1376년) 무량수전이 재건(再建)되고 우왕 3년(1377년) 조사당(租師當)이 재건되었다. 특히 무량수전은 우리나라 최고(最高)의 목조건물 중 하나이며 경내에는 신라 시대 유물인 무량수전앞 석등(石燈 : 국보제17호),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座像 : 보물 제220호), 삼층석탑(보물 제249호), 당간지주(幢竿支柱 : 보물 제255호), 석조기단 등이 있고 고려시대 유물인 무량수전(국보 제18호), 조사당(국보

제19호), 고려각판(刻板 : 보물 제735호), 원음국사비(圓融國師碑) 및 2기의 삼층석탑 등이 있다.

부석사 앞뜰은 공원처럼 평화로웠고 온통 노란 은행잎이 눈처럼 쌓여 관광객은 사진촬영에 열중이었다. 나와 아내는 마지막으로 대웅전 오른쪽의 부석(浮石)에 기대어 촬영을 마치고, 삼성각(三星閣)을 돌아 내려오면서 잔디밭에 앉아 집에서 준비해 온 점심을 대자연 속에서 먹었다. 찬은 김치와 멸치 볶음이지만 밥맛은 이 세상 어느 고급 음식맛보다 좋았다. 그곳에서 소백산 줄기를 따라 영풍군을 바라보면서, 담배 한대를 피워 물고 다음 여행지를 구상했다.

주차장에 내려오니 전국 각지의 차량들이 몰려들어 만원이었고, 도로 옆으로 관광버스와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다음 목적지는 회방사였다.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두번이나 갈아타야 했다. 우선 풍기로 가기 위해 버스

를 기다리며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가을을 즐겼다. 영주지방 시외버스는 잦은 편이었다. 풍기에 도착했다. 회방사행 버스는 자주 운행되지 않고 있었다. 10분만 일찍 왔으면 50분이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으로 촌노(村老)와 이야기를 했다.

주차장 바로 앞에 풍기 인삼시장이 있었다. 구경삼아 들렀더니 수많은 인삼이 쌓여 있었고 손님들도 많아 상거래는 제법 활발하였다. 일요일인데도 말이다. 나와 아내는 4년생 750g의 인삼 2만원 어치를 샀다. 술도 담그고 삼계탕용으로 쓰기 위해서였다.

약 50여분만에 풍기를 떠났다. 눈에 익은 잘 포장된 도로를 따라 회방사 입구에 도착했다. 약 30여분을 걸어서 올라가야 했다. 대부분은 승용차로 또는 관광버스로 여행은 사람들이라 걸어서 이길을 오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한참을 오르다 보니 넓은 주차장이 거기에 있었다. 계곡 오른쪽은 차도였고 왼쪽은 도보 코스인 등산로였다. 도보코스는 계곡을 끼고 계속 연결되면서 단풍과 어우러진 멋진 코스였다.

계곡은 거대한 바위와 자갈모래로 덮여 있고 맑은 물이 소리를 내며 흐르고 있었다. 무심코 지나쳐 버릴 수 없어, 소나무와 바위와 단풍과 대화를 주고 받으면서 걸었다. 낙엽 밟는 소리가 더욱 다정하고 반갑고 고마웠다. 오른쪽 차도에 길게 주차된 승용차를 타고 여행은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았다. 도심에서 차를 타고온 그들은 아스팔트 포장길에서 와서 아스팔트 포장 위에서 놀다 가지만, 이렇게 자연을 음미하면서 자연과 더불어 대화하면서 낙엽을 밟으며 여행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하고 아내에게 위로해 준다.

한참을 올라 회방계곡 휴게상가에 잠시머물 여유도 없이 회방폭포에 도착했다. 30여m의 물기둥이 시원스럽게 흘러 내려, 땀에 젖은 내마음과 육신을 씻어 주는 듯하여 마음이 상쾌했다. 잠시 쉬면서 여유로움을 즐겼다. 사람들은 촬영을 하면서 그곳에서 한 때를 즐기기도 했고 무심코 지나가기도 했다. 대체로 가물었던 가을이었지만 물줄기는 힘차고 시원스럽게 쏟아져 내렸다.

가파른 등산로를 따라 10여분쯤 후, 그곳에는 오늘의 제2목적지였던 회방사가 숲 사이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깊은 계곡과 숲으로 덮인 등산로로 햇볕을 보지 못했으나, 회방사에 와서야 맑고 밝은 햇볕을 구경하는 듯 해서 기뻐다.

내가 처음 생각했던 사찰만큼의 기대는 사라졌지만 조용한 산사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건물기둥과 석가래로 보아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대웅보전(大雄寶殿)과 부속건물이 그렸고, 극락교와 석탑은 고려 후기의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등산코스로는 이곳에서 연화봉과 비로봉으로 오르는 길목으로 여기서 약 한시간 삼십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극락교 입구에서 산사의 물 한 바가지를 마시고 하산하기 시작했다. 출출한 김에 집에서 갖고온 맥주를 계곡에 앉아, 맑은 물소리를 들으며 점심 때 먹다 남은 멸치를 안주로 삼아 마시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방사 계곡을 내려왔다. **등근**

서울 나들이를 다녀와서

장 영 의

제8145부대 상사 윤철영 부인



공군 하사관의 아내가 된지 어언 13년째…….
여느 가정주부와 같이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가계를 꾸려 나가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낸 것
같다.

말만 군인의 아내일 뿐이지, 기실 나는 군조직
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다. 물론 남편이 잘
얘기도 하지 않을 뿐더러, 나 또한 알고 싶지도
않았던 것은 나의 무관심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97년 1월초에 나에게 좋은 초청행사
가 있을 예정인데 다녀오겠냐고 남편에게서 연
락이 왔다. 난 그냥 평소대로 평범한 군행사에
구경이나 다녀오라고 하는 줄 알고 별로 생각이
없다고 하였는데 굳이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강
력하게 권유하여, '97년 1월 14일부터 1월 18일
까지 국방부가 후원하고 문화방송이 주최한 "전
방지역 근무 하사관 가족 초청행사"에 다녀오게
되었다.

얼떨떨한 분위기에 그냥 나섰지만, 막상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와서는, 새삼 금번 행사에

대한 느낌이 새록새록 되살아나 몇 자 적어 본
다.

육·해·공군 가족들이 처음 한자리에서 만났을
땐 너무도 어색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아이들까지 합해 모두
200여명의 많은 인원이었으나, 군인의 아내와
자녀답게 일사분란하게 행동했다. 전쟁기념관,
남산, 놀이동산, 자동차 회사, 방송국 견학, 청와
대 방문 등 바쁜 일정들의 연속이었다.

우선 군인들만 다니는 줄만 알았던 전쟁기념
관은 그 많은 자료와 규모에서 관람객들을 압도
했으며, 우리 나라의 숭한 전쟁의 역사와 숨결이
숨쉬고 있었고,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주기에 충분하여 여태껏 모르
고 지냈다는 것에 안타까웠다.

또한 김동진 국방부장관님과 거리감 없는 현
장에서의 만남은, 같이 갔던 내 아들 정호에게
커다란 영광과 감격이었던 모양이다. 기념품으
로 받았던 모자와 시계를 몇 번씩이나 만져보고



▲ 아들 정호와 함께 한강 고수부지에서…….

확인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며, 이번 행사의 취지에 동감이 가기 시작했다.

이곳 저곳을 오가며 바쁘게 진행되었던 행사 기간 중 가장 인상깊이 남는 행사는 역시 청와대 방문이었다. 평소 일반인은 접하기 어려웠던 곳이고 거리감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며 평범하지 않은 특별한 자리였음에는 틀림없었다. 숨막힐 듯한 적막감과 가슴 두근거리는 긴장감, 대통령을 뵈는 설렘이 어우러져 아이의 손만 꼭 잡고 있었던 영빈관에서의 풍경……. 지금도 그때의 감동이 문득문득 생각난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성스러운 사명이며 온 나라 국민 모두가 잇어서는 안될 국가의 큰 임무이나, 이를 직업으로 삼고 평생을 나라 지키는 일에 종사하는 부군을 보필하는 군가족들에게 격려와 치하를 아끼지 않으신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면서 뿌듯한 자부심과 용기를 느꼈던 기억이 난다.

아울러 MBC 방송국의 출연과 방청, 방송의 제작과정과 장비들을 둘러보며 느꼈던 일들……. 국내 유수의 기업체 및 산업체들의 생산현장 견학 등은 항상 획일적인 일상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세상과 활기찬 국가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었던 신선한 충격이었다.

마지막날 밤 난 자리에 누워 남편의 모습을 그려 보았다. 군인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는가? 군인인 남편이 너무도 멋있다. 4박 5일 동안의 행사를 통해 남편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되었으며 훌륭한 군인으로, 훌륭한 가장으로,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내조하는 군인의 아내로서의 막중한 역할을 느꼈다. 끝으로 이런 행사를 자주 실시하여 군가족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많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중문**

신나는 서울 구경

오 혜 란

제8217부대 상사 오평호 자녀



먼저 이 행사에 갈 수 있게 해 준 아빠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다.

만약 우리 아빠께서 군인이 아니셨다면 이 행사에 참가하지 못해서 언니, 오빠, 친구, 동생들을 못 사귀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빠께서 MBC 초청행사에 우리 가족이 선발되어 참석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우리 가족이 선발되었는지 궁금하여 아빠께 여쭙어 보니 모범가족이어서 선발되었다고 하셨다. 집에서 자랑스러운 아빠이시지만 부대에서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아빠 얼굴을 바라보니, 더욱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하고 계셨다.

전쟁기념관은 한국전쟁의 역사와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등의 군복을 비교해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우리 한국 군인들과 북한 군인들의 차이점도 볼 수 있었고, 그밖에 많은 전쟁 역사와 국군의 역사를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좋은 경험을 하였다.

MBC 방송국에서는 쇼, 로케 현장, 조명 설치 등 늘 생각 속에 담고 있던 궁금한 것을 알게 해주었다. 쌍둥이 빌딩의 LG 과학홀에 가서는 과학이 어떻게 발달했는지, 우리 몸의 세포의 구조, 석탄과 석



▶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엄마
 와 같이

유의 발견 등 평소 몰라서 궁금했던 것을 다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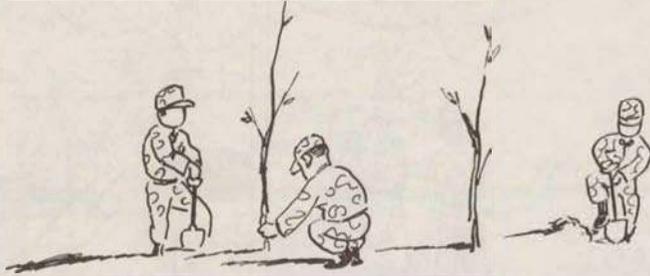
이러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되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서울 대공원에서 동물에 대한 신비를 가르쳐 주었으며, 드림랜드는 놀러간 것이 아니라 지친 우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난 것이 제일 기억에 남고 뜻깊었다. 대통령 할아버지께 선물을 받았고, 악수를 하고 기념 촬영도 하였으니 엄청난 영광이었다. 이 다음에 자라서 나도 영부인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착실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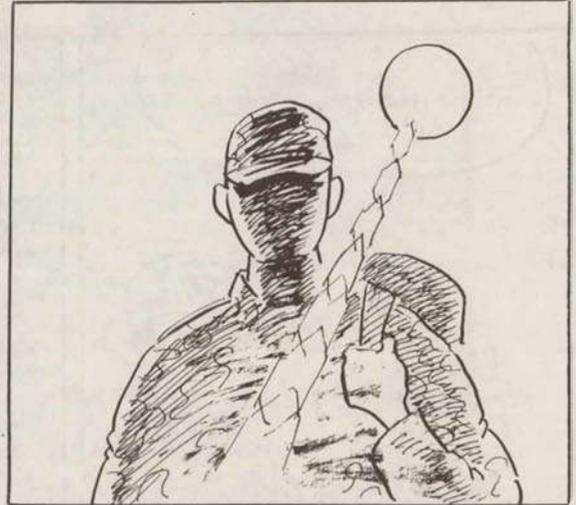
4박 5일 동안 정말 재미있고 신나는 여행이었다. 이번 행사는 우리들에게 아빠가 하시는 일을 알려 주었고, 아빠처럼 나라를 지키는데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재미있고 신나는 여행을 하게 해 주신 대통령 할아버지와 국방부장관님, 공군 참모총장님께도 감사를 드린다.

방학이 끝나면 더욱 자랑스러운 아빠를 우리 선생님에게도 자랑해야겠다. 앞으로 아빠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아빠처럼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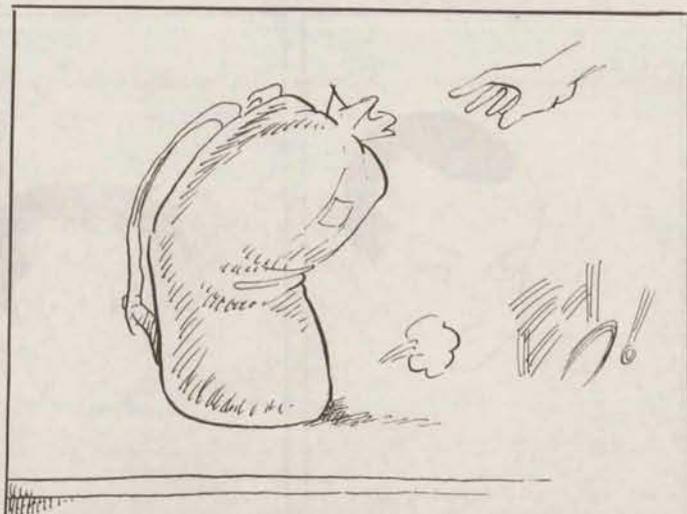
우리내무식은 세계일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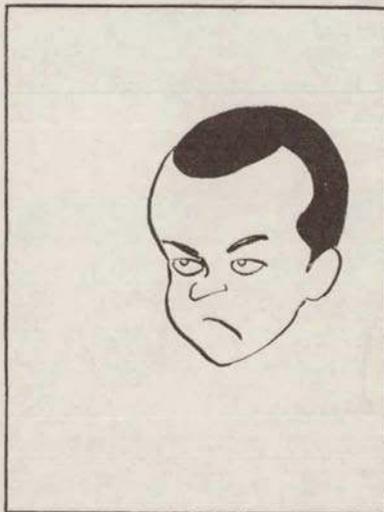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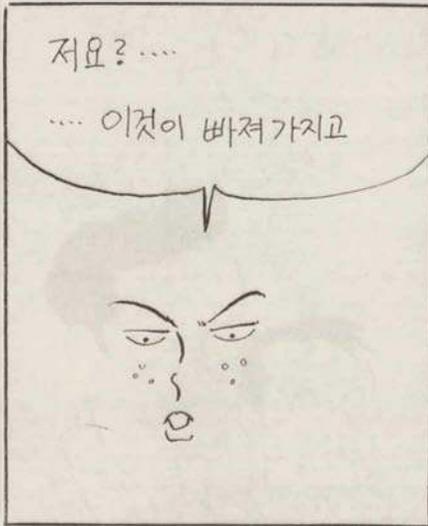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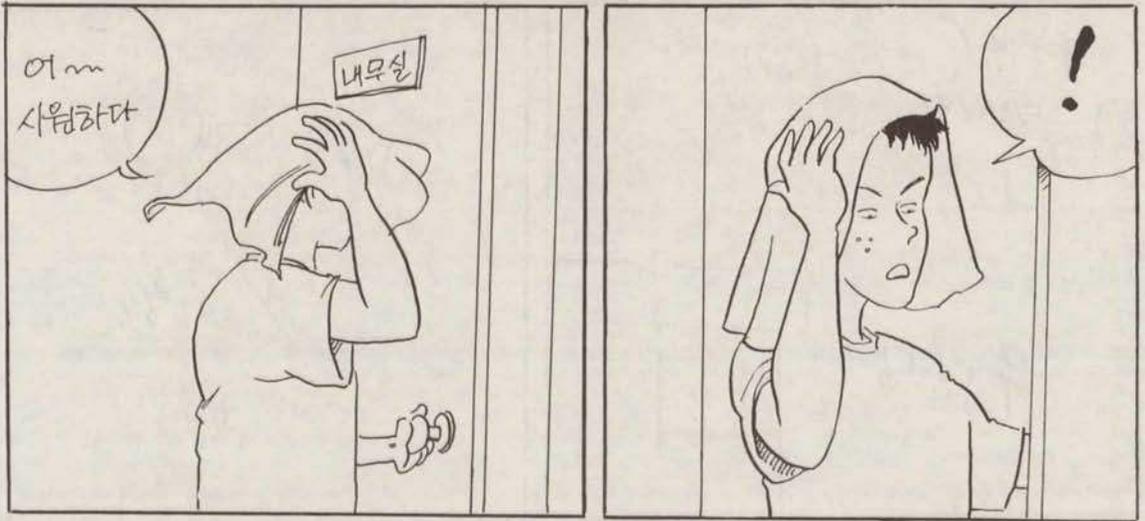
근석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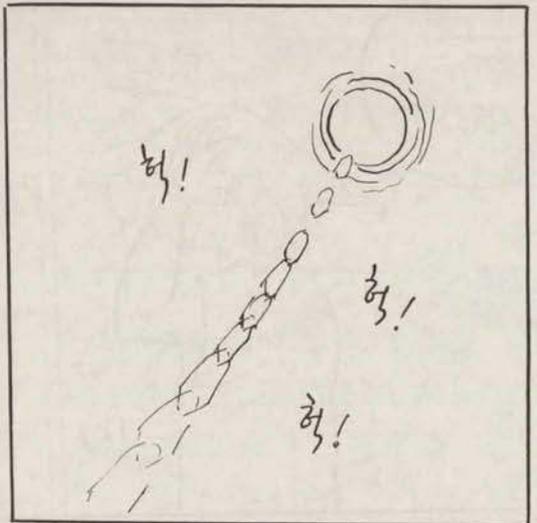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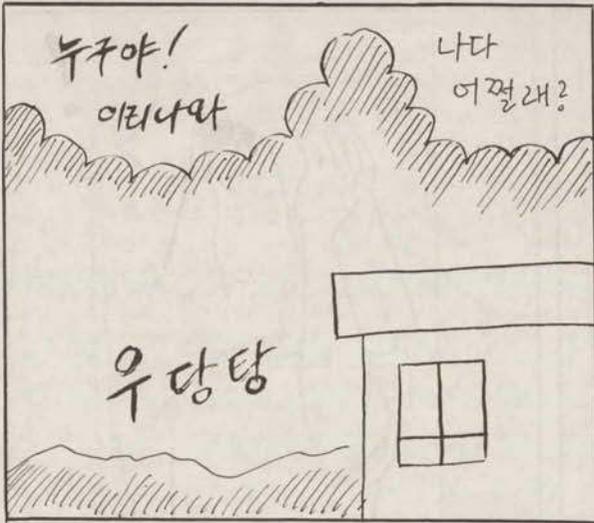












너희들 집안에는 너희들 보다
어린 삼촌이나 아저씨가 왔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 삼촌이 너희보다
어리다고 반말에 싸움질을
한다면



아마 너희 집안에서는
따돌림을 당할
것이다



준대가 계급사회이든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상사가 나이가 어리다고 부하사원이
이 같은 행동을 한다면 그 회사의 조직은
와해되고 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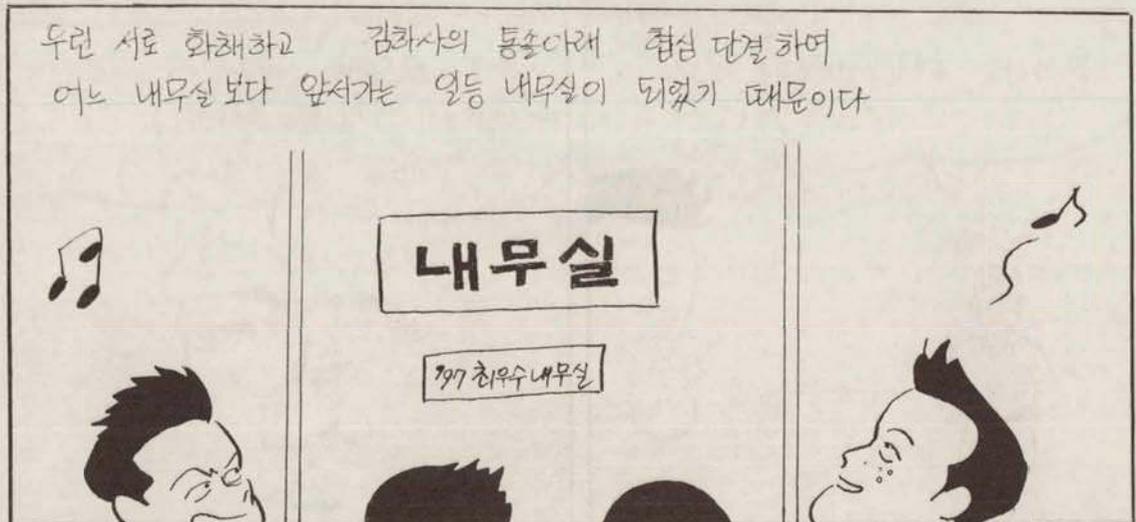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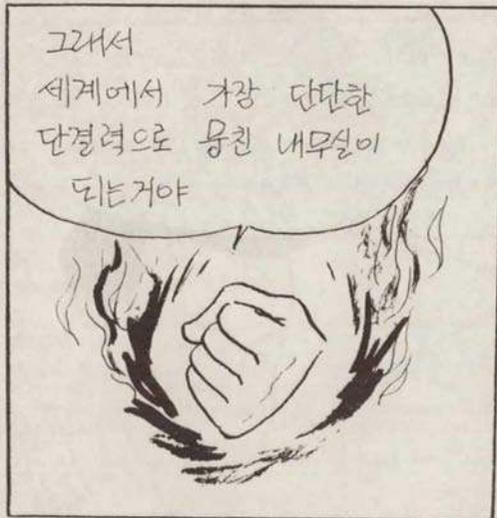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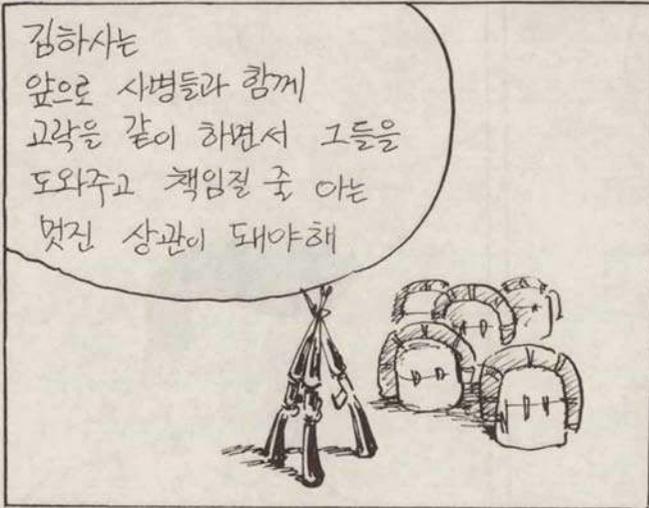


김하사도 마찬가지로야
!



상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강압적이고 독단적으로 하급자를 대하는
태도는 옳지 않아





공·군·문·단



시

- 나의 다짐
- 활주로의 꿈

수 필

- 인두에 얽힌 이야기
- 아름다운 마지막 병영일기
- 세상의 주인이 되어

독후감

- 소설 “아버지”를 읽고

소 설

- 고향

취미생활

- 별자리 여행

나의 다짐



이 동 교

소령/제18전투비행단 단본부

선잠깨

기상나팔 소리

침상의 미련 털고

힘찬 군가와 함께

오늘을 열자

바다를 거두고 기침(起寢)하는

붉은 태양에

내일의 희망을 싣고

가슴을 펴자

동해

푸른 시선 가르며 비상(飛翔)하는

보라매 함성소리

고막을 흔들때

백두대간 준봉(峻峰)들

배달민족 저력과 역사

후손에게 들려 주려하지만

조여진 허리

거친 숨소리만 들리지 않는가?

철새 넘나드는 북녘하늘

안개낀 시선으로

바라보는

안타까움을 창공에 흩뿌리며

용솟음치는 내 젊음

노도(怒濤)와 같은 패기로

뉘인 허리 플리라

막힌 하늘담 걸어 내리라

조국의 하늘이여

나를 믿어 다오

활주로의 꿈

박 인 호

병장/제3훈련비행단 무장대대



기름때 타는 냄새 친숙하면서도

알미운 그 냄새

힘든 조출을 이기며

갈고뒹아 놓은 보라매

오늘도 볼트 조이는 소리

우렁찬 엔진 소리

기름과 박자를 맞추며 들어본다

터질듯한 폭음과 듄직한 전투기에

내 마음 실어

조국하늘로 뿌리리

인두에 얽힌 이야기

남 상 열

중령/국방부 건군 50주년 기념행사 기획단



1. 어느 여인의 방문

지금부터 30여년전 중학교 2학년 때의 일인데 햇살이 눈부시게 비추는 초여름쯤 되었을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벼논에 김을 매는 철이라 대부분 일을 나가고 없는데다가, 간간이 매미 울음 소리만 한가로이 들리고 있어 마치 동네가 텅 비어 있는 것처럼 고요한 시간이었다.

나는 토요일의 오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 온 후에 발두렁에 가서 토끼풀을 뜯어 와 토끼장 앞에서 서성이고 있을 때였다. 오래된 나무 대문이 삐거덕하니 열리는 소리가 나서 뒤를 돌아보니 어떤 여인이 빠끔히 열린 대문 안으로 슬그머니 빠져 들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등줄기에 오싹하는 한기를 느낄 만큼 소름이 온 몸에 짝 돋았다.

그 여인은 40살쯤 되어 보였는데 머리는 멋대로 늘어져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의 혈색은 마치 잿빛처럼 윤기없이 어두웠으며, 웃은 하얀 소복

처럼 보이는데 오랫동안 빨아 입지 않은 듯 누런 색으로 변해 가고 있었다. 그리고 등뒤에 배낭 식으로 붓집이 있었는데, 흔히 볼 수 있는 바가지나 양은냄비 같이 곡식을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손에 들려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아 거지는 아닌 듯 싶었다. 그런데 나를 쳐다보는 눈은 행하면서도 눈빛이 멀거나 초점이 없어 보여 무서움을 더해 주고 있었다. 대낮인데도 이토록 무서우니 만일 어스름한 밤이었다면 소리를 지르고도 남았으리라.

그 여인이 마치 어린아이 걸음마 연습을 하는 것처럼 뒤뚱 걸음으로 천천히 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집안으로 뛰어들어 갈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할머니가 부엌에서 점심상을 차려 들고 나왔다. 내가 사는 집의 마루는 가운데 기둥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부엌쪽의 마루에 밥상을 내려놓자 나는 얼른 뛰어나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권고로 그 여인은 토끼장이 있는 마루 쪽에 앉으면서 등짐 보따리에서 몇 가지 물건을 꺼내 놓았는데, 힐끔 곁눈으로 쳐다보니 인두(옷의 깃을 다리는데 쓰는 도구)와 불 주걱(화로의 불을 뒤적이는데 쓰는 도구)을 내어 놓았다. 그 여자의 목소리는 너무나 희미해서 잘 알아들을 수 없는데 대충 눈치를 보니 꺼낸 물건들을 팔아 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할머니는 그 중에서 인두를 하나 골라 방안에 들여놓고 큼직한 바가지와 들고 대청에 들어가서 쌀을 가득 담아 가지고 나왔는데, 할머니는 가끔 쌀이나 보리쌀 등을 얻으러 다니는 동냥꾼들에게 언제나 후하게 대해 주는 편이었다.

한 되쯤 되어 보이는 분량을 들고 나와 그 여인의 보따리 속으로 부으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잠깐 기다리라고 하더니 보따리 안에서 조그마한 뒷박을 꺼내었다. 그 뒷박을 치마폭 위에 놓고 할머니가 가져온 쌀을 부으니 크기가 너무 작아서 반밖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것마저도 마시(뒷박 높이와 같게 밀어낸다는 사투리, 고봉의 반대뜻)로 깎아 내린 다음 나머지는 다시 할머니에게 주었다.

할머니는 쌀을 다 가져가라고 하고 그 여인은 한 뒷박만 받았다고 서로 실랑이를 하다가, 그렇다면 점심때가 되었으니 밥이나 먹고 가라는 할머니의 소리를 듣고 나는 허겁지겁 친구들과 놀기 위해 밖으로 나와 버렸다. 그리고 저녁때가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 왔는데 그날 밤 나는 할머니 옆에 누워서 낮에 다녀간 그 여인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듣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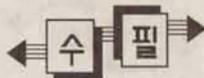
2. 세상 밖으로의 여행

그 여인은 우리 마을과 10리 정도 떨어진 백룡리란 마을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는 함아무개에게 시집와서 살고 있다고 하였다. 집은 너무나 가난하고 남편의 별이가 시원치도 않은데다가, 그녀가 몇 해 전부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이 약저 약을 쓰느라고 매우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 날도 여느 날처럼 남편이 밥을 지어서 물을 말아 가지고 들어와 약간을 먹인 뒤 일을 하러 나갔다.

그 여인은 남편이 나간 뒤 심한 통증을 느끼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비몽사몽간에 밖에 소곤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문이 확 열리더니 형체를 알 수 없는 시커먼 두 그림자가 들어왔다.

순간적으로 그녀는 자기를 데리러 온 죽음의 사자로구나 하는 생각이 번쩍 들어 몸을 떨고 있는데, 그들은 다짜고짜 누워 있는 그녀의 양쪽 팔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더니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서 양쪽 문지방을 붙잡고 버티면서 조금만 있으면 남편이 점심을 주려고 올 것이니, 자기 때문에 고생한 남편에게 인사라도 하고 떠나게 해 달라고 빌면서 사정하고 있을 때 마침 남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부인의 육신이 누워 있는 아랫목으로 가더니(그때 그녀의 영혼은 방 윗목에 있었음) 흔들어 깨우다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대성 통곡을 하였으며, 그녀가 여기 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도무지 알아 듣지를 못했다.

잠시 후 이웃에서 소식을 듣고 와서 밥을 지어 상을 차려 놓았는데 검은 옷을 입은 사자들이 앉아서 밥을 먹더니(그 여인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어 보란 이야기도 없이 자기들만 먹었다고 함), 밥상 한쪽에 놓아둔 노자 돈을 나누어 챙겨



널고 상 밑에 있는 집세기 신을 신은 후에 빨리 가자고 하면서 그 여인을 끌고 밖으로 나왔다 (그 여인은 신을 신지도 못하고 따라갔다고 함).

그런데 밖을 나와 보니 그 동안 한번도 본적이 없는 완전히 딴 세상이었는데 길 좌우편에는 과일밭과 아름다운 꽃밭이 싱그럽게 가꾸어져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과일을 따고 꽃을 꺾으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평화로운 모습이 간간히 보였다.

끝도 없이 길을 따라가다 보니 다리도 아프고 배가 고파서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여기에 있으면 안되겠느냐고 물으니, 저들은 이생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이곳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당신은 가야 할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드란다.

얼마쯤을 걸어가다 보니 매우 웅장하고 아름다운 대문이 있어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나르거나 불결하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했더니 이생에서 게으름을 피우며 놀고 먹던 자들이라고 알려주었다.

다른 대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 곳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야유를 받거나 매를 맞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생에서 남을 못살게 굴고 피해를 주었던 자들이라고 하였다.

또 한 대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더니 마치 창살처럼 보이는 곳에 한사람씩 들어가서 좌정하고 앉아 있기에 저 사람들은 누구냐고 물었더니, 이생에서 부모도 모르고 이웃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기만 알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자들이라고 알려주었다.

다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몇몇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로부터 많은 물건을 받고 있었는데 그

들은 이생에서 남에게 도움을 주거나 베풀었던 것을 다시 되돌려 받는 중이라고 말해 주었다.

또 한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그 안에서는 잔치가 열리고 풍악 소리가 요란했는데 그들은 이생에서 자기 재주를 가지고 이웃에게 봉사하거나 남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자들이라고 했다.

그렇게 해서 열두 대문을 통과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급하다고 하면서 자세하게 보여주지 않고 서둘러 지나갔다.

마지막 대문을 통과해 보니 웅장하고 아름다운 궁전이 나타났는데, 건물 중앙에 있는 보좌에 하얀 수염이 나고 왕관을 쓴 분(그 여인은 옥황상제일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함)이 위엄있게 앉아 있었다.

보좌 양쪽에는 신하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무릎을 꿇어 엎드리라고 명령을 하고 나서, “화순군 동면 백룡리에 사는 김아무개를 대령하였습니다”라고 보고했다. 그러자 심판관으로 보이는 사자가 책을 뒤적거리더니 “그 여인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잘못 데리고 왔다”고 하니까, 보좌에 왕관을 쓰고 앉아 있던 분이 “빨리 되돌려 보내라”고 호통을 쳤다.

그 여인이 놀라면서 말하기를 “저희 집은 가난하고 남편이 돈도 잘 벌지 못하는데다가 제 몸이 아파 약값으로 번 돈을 다 써 버렸는데, 만일 제가 돌아가면 남편이 또 다시 힘들게 될 것이니 제발 여기에 있게 해 달라”고 졸랐다. 그러나 보좌에 앉은 이가 “너는 이제부터 아프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다시 이승에 돌아가면 인두와 화룻불 주걱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 생활에 보태 쓰도록 하되 값은 반듯이 1할만 붙여서 팔도록 하여라. 그러면 나중에 이곳에 올 때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 여인은 대문 밖으로 쫓겨 나온 후 자기를 데리고 온 사자에게 이르기를 "맨발로 그 먼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간신히 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하소연하자 "가는 길은 쉽게 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였다.

그들이 데리고 간 곳은 낭떠러지 아래로 시퍼런 물이 흐르고 양쪽에는 절벽이 있는 강가였는데, 이쪽과 저쪽의 절벽을 연결하는 길은 단지 저릅대(삼나무 껍질을 벗긴 줄기의 사투리) 세 개가 놓여 있을 뿐이었다.

그때 어디선가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저릅대 다리 위를 쪼르르 건너갔다. 사자들은 그녀에게 건너보라고 하는데 무서워서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는 순간, 뒤에서 등을 떠밀어 버린 바람에 그만 천길도 넘어 보이는 물 속으로 풍덩 빠지고 말았다.

3. 인두가 주는 교훈

바로 그 날은 죽은지 사흘이 되어 장례식을 치르는 날이었다.

이미 수의를 입히고 몸의 일곱 군데를 묶어서 입관을 한 후에 상여 안에 넣기 위해서 방안에 있는 관을 떠메고 문을 막 나서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그 순간 여인의 시체를 일곱 마디로 묶었던 삼베줄이 끊어지고 갑자기 큰 소리가 나면서 관 뚜껑이 튀듯이 열렸다고 한다.

모두들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뒤로 자빠져 버렸는데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남편이 그녀를 부축하여 관에서 꺼내 주었고, 그 후로 아팠던 몸

은 씻은 듯이 나왔으며 차츰 원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그녀의 남편은 죽었던 부인이 다시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아팠던 몸도 다 나왔기 때문에 매우 기뻐하며 더욱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지금은 생계에 별로 어려움이 없지만 살아 있는 동안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돈 벌이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쇠를 두들겨서 만든 인두와 불 주걱을 팔러 다니고 있는데, 값은 저승에서 정해 준대로 원가에 1할만 붙여서 팔고 있으며 만일 이를 어기면 자신이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죽은 후에 이생에서 행한 대로 심판(심은 대로 거둔다는 뜻) 받는 모습을 보고 온 그녀는 아마도 이승보다 저승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듯하다.

그 여인이 우리 집을 방문할 때가 저승을 다녀온지 석달이 되었는데, 그 때까지 일곱 군데를 묶었던 자국이 시퍼렇게 몸에 남아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그녀가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저승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환상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다.

할머님이 그 여인에게 사서 사용했던 인두가 지금도 집에 보관되어 있는데 나는 가끔 인두를 볼 때마다 그 여인의 일을 회상하며 한편으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곤 한다.

마치 인두가 구겨진 옷자락을 말끔히 다려 주듯이, "인두에 얽힌 이야기"는 내 생활의 잘못된 부분을 바르게 펴 주는 교훈이 되기에 지금도 어린 시절의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

아름다운 마지막 병영일기

이 주 태

중위/제11전투비행단 정훈실



지난 해 10월 군가경연대회를 준비하면서 문득 느낀 것이 있다. '아, 지금 군대생활의 마지막 군가경연대회를 준비하고 있구나'라고. 그리고 보니 군가경연대회 뿐이 아니다. 상반기에 있을 부대 정신교육과정 운영과 모형항공기 대회를 비롯한 각종 정훈업무도 제대를 반년 밖에 남겨두지 않은 나에게는 모두 마지막으로 다가 올 것이다.

공직생활을 하다가 입대한 나에게 있어서 문서를 기안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과 같은 행정처리는 익숙한 것이었지만, 거둬드는 훈련과 긴장을 요구하는 부대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더욱 힘들었던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군대에서 썩히고 있다는 안타까움과 직장에 있는 동기들에 비해 뒤쳐지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극복하는 일이었다. 그 뒤 가정을 이루어 마음이 안정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차차 줄어들었지만, 무엇보다도 군대생활에

대한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다.

책상물림으로 커 온 나는 남앞에서 본 경험이 별로 없었다. 그러다가 수 많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하는 정훈장교가 되어 처음 장병들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나를 응시하는 수 많은 눈에 압도되어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속으로 스스로를 안정시키며 생각한 것은 초등학교 시절 웅변을 하던 경험이었다. '그 어린 나이에 많은 청중들 앞에서 열변을 토하지 않았던가'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심장박동수가 줄어들고 전날 차곡차곡 정리해 두었던 교육내용이 머릿속에 재현되어 나왔다. 그때까지 한번도 초등학교 시절의 웅변 경험이 군대에서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다. 군대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비록 직장일과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초등학교 시절의 웅변경험처럼 나중에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될 일이 많을 것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하며 군대 일에 새롭게 접근하려고 노력했다.

실로 전혀 무관해 보이는 일에 대한 경험이 문 제해결에 도움이 된 예는 위에 든 예 말고도 얼마나 많은가. 사회현상이란 상호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젊은 나이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다양한 경험이 성공적인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경험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경험의 지혜가 일의 처리에 묻어 나오게끔 현재의 삶을 충실하게 영위하는데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나의 정훈장교 생활은 북한과 통일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추구할 수 있어 직장일과 연관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유익했으며, 동시에 파견대장의 경험이나 MBC 우정의 무대 지원 경험은 군대가 아니면 체험하기 힘든 것으로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해주었으며, 언젠가 다시 유익한 경험으로 표출되어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

여기에서 내가 경험지상주의자가 아님을 밝혀 두어야겠다. 경험의 맹점은 많으며 과신은 금물이다. 그러나 또한 경험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훌륭한 자산이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경험에는 문서기안과 같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고도의 창조적 수정을 요하는 것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또는 전혀 새로운 일에 부딪혀 과거의 경험이 무용지물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과거에도 이와같은 새로운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했었다는 '자신감'이라는 경험이 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또 다른 결과를 보일 것이다.

미래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불안해 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일은 새해와 같은 특별한 때를 제외하고는 잠 들기전 10분이면 족하다는 것이 지금 나의 생각이다. '지금, 여기'는 과거 경험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곳인 동시에 미래 미지의 문을 여는 열쇠가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연히 다가오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손을 놓고 있기 보다는 그 시간에 주어진 일에 몰두하는 것이 미래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신년회호로 유시유종(有始有終)을 쓰는 것을 보았다. 임기를 1년여 남겨둔 시점에서 시작한 일을 잘 끝맺음 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낸 것이리라.

누구나 무슨 일을 시작할 때는 잘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끝맺을 때 보면 하나같이 조금하고 경망스럽게 대충대충 끝낸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말년이 아름다운 사람이 드물다고 한다. 용두사미라는 딱지를 달고 다니는 많은 국가정책을 보아도 그렇고, 당장 제대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장병들을 대할 때도 그걸 느낄 수 있다. 나는 시간있을 때마다 그들을 대상으로 강조하곤 했다. "제대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인상을 남겨라." 주문처럼 되뇌이던 이 말이 이제 나를 겨냥하고 있다. 나의 군대생활의 마지막 모습은 남들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칠까. 그래서 나도 새해에 다짐한 것이 있다. 비록 붓글씨에 소질이 없어서 대통령처럼 휘호를 써지는 못했지만,

진종여시(續終如始).

끝맺기를 처음 시작할 때처럼 신중하게 하자는 뜻이다. 갓 임관했을 때처럼 약간 긴장한 자세로 만나는 사람마다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쓰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을 처리하려고 하던, 다만 조바심과 안타까움과 같은 마음은 벗어던진 채, 그런 자세를 힘들겠지만 끝까지 유지해 볼 결심이다.



가끔 자신을 돌이켜 보면 어느새 사회의 직장으로 달음질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하곤 한다. '이건 내가 제대한 후의 일이잖아' 6월 이후의 문서는 아예 밀쳐버리고 싶은 게으른 생각에도 유혹당하곤 한다. 서울로 직장으로만 향하는 나의 의식을 붙들어 매고, 6월까지만 생각하려는 게으른 생각에 채찍을 가해, 총명한 눈으로 나의 교육을 경청하고 있는 푸른 제복의 장병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겠다.

아름다운 마지막 병영일기를 위하여, 신중한 끝맺음을 위하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 현재이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마주보고 있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이 글이 완성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본부의 방침변경으로 군가경연대회가 상반기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대전 한번 더 군가경연대회를 준비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ND**

세상의 주인이 되어

유 주 한

상병/제3131부대 정비대



일상에서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 일들,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세상, 세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여기서는 나라와 나라사이의 그런 거대한 조직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그런 자그마한 세상을 얘기하고자 한다. 사람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얼굴을 익힌다는 것, 서로의 이름을 알아간다는 것, 조금씩 서로에게 각인되어 진다는 것.

아마 교회 예배시간에 들은 이야기 같다.

하느님은 처음 세상을 만들 때 아담 한 명만을 만들었다고 한다. 세상 단 하나뿐인 사람. 그것은 아담만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의 죽음은 곧 세상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얘기다. 목사님께서 이 얘기로 사람생명의 중요성을 설명하시려 했다. 하지만, 난 여기서 내가 얘기하려는 얘기

의 방향을 설정하려 한다.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세상,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세상을 만들어 간다고 말하고 싶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일들, 자신의 가치들.

이 모두가 자신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자신의 성,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CF의 로고처럼 '세상의 중심은 나!'

나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내가 주인인 세상이라는 뜻일 것이다. 견문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 그런 것들이 자신의 그것을 더욱 폭넓고 유익하게 만드는 일들이다.

정보화! 세계화!

요즘 세상을 말하는 이와 같은 단어들 속에서 필연적으로 우린 경쟁이란 단어에 맞닥뜨리게 된다. 경쟁에서 살아남는 일이란 자신의 능력 배양, 자신의 힘으로만 움직여 나갈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해 가야 된다는 말이다. 이런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복국가 시절 모든 왕

조들이 자신의 영토를 넓히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고, 그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넓은 자신의 영토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남아있는 정기스칸!

정기스칸이 그토록 넓은 영토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 방법을 알았다는 것일 것이다. 지금에 우리들도 것처럼 우리에게 맞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대에 맞는 방법이란 많은 지식을 갖는게 아닌가 싶다.

여기서의 지식이란 학문적 지식을 말하기 보다, 사람들 사이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전문 그런 지식들을 말하고 싶다.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세상을 알게 되면서 그것을 공유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 내가 가지고 있는 영토를 더 크게 넓힐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난 지금 이 자리에서 있다.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난 내가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세상을 내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내가 개척해야 할, 내 힘만으로 개척해야 할 세상에 떨어져 있다.

'96년 2월 초!

대학 2학년을 마치고 군 입대를 위해 휴학을 하던 날, 난 끝없는 허탈감에 빠져 있었다. 내가 20년을 들여 만들어온 내 세상을 내가 없는 상태로 3년을 방치해야 한다는 사실과, 3년후 다시 돌아온 내가 내 세상의 중심으로 아무거리낌과 어색함 없이 자리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영장을 받아놓고 정말 많은 시간을 덧없이 흘러보낸 것 같다.

군 입대 5일전, 난 내 친구들과의 이별을 아쉬워하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흐릿한 내 정신과 눈앞에 학교앞의 호수가 시선을 멈추게 했다.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바라보던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던 모습. 하지만, 그때 느낀 감정과 지금의 감정은 사뭇 달랐다.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인 이 풍경, 변하지 않는 이 모습처럼 내가 떠나 있는 동안의 내 세상도, 내가 떠나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날 기다려 줄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주위에서 나와 이별을 슬퍼하며 울어주던 내 친구들과 가족들.

잠시 내 생각이 느슨해지긴 했지만 내가 돌아오는 날 모두 이 호수처럼 그때의 감정과 느낌으로 내 옆에 있어 줄거란 생각을 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현실성 없는 생각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떠나는 나에게 큰 위안이 되었고 새로이 만나게 될 내 세상, 내가 만들어 가야 할 세상을 맞이하는데 큰 용기를 주었다.

그리고 며칠후, 난 어느새 짧은 머리에 혼련병이란 이름으로 나와 같은 고민과 아픔을 겪었을, 그리고 앞으로 겪어 나가야 할 507기라는 이름의 전우들과 함께 내 군 생활의 처음을 맞이했다. "동병상련" 같은 처지의 사람들. 그 공감대가 20년 동안의 서로간의 차이를 허물 수 있는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서로가 자신의 얘기를 자신의 고민들을 스스럼없이 나누었고 서로에게 많이 기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처음으로 만들어 갈 이 세상. 아주 짧은 기간이 되겠지만 나의 자리에 발을 내딛던 이들에게 난 무언가 힘이 되어주려 노력했다. 하지만, 어느새 흘러버린 12주라는 시간은 우리의 이별을 재촉하고 있었다. 이제 자대생활 2개월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개척, 언제나 노력이라는 단어가 동반되어지는 이 단어.

이제는 이곳에 나의 영토를 내 세상을 구축하려 한다! **등단**

소설 “아버지”를 읽고

오 우 택

하사/제18전투비행단 야전정비대대



보는 것 만으로도, 듣는 것 만으로도 우리는 풍요의 시절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물질 만능주의의 세태에 어느덧 동화되어 인간의 순수성을 잃어버린지 오래인 듯 싶다. 정서가 메말라 버린 이 시대, 그래서 더 더욱 고독이란 단어가 서점의 서가마다 빠지지 않고 붙어 다니는 것이라 이야기 해 본다. 나를 비롯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가슴이 비어 버린 듯한 고독을 느끼는 이 시간, 듣기만 해도 가슴 뭉클한 아버지란 단어로서 이 시대 사라져 버린 진정한 사랑을 찾아볼까 한다.

소설 “아버지”는 복잡하게 얽혀가는 긴급한 사건 전개도 없고, 복선과 암시가 잔뜩 깔려 바로 앞의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서스펜스도 느낄 수 없지만, 평범한 구성의 진행속에서도 잔잔하게 깔려드는 감동의 파문이 눈시울을 적시게 하는 따뜻한 사랑이야기이다. 이 소설의 작가 김동현씨가 아직은 인기있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아닌 무명의 작가지만, “아버지”가 일약 베스트셀

러 자리로 급부상한 이유를 아직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건전함을 의미한다며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다. 작가는 이 소설에서 사랑을, 행복을, 용기를 입에 담지는 못하지만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행복해 하고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용기를 감춰두고 있는, 우리들의 아버지를 통해 우리 마음속 어딘가에 감춰진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내고자 했다.

그럼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 잠시 소개할까 한다. 이 소설의 주인공, 사건 전개의 실체인 아버지는 한정수란 인물로서 어린시절 가난에 저들려 성적에 관계없이 대학진학을 포기했다가, 가난에 대한 대항의식이랄까, 가난의 탈출구로써 부단히 노력해 대입검정고시와 행정고시를 한꺼번에 합격하는 영광을 얻었다. 부와 권세 앞에서 한 때는 인생의 모든 것을 획득하는 듯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법없이도 살아 갈 수 있는, 너무나도 순수하고 순리에 맞는 업무처리의 끈은 성격의 그로서는 출세를 위해 갖은 방

법을 다 동원하는 그렇고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밀려 진급에 누락될 수밖에 없었고, 아내에겐 무능력한 낙오자로 인식되어 결국 가족들에게 소외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그런 가족들에게 죽는 날까지 무한한 사랑을 베푸는 우리 아버지들의 대표상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그의 아내 ‘영신’을 들 수 있다. 유복한 교육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고상하게 자란 그녀는 수려한 미모뿐만 아니라 마음 씀씀이 역시 빈틈이 없는 완벽에 가까운 여인이다. 자식들의 뒷바라지에 자신의 모든 정력을 쏟아 붓는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여준다. 노력도 해보지 않고 자포자기한 남편에게 불만을 느끼고는 있지만, 여전히 남편을 사랑하는 여인이다.

그리고, 딸 지원은 어머니 ‘영신’의 지극한 뒷바라지로 서울대 영문과에 진학하여 메이컨으로 불릴만큼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여성이다. 아버지의 묵묵한 사랑을 의식하지 못한채 매일밤 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미워하지만 결국 아버지의 깊은 사랑에 눈물로 사죄하게 된다.

막내 아들 ‘희원’은 고등학생으로서, 이 책에 선 뚜렷하게 드러날 만큼 묘사된 부분이 없지만, 순수한 만큼이나 아버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로 묘사된다.

여기에 아버지 한정수의 죽마고우로서 우연히 종합진단을 권하던 중 친구의 채식암진단을 내리게 되는 의사 ‘남박사’가 있다. 친구에게 죽기보다 싫은 사형선고를 내려놓고 괴로워하는 그에게, 마지막까지 곁에서 지켜주는 진한 우정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리고 끝내 한정수의 소망에 따라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눈물을 머금고 친구의 몸에 주사기를 꽂는 비운을 맞게 된다.

마지막으로 시한부 인생인 한정수가 가족에게서 외면당한 채 외로움에 지쳐있을 때, 따뜻한 사람의 냄새를 맡을 수 있도록 해준 ‘이소령’이란 여자가 있다. 어느 일식집 여접대부로 있으면서도 때 묻지 않은 순수함과 상대방을 빈틈없이 배려해 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한정수의 마음을 사로 잡지만 끝내 죽음으로써 막을 내려야할 인연에 가슴 아파하는 착한 여인이다.

이 소설의 서두는 남박사와 한정수의 만남으로 시작된다. 어떻게 이야기를 꺼내야할지 망설이던 남박사는 결국 술자리를 빌어 친구인 한정수에게 채식암 말기이며, 이미 여러 장기에 전이되어 수술도 힘든 상태라 5개월 정도 남은 시한부 생명임을 밝히게 된다.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된 한정수는, 가족들에게 차마 알리지 못한채, 하루 하루를 남박사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으로 보냈다. 술에 취한 채 집에 들어가면 자신을 반기기는 커녕 모두 타인을 대하듯 피하고 외면하려들자 한정수는 점점 외로움의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된다. 일상적인 몇몇 대화를 제외하곤 침묵으로 일관하는 아내는, 각 방을 쓴지도 오래되어 한정수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다.

딸 지원은 매일 술에 취해 들어오는 아버지를 가족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쯤으로 여기고 아버지 한정수에 대한 미움만이 더욱 늘어간다. 집안 어디에도 자신의 체취는 전혀 남아 있지 않고, 타인 대화듯 하는 가족들에게 한정수는 점점 자신이 없어져 버리고, 가족들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도리는 혼자서 조용히 사라져 주는 것이라 단정지게 된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에 아내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이것저것 준비하게 된다. 그런 와중에 한정수에게 생각의 변화를 가

져 오게된 사건이 일어난다. 술에 취한 한정수는 남박사와 집으로 가던 중 집앞 과일 장사와 실랑이를 벌이고 집에 들어가서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외로움과 가족들의 무관심을 터트리게 된다. 그러나 딸 지원은 아버지의 그런 행동들에 더욱 혐오감을 느끼고, 결국 아버지 한정수에게는 비수가 되어 가슴에 처절히 꽂힐 한 장의 편지를 쓰게 된다.

딸의 첫 사과의 편지라 여기고 기꺼운 마음으로 아끼고 아끼다 겨우 펴 본 한정수는 대경실색하게 되고, 그때부터 더욱 가족들에 대한 벽을 쌓아 버린다.

그리고, 후회가 없도록 지금껏 못해 보았던 일들을 해보고 이 세상을 떠나기로 결정하고, 남박사가 알려준 일식집으로 직장 후배와 같이 가게 된다. 그곳에서 이소령이란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녀의 세심한 배려에 그는 처음으로 따뜻한 사람 냄새를 맡게 되고 사랑이란 감정을 느낀다. 그녀 역시 순수한 감정의 한정수에게 그리웠던 애정의 손길을 느끼고, 어느덧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기에 이른다. 한정수의 병세는 나날이 심해져 통증의 빈도가 늘고 고통의 깊이 역시 점점 더해 가고 있었다. 외모는 점점 볼품없어져 가고 진통제 복용 횟수가 점점 늘어만 갔다. 남박사는 결국 아내 영신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고 가족들 모두 한정수의 아픔을 알게 된다. 영신을 비롯해 딸 지원, 아들 희원 모두 그제서야 아버지의 곁으로 들어내지 못하는, 하지만 산만큼 높고 바다만큼 깊었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의 오해로 인해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결국 눈물로써 한정수에게 사죄하고, 한정수 역시 그 공허하던 마음속에 따스한

평온이 찾아오게 된다. 한정수는 남은 가족들에게 해줄 건 없고, 자신의 처지이지만 점점 추해져 간다고 느끼고 남박사와 아내에게 안락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한다. 아내 영신은 이소령에게까지 부탁하여 남은 기간이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보지만, 결국 극심한 고통에 허덕이는 남편을 보고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오열을 토하며 시인한다.

남박사는 찢어가는 가슴을 쓸어안고 조용하게 잠들어 있는 한정수에게 마약성 진통제 테메를을 대량으로 투여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한정수는 모두의 가슴에 남은 채 깊고 깊은 잠으로 빠져든다. 왼손에는 아내에게 바치는 마지막 선물 진주목걸이와 반지를, 편지와 함께 꼭 쥐 채, 아내에게 바치는 간략한 편지를 마지막으로 이 책은 마무리 지어진다.

문득 눈에서 시큰함을 느낀다. 지금 이순간 가정과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면서도, 어깨 위에 얹힌 삶의 무게로 언제나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 아버지들의 모습이 가슴에 어린다. 항상 의연하듯 우뚝 선 우리들의 아버지 내면에 숨겨진,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통한 진정한 아버지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하겠다. 저녁시간, 낮동안 혹사 당한 당신의 휴식을 그 누가 방해 하겠소만, 이 시간 꼭 전화 한통으로 아버지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아버님!' 이라고 한 번 외쳐보고 싶은 충동이 간절히 느껴질 만큼 가슴이 뭉클해지며 눈시울이 시큰거린다. 이 기회를 통해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서, 이 책 "아버지"를 영원히 간직해 보고 싶다. **동문**

고향

강 호 준

병장/제10전투비행단 헌병대대



달리는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드넓은 벌판과 푸른 하늘과 눈이 부시도록 하얀 구름,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기만 하면 싱그러운 바람이 손바닥 위에 수북하게 쌓일 것만 같다.

휴가 나온 첫날인 어제는 그냥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고, 현진은 오늘 아침 일찍 경부선 하행선을 탔다. 온몸으로 느껴지는 여유가 그를 싱글싱글 웃게 만든다.

12년만의 귀향. 꼭 가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기회를 잡지 못해 미루고 미루다, 이번 휴가를 이용해 한 번 다녀오기를 결심한 것이다. 옛 친구들은 날 기억할까? 옛 집과 집앞에 심었던 자두나무와 감나무는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까? 나무 한 그루에 얽힌 추억조차도 바로 어제일처럼 느껴졌다. 수년전에 헤어졌던 애인을 만나는 기분이 이런 것일까?

몇 개의 도시를 지나고 몇 개의 산과 강을 지나 기대에 찬 발걸음으로 기차에서 내렸다. 거의 한 시간이나 기다려야 버스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때나 지금이나 교통이 불편하긴 마찬가지인 것 같다. 어느덧 버스를 한참 타고 오니 마을 가까이 왔는지 눈에 익은 산이 몇 개 보였다. 버스안에는 조용하던 기차안과는 달리 시끌벅적한 경상도 사투리로 버스달리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소리에 내릴려면 아직 멀었나요?”

현진은 혹시나 그냥 지나쳐 버린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 기사 아저씨께 여쭙 보았다.

“다음 다음에 내리소.”

아저씨는 서울 말씨를 쓰는 그가 낯설게 보였는지, 주름진 눈을 위로 한번 휘둥그레 떠보고 나서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버스에서 내려서 본 고향마을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학교 갔다올 때마다 뽕배이 과자를 사먹

기 위해 들렀던 구멍가게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논밭 뿐이던 신작로—이제는 아스팔트로 여기저기 갈라져 오래돼 보이지만—옆엔 2층짜리 건물들이 서 있었다. 여기 저기 두리번거리다 옛 기억을 더듬으며 현진은 마을 입구인듯한 좁 넓은 길로 들어섰다. 10분 쯤 그길을 따라 걸어가던 현진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알 수 없을 만큼 변해 있던 입구와는 달리 마을 안은 12년 전과 달라진게 거의 없었다. 그 개천과 그 돌밭길, 그 논두렁,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단지 예전엔 천막으로 지어졌던 개척교회가 이제 어엿한 콘크리트 건물로서 있었다.

그는 원래 도시에서 태어났다. 하지만 다섯살 때 부모님을 따라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산 아래턱 넓은 평지에 집터를 잡고 집 앞과 뒤로 꽤 넓은 공터를 일궈서 배추도 심고 고구마, 감자를 재배했다. 밭 독가에서 옥수수를 심었고 깻잎과 고추도 잊지 않았다. 그래서 항상 식탁에는 싱싱한 야채가 가득 찼었다. 그러나, 현진은 그게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다. 그때 당시는 힘들고 어려운 농촌생활을 알리 없었던 어린 현진은 TV가 보고 싶었고, 아버지께서 직접 깎아주신 야구방망이도 금방 싫증을 냈었다. 문명의 이기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현진은 어린시절을 보냈다.

현진은 제일 먼저 옛집에 가 보고 싶었다. 현진의 옛집은 마을 입구에서 삼사십분 정도 더 걸어 들어가야 했다. 20여 채의 가구가 살고 있는 아랫마을과 대여섯 채의 윗마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 외딴집이다. 겨울밤, 창문으로 스며드는 들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학교에서 봤던 이승복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장면이 떠올라서 밤잠을 설쳤었다. 집까지 가는 길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길 한가운데 풀들이 길을 따라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오른쪽으로는 수십 억년 전의 지각변동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단층이 산 중턱에 있었고 왼쪽으로는 푸르른 벼가 울렁거리는 논이 계속 되고 있었다. 요즘 웬만한 곳은 경지정리가 잘 돼서 네모 반듯한 논이지만 이곳은 아직도 계단식 논이었다.

아버지께서 나무막대기 하나로 독사를 두마리나 잡았던 풀숲도 그대로 있었고 벌집이 많이 모여있던 논둑도 그대로 있었다. 현진은 일곱살 때 괜히 그 벌집에 들을 던졌다가 벌에 온몸을 수도 없이 쏘여서 3일동안 일어나질 못했다. 드디어 집이 보였다. 점점 가까이 갈수록 처마 하나까지 너무나 선명하게 한눈으로 다 볼 수 있었다.

‘여기가 내집이다. 내가 울고 웃으며 커왔던 내집이다. 비록 지금 내몸은 서울에 있지만 내마음은 그때부터 계속 이 집에서 커오고 있다.’

현진은 속으로 이곳이 내 집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었다. 뜨거운 8월의 태양빛을 받아 회색 슬래트가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현진은 집은 그만 둘러보고 올라가던 길을 계속 걸어갔다. 윗마을에 살고 계신 마을 어른이신 김영감님을 찾아 뵙고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이다.

“누구 안 계세요?”

김영감님 댁은 우람한 기와 지붕이 너무나 고풍스럽고 위엄이 있어 보였다.

“거 누구?”

기력이 거의 없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 미단이문을 힘겹게 열며 말씀하셨다. 얼굴에 수도

없는 주름이 그간의 시간을 말해 주고 있었지만 그분이 김영감님이란걸 한 눈에 알 수 있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현진입니다.”

“현진이가 누구?”

할아버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지 눈썹을 찌푸리며 현진을 뚫어지게 쳐다보셨다.

“옛날에 돼지 키우던 집 막내 현진입니다.”

그의 집에 돼지가 많아서 동네 사람들이 돼지 키우는 집이라고 불렀었다.

“뭐라꼬, 서울로 이사갔던 그집 말이가? 그집 막동이 아가 니란 말이가?”

“예, 할아버지 제가 그 막동입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고, 내가 인자 늙어가고 눈이 어둡구만.”

할아버지는 이제야 알아보셨는지 그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서 두손을 꼭 잡아 쓰다듬어 주셨다.

“그래 다들 건강하시재?”

“예”

할아버지께 저녁때 다시 오겠다고 인사 드리고 현진은 밖으로 나왔다. 플라타너스 나무 사이로 불어오는 후덥지근한 여름 바람이 그렇게 시원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다. 현진은 마을 맨 꼭대기 저수지로 발길을 돌렸다.

장마 직후라서 그런지 저수지에 고여있는 물

의 양이 많았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물에 바람이 불어와 작은 물결을 계속 일으켰다. 파란 하늘에 떠다니는 흰 구름을 푸르른 물 위의 물결이 설새없이 따라 다니고 있었다. 풀 냄새가 코속으로 들어왔고 저수지 바람이 귀속으로 들어와, 둘이 머리 속에서 만나 소용돌이 치고 있었다. 평화, 자유, 그리고 고향의 향기가 현진을 감싸고 돌았다.

“거 누구니까?”

누군가 옆에서 말을 걸어왔다.

“혹시 너 은영이 아니냐? 나야 현진이. 나 알아 보겠어?”

“현진이? 니가 현진이가?”

“하하, 야 오랜만이다. 나 군대 갔다가 휴가 나왔어. 귀대하기 전에 고향에 한 번 다녀갈려고 왔어.”

“그래 잘왔다. 야 니 진짜로 많이 변했다.”

은영이는 김영감님 댁의 손녀로 현진이와 같은 나이고 학교도 같이 다녔다. 윗 마을에는 같은 또래의 애가 없어서 항상 현진이와 어울려 놀게 되었다.

“서울 생활은 할만하나?”

“그냥 그렇지 뭐.”

“니는 대학에 갔재?”

“응”

“우리 마을에서 니가 공부 제일 잘했으니까 당연한기지, 뭐.”

“너는?”

“내 팔자에 대학은 무슨 대학, 고등학교 간신히 나와서 그냥 이래 살고 있다.”

은영이의 머리에는 수건이 둘러 싸여져 있었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원래 나이보다 열살은 족히 더 들어보였다. 악수할 때 느꼈던 은영이의 거칠거칠한 손바닥이 아직도 현진의 손에 많은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한참 동안 들은 말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눈은 하늘을 보고 있지만, 옛일들을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하늘이 너무 아름다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지키는 공군이란게 너무 자랑스러워. 정말 젊음을 바쳐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

“니 공군이냐? 그럼 비행기는 많이 타 봤나?”

은영이의 질문이 너무 순박하게 들려 현진은 크게 한번 웃었다.

“피곤해서 그런지 배가 고프다. 너희 집에서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을까?”

“그래. 저녁 먹고 우리 집에서 자고 내일 가라. 오늘 꼭 가야 하는거 아니제?”

“오늘 밤차표를 샀어. 밤에 올라가 봐야해.”

한 여름의 열기를 맘껏 내뿜던 해도 이젠 피곤한지 서산으로 내려 가고 있었다. 저녁상은 조출했지만 현진은 두 그릇을 너끈히 비웠다.

“현진이 니 그 안에 있나?”

밖에서 걸걸한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현진은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다. 해가 지긴 했지만,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의 빛은 남아 있었다.

“너 혹시 태현이 아니냐? 넌 성호? 야 정말 반갑다. 야 너 홍당무구나. 이게 얼마만이냐?”

“그 간지러운 서울말 집어치아라.”

태현이가 버럭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반가워 어쩔 줄을 모르던 현진은 갑자기 무안해졌다.

“야 왜 그래?”

“왜 그래고 나발이고, 니 지금 당장 서울로 다시 올라가라.”

성호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오랫만에 만났는데 너거들 와이란노.”

“은영이 니는 빠져 있어라.”

홍당무가 현진이를 두둔하는 은영이를 쏘아붙였다.

“해 진지가 언젠데 집안이 아직도 이래 시끄럽노.”

마실 다녀 오시던 김영감님이 들어오셨다.

“할아버지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이땅을 지키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지 혼자 좋은 옷 입고 편한 잠 자다가 온 놈한테 잘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맞아예, 부모님 도와서 끝까지 고향땅 지키겠다고 약속해 놓고 혼자 서울로 떠나갔다가 휴

가 나왔답시고 바람이나 한번 쐬러 내려 온 거 아십니까?”

성호와 태현이가 현진을 내쫓아 달라는 듯이 김영감님께 말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난 그냥 놀러 온 게 아니란 말이다. 공부 때문에 서울로 가기는 했지만 한번도 고향생각 안 한적이 없었다.”

현진의 입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사투리가 나오고 있었다.

“그라고 내가 오늘 고향에 와서 무슨 생각 했는 줄 아냐? 내 고향을 내 손으로 지킨다는 생각으로 남은 군생활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다. 지겹고 짜증나서 빨리 제대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없었는데 고향땅을 둘러 보고 생각을 바꿨다. 너 거들은 바로 옆에서 고향을 지키지만, 나는 몸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는기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하는 현진의 이야기를 다들 고개를 숙이고 듣고 있었다.

“그래 그거는 현진의 말이 맞다. 너거들은 손발로 고향을 사랑하고 있지만, 현진이는 너거들 못지않게 마음으로 고향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기다. 그라고 현진이가 열심히 공부해 나중에 훌륭한 사람되면 고향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기다.”

김영감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할아버지 저희는 현진이 마음이 그런지 몰랐습니더.”

“현진아 니 마음도 모르고 막 대했던 우리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다.”

“그래 미안하다, 현진아.”

성호, 태현이, 홍당무 모두 미안한 표정으로 현진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아니다, 너거들이 고향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고 또 너거들이 훌륭해 보인다.”

“현진아 니 그 간지러운 서울말 안쓰고 사투리 쓰니까 얼마나 듣기 좋노. 사투리 안 잊어 먹었으면서 왜 서울말 썼노? 고향에 왔으면 고향 말을 써야제.”

멋쩍어서 머리를 긁는 현진이를 모두들 웃으며 껴안아 주었다.

“참 현진아 오늘 밤차라며. 안 늦었나?”

은영이 깜짝 놀라며 말했다.

“죽마고우들을 다시 만났는데 지금 기차가 문제가? 야들아 오늘 밤새도록 옛날 이야기나 하자.”

현진은 다들 보는 앞에서 차표를 찢어버리고 친구들과 어울려 아랫마을로 내려갔다. 정답게 어깨동무를 하고 가는 모습을 김영감님과 은영이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다. **END**

별자리 여행

김 영 수

병장/제3훈련비행단 무장전자정비대대



우리는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눈에 보이는 별의 수는 무수한 것이 아니라 수천 개에 불과하다. 이론상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은 6 등성까지로 대략 6,000개 정도이다. 그러나 이것도 주위에 빛이 거의 없는 시골에서의 경우이고 도시에서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별은 1, 2 등성 정도이고, 3·4 등성의 별은 날씨가 좋은 날이나 간신히 볼 수 있다.

따라서 무턱대고 별자리를 찾겠다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일단 별자리를 관측하기에 앞서 자주 사용하는 별의 밝기와 관측시 주의해야 할 점, 별자리의 형성과정, 그리고 중요 별자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별의 밝기〉

별의 밝기에는 겉보기 밝기와 실제 밝기가 있다. 이 두 밝기를 우리는 각각 안시등급과 절대

등급이라는 단위로 나타낸다.

절대등급은 모든 별들이 같은 거리(32.6광년, 10 p.c)에 놓여 있다고 가정했을 때의 밝기를 나타낸 것으로 각 별들의 실제 밝기를 비교할 수 있는 척도가 된다. 여기에 비해 안시등급은 그 실제 밝기에 상관없이 단지 밤하늘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별들의 밝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 밝기를 처음으로 수치로 나타낸 사람은 기원전 2C경 그리스의 천문학자 히파르코스였다. 그는 눈에 보이는 가장 밝은 별들을 1등급의 별, 즉 1등성으로 하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장 어두운 별을 6등급으로 정했다. 그리고 그 중간 밝기에 속하는 별들을 밝은 순서에 따라 2등급, 3등급 등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것은 느낌에 따른 분류였기 때문에 거의 주관적인 것이었다.

근세에 와서 별의 밝기에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 정밀한 기계로 측정된 결과 1등성

의 밝기가 기계로 측정한 결과, 1등성의 밝기가 6등성의 100배라는 사실과 각 등급 사이의 밝기 차이가 2,512배로 확정되었다. 이렇게 밝기의 객관적인 기준이 확립되자 눈에 보이지 않는 6등성 미만의 별들과 태양과 같이 굉장히 밝은 천체들에게도 그 적용이 확장되었다. 즉 1등성보다 2,512배 밝으면 0등성, 0등성보다 2,512배 밝으면 -1등성 등으로, 6등성보다 2,512배 어두우면 7등성, 그보다 또 2,512배 어두우면 8등성 등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관측시 주의할 점〉

1. 관측장소와 하늘의 상태

아주 당연한 사실이지만 맑고 어두운 하늘일수록 더 많은 별을 볼 수 있다. 이런 하늘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좀 불편하기는 해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는 것이다.

도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가능한 한 주위의 불빛이 가려진 어두운 장소를 찾는 것이다. 그러나 설사 그러한 장소를 찾았다 하더라도 달이 만월에 가까울 때는 이런 노력도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밝은 달밤에 희미한 별들을 관측한다는 것은 대낮에 달을 구경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다. 따라서 별을 관측할 때는 달이 밝은 밤은 피하는 것이 좋다.

2. 어둠에 대한 적응

고양이의 눈에 전등을 비춰본 적이 있는 사람이면 그 눈동자가 빛의 밝기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사람의 눈동자도 고양이의 눈과 마찬가지로 빛의 양에 따라 그 크기가 수시로 변한다. 즉 어두울수록 눈동자가 커지고 밝을수록 작아진다.

이러한 경우는 우리들이 어두운 극장에 들어섰

을 때 쉽게 경험하게 된다. 극장안에 들어서면 한 순간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잠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주위를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어두워짐에 따라 눈동자가 확대되고,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는 데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별을 볼 때도 우리 눈을 어둠에 적응시키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밤하늘에 나서면 처음에는 밝은 별들밖에 볼 수 없다.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희미한 별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약 15분이 지난 뒤 눈이 어둠에 완전히 적응하게 되면, 우리는 평소에 생각치 못했던 새로운 별의 세계에 놀라게 될 것이다.

3. 관측자세

하늘의 별을 바라보노라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젓힌 자세로 서 있게 된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상당히 불편하며, 설사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장시간에 걸친 관측을 하는 데는 몹시 불편할 수밖에 없다. 처음으로 별을 보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의 불편함 때문에 별과 친해지기를 쉽사리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장시간 별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넓은 자리를 펼쳐놓고 그 위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가장 좋다. 추운 겨울이라면 침낭이나 손난로 등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 이런 준비가 귀찮다면 익숙해질 때까지 목을 뒤로 젓힌 자세로 보되 가끔씩 목운동을 해주는 수밖에 없다.

4. 구름과 안개의 영향

관측하는 동안에 새털 구름과 같이 얇게 깔리는 구름이 나타나면 그것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수가 많다.

이런 구름이 나타나면 밝은 별들은 여전히 쉽게 볼 수 있지만, 어두운 별들은 완전히 사라지

고 만다.

따라서 처음 별을 보는 사람은 하늘의 상태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5. 아는 것에서 모르는 것으로

한번에 모든 별자리를 다 익히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다. 북두칠성이나 카시오페아 같은 쉽게 찾을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그것에 가까이 있는 다른 대상들을 하나하나 찾아나가며 익혀야 한다. 물론 이때는 성도를 이용해야 한다. 우선 단순한 기하학적 모양들을 찾고 그것에 연관된 대상을 탐구하는 방법도 좋다. 성도를 이용해서 대상간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것과 잘 아는 대상과의 거리를 비교해서 확인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별을 관측함에 있어 몇가지 유의할 사항들에 대해 열거하였다. 위 사항들을 어느 정도 만족하는 조건들이 된다면 별을 관측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별자리의 형성〉

별무리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행하여졌다. 비록 민족과 지방에 따라 그 모양과 이름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서양의 별자리는 적어도 기원전 3,000년 이전에 유프라테스 계곡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그들의 별자리는 그리스·로마인들에게 전승되었고, 그들은 각 별자리에 자신들의 신화나 전설 속에 영웅, 용사, 동물 등의 이름을 붙였다.

별자리는 고대의 문학 작품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오리온과 큰곰자리는 기원전 8C 이전의 호머와 헤소이드의 작품에 등장하기도 한다. 또한 기원전 3C경의 시인 아라투스 그의 저서 '파이노메나'에서 44개의 별자리 목록을 소개하였

다. 고대 그리스에는 대략 48개의 별자리가 있었는데, 프톨레미의 저서 '알마게스트'에는 이것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중세기로 접어들면서 별자리를 성도에 나타내려는 시도가 독일의 천문학자이자 수학자인 페터 아피안에 의해 처음으로 행해졌다. 그는 1536년에 북쪽 하늘의 별자리 성도를 평면구에 그려 넣었다. 이 성도에는 프톨레미의 48개 별자리 뿐만 아니라 추가로 머리털자리와 사냥개자리가 첨가되었다. 그러나 이 두 별자리는 후에 티코 브라헤와 요하네스 헤벨리우스에 의해 정확한 모습으로 정해졌다.

그 이후로도 별자리는 계속 만들어졌고 1750년경 프랑스의 라카일레가 남쪽하늘의 별자리를 만들어 발표하면서 그 수가 더욱 늘어나게 되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별자리는 모두 88개이다.

이 88개의 별자리 중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별자리를 몇 개 소개하려고 한다.

〈별자리〉

일단 별자리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큰곰자리와 카시오페아자리부터 알아보자.

1. 큰곰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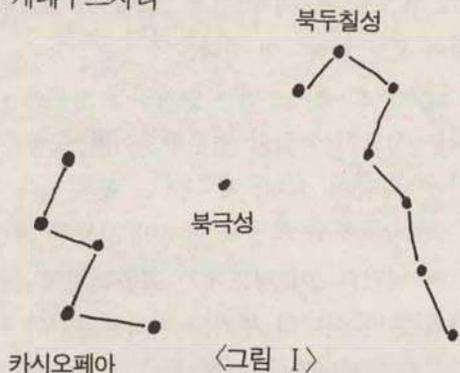
큰곰자리라고 하면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북두칠성이라고 하면 한번쯤은 과학시간에 들어 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 북두칠성을 포함하고 있는 별자리가 큰곰자리이다. 사시사철 밤하늘에 뚜렷하게 보이므로 별자리 모양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카시오페아자리

카시오페아자리는 그림 I에서와 같이 큰곰자리를 향해 서로 마주 보고 있다. 하늘에 W자를 만들며 반짝이는 모습을 통해, 별자리를 찾는 초

보자에게 자신감을 줄 것이다.

3. 케페우스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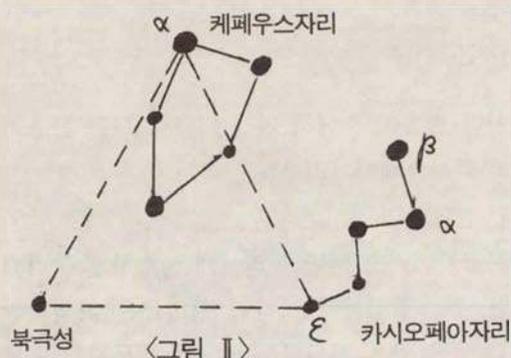


<그림 I>

케페우스자리는 5각형의 기하학적인 모습으로 특징지어진다. 카시오페아가 보일 때쯤이면 그 윗부분에 위치한 오각형을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카시오페아의 α 별과 β 별을 잇는 선을 3배정도 연장하면 케페우스자리의 오각형과 만나게 된다.

그림 II를 참조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4. 사자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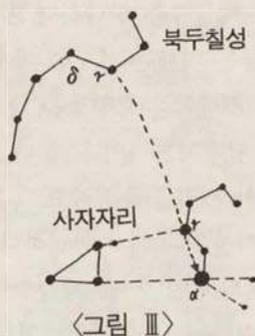


<그림 II>

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이다. 이른 봄 동쪽하늘의 지평선 위로 사자자리의 머리 부분이 보일 무렵, 북동쪽 하늘에는 북두칠성이 서서히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한 국자별 북두칠성은 봄철의 동쪽 하늘에서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준다. 그래서 북두칠성이 높이 떠있는 봄철의 밤하늘에서 사자자리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두칠성에서 손잡이가 되는 δ 별과 γ 별을 연결하여 계속 나아가면, 사자자리의 γ 별인 알기에바를 지나 α 별인 레굴루스에 이르게 된다. 사자의 머리부분인 낮을 찾을 수 있다면 뒤에 따라나오는 직각삼각형의 꼬리부분을 찾는 것은 매우 쉽다.

5. 백조자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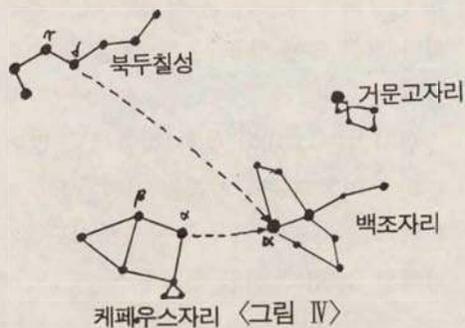


<그림 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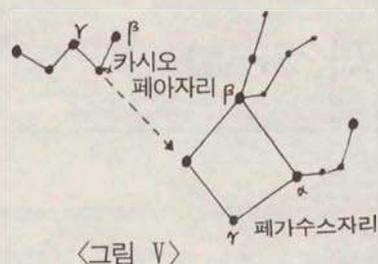
여름철의 대표적인 별자리로서 그 모양이 뚜렷하고, 밝은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 찾는 데는 별 무리가 없다. 북쪽 하늘 케페우스자리의 β 별과 α 별을 이어 남쪽으로 두배 정도 연장하거나, 북두칠성의 손잡이와 그릇 부분이 만나는 γ 별과 δ 별을 이어 50° (북두칠성 전체크기의 두배) 정도 연장하면 백조자리의 α 별 데네브와 만나게 된다.

참고로 1등성 별인 데네브는 색깔이 하얀색으로 백조자리를 찾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6. 페가수스자리



케페우스자리 <그림 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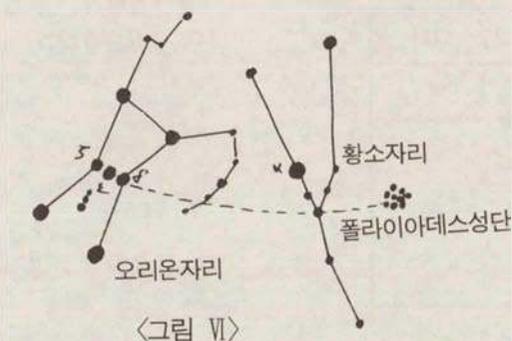
<그림 V>

여름의 1등성들이 은하수를 따라 서쪽으로 내려가 버린 가을 하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별자리는 페가수스이다.

밝은 2등성을 세 개씩이나 가지고 있고, 모양 또한 독특하기 때문에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페가수스자리를 찾는데 지침이 되는 별자리는 북쪽하늘 높이 떠오른 카시오페아자리이다. 카시오페아의 γ 별에서 α 별을 이어 약 6배정도 연장하면 페가수스사각형에 이르게 된다.

7. 오리온자리



<그림 VI>

겨울밤의 가장 대표적인 별자리인 오리온은, 우리나라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60개의 별자리 중에서 1등성을 두개씩이나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별자리다. 두 개의 1등성이 가운데의 삼태성(ζ , ϵ , δ)을 경계로 대칭을 이루고 있으므로, 겨울철의 남쪽 밤하늘에서 오리온의 모습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8. 황소자리

초겨울 남쪽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대표적인 별자리다. 이 별자리를 찾는 데는 앞에서 소개한 오리온자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오리온의 삼태성을 풀어 북쪽으로 연장하면 황소자리를 만나게 된다. 특히 황소자리 바로 옆에 육안으로 부엌게 여러 개의 별들이 뭉쳐 있는 별들이 있는데, 플라이아데스라는 성단으로 육안으로 관측되는 몇 안되는 성단이다.

이상으로 별을 관측하는 법과 중요 별자리를 찾는 법에 대해 썼는데, 특히 중요 별자리에 나와 있는 그림들 주변 별자리도 관찰해 본다면 그냥 지나쳤던 별들의 아름다움을 새삼 느끼게 될 것이다. **종료**

공군 1997년 봄호(통권 제238호)

글을 기다립니다.

구분	내용	분량
보라매칼럼	의식적 차원에서 권장할 사항	20매 내외
시사, 안보	— 군 전략 및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것 — 군과 관련된 군내외 시사문제	40매 이내
군사지식	공군 및 군대 전반에 관련된 지식 및 정보	40매 이내
공군논단	시사안보를 제외한 연구분석 발표	40매 이내
마음의 샘	지혜로운 삶을 위한 수상록	20매 내외
취미생활	타인에게 권할 만한 취미 소개	30~40 내외
장병문예	단편소설, 시 등 문학작품	35매 내외
병영이야기	병영생활을 소재로 한 에피소드	7~8매
기타	— 공군정책 제안 — 부대동정 사진 — 공군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	

알림

본 도서는
공군장병들의
교양함양과 건전한
읽을거리 제공을 위하여
발간된 것으로
게재된 내용은 공군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 연중

▶보낼곳 : — 각 부대 정훈참모

— (320-919) 공군지 편집실

충남 논산시 두마면 부남리 사서함 310

※ 반명함판 사진 1매, 연락처 명기

▶전화 : (호)6232 (02) 506-6232

(042) 552-6232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 지급(원고 송부시 계좌번호 기입 바람)

■발행처 : 공군본부 정훈공보실

■발행일 : 1997년 3월 31일

■인쇄처 : 인쇄/출판 금성산업

T. (042)254-7434, F.256-7434



본 선 대 회

- ◆ 일 시 : 1997년 5월 18일 일요일
 ※ 우천시 : 5월 26일 일요일
- ◆ 장 소 : 공군사관학교 (청주)
- ◆ 주 최 : 공 군 본 부

